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문화예술정책연구

- ‘문화예술의 섬’ 정책의 분석과 제언

**Regional cultural arts policy study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Analysis and proposal on the ‘island of cultural arts’ policy**

2017년 2월

세종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공연예술매니지먼트학과

강 경 호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문화예술정책연구

- ‘문화예술의 섬’ 정책의 분석과 제언

**Regional cultural arts policy study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Analysis and proposal on the ‘island of cultural arts’ policy**

지도교수 김 태 훈

이 논문을 예술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2월

세종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공연예술매니지먼트학과

강 경 호

## 국문초록

문화가 시대적 패러다임이 된 지금의 시대는 문화가 곧 일상이고 문화경쟁력을 갖추어야 세계화의 흐름에 발맞출 수 있다. 맥락 속에서 문화예술정책이 가지는 위상과 위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그중에서도 특히 1995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문화예술 정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의 확대와 발맞춰 중앙 집중적이던 문화예술정책은 지역문화예술 중심적인 특성화와 다양화의 변화에 부응하는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지방분권화의 결과로써 특별자치도로 전환되었으며 ‘지역 간의 문화격차의 해소와 함께 지역이 가진 특색 있는 고유한 문화의 발전을 위한 것’이 목적이 되는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에 제정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정책은 더욱더 그 추진이 가속화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더 이상 대한민국의 변방이 아닌 문화적 중심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며 문화예술의 뜨거운 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인구의 급격한 유입과 한해에 일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입은 기존의 제주도가 만들고 시행해온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발전방안을 모색해야할 시점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로 제주지역 문화예술정책의 흐름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정책을 전반적으로 탐색하고, 실증연구인 국내외 섬 지역의 문화예술정책의 사례분석을 통해 특히 민선6기의 ‘문화예술의 섬’ 정책을 분석하고, ‘문화예술의 섬’의 설문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언을 하고자 한다.

지역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사례연구와 설문을 통해 문화예술의 섬의 정책의 과제와 제언을 몇 가지로 추려보고자 한다. 정책의 과제로 첫째는 문화예술의 섬 비전의 특성 부재이다. 둘째는 문화예술의 섬 사

업 간의 상호 연계성 부족이다. 셋째는 문화예술의 섬 사업 파급효과의 부족이다. 넷째는 지속성을 갖춘 문화 향상 프로그램의 부족이다. 다섯째는 문화민주주의 개념을 도입한 사업의 설계 및 추진이다. 위와 같은 ‘문화예술의 섬’ 정책이 가지고 있는 현시점의 과제에 대한 정책제언으로는 첫째, 지역주민에 의한 정책의 완성과 예술참여기회 확대이며 둘째는 문화예술의 섬 제주 홍보 마케팅 강화와 셋째는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넷째는 최근 두드러진 증가추세에 있는 천삼백만 관광객시대의 제주문화예술정책의 방향과 다섯째로 문화예술의 섬 제주 정책의 방향성을 제언하려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의 섬’ 정책의 완성을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현실적인 지역문화정책인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소비자 중심의 정책과 문화민주주의에 입각한 능동적이고 소통 중심에 선 문화행정을 완성시켜야 하며, 문화예술은 그 자체가 문화예술 정책의 목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면서부터 정책이 출발해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을 통한 다양한 파급효과 및 관광산업 효과 등은 목적이 아니라 문화예술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효과이기 때문이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은 문화예술 그 자체의 발전을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목적성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를 담보하고, 시민들이 주도하는 자발성이 마련될 때 올바른 문화예술의 섬 제주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지역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 , 제주특별자치도

##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
제2장 이론적 고찰 .....	8
제1절 지역문화예술정책 .....	8
1. 지역문화예술정책의 개념 .....	8
2. 지역문화예술정책의 역사 .....	13
3. 지역문화예술정책의 의의 .....	20
4. 지역문화진흥법제정 배경과 내용 .....	23
5. 지역의 문화예술정책의 방향 .....	27
제2절 제주지역 문화예술정책의 흐름 .....	34
1. 민선5기 이전까지의 문화예술정책 .....	35
2. 민선5기 문화예술정책 .....	39
3. 민선6기 문화예술 정책 .....	50
4. 민선5기와 6기의 문화예술정책 비교 .....	68
5. 문화예술의 섬 정책 분석 .....	72
제3절 지역문화예술정책의 사례분석 .....	80
1. 국외 섬 지역 문화예술정책 사례 분석 .....	80

2. 국내 섬 지역 문화예술정책 사례 분석 .....	85
-------------------------------	----

### 제3장 문화예술의 섬에 대한 인식분석 ..... 88

제1절 분석의 목적 .....	88
------------------	----

제2절 설문문의 구성 및 분석방법 .....	89
--------------------------	----

제3절 조사결과 분석 .....	91
-------------------	----

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	91
-----------------------	----

2.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수준 평가 시 중요도와 만족도 ..	93
--------------------------------------	----

3. 문화예술의 섬 제주에 대한 인지도 .....	94
-----------------------------	----

4. 문화예술의 섬 제주 핵심전략 중요도 순위 .....	96
---------------------------------	----

5. 문화예술의 섬 제주 정책을 통한 효과의 중요성과 만족도 ..	97
--------------------------------------	----

6. 문화예술의 섬 제주 정책 추진에 대한 신뢰도 .....	98
-----------------------------------	----

7. 문화예술의 섬 제주 정책 추진 과정 중에 문화민주주의의 중요성 .....	100
--	-----

8. 문화예술의 섬 추진에 따른 문화예술거버넌스의 중요도 .....	100
---------------------------------------	-----

9. 문화예술의 섬 정책에 대한 태도 .....	102
----------------------------	-----

10. 분석결과의 요약 .....	104
--------------------	-----

### 제4장 문화예술의 섬 정책의 과제와 제언 ..... 107

제1절 문화예술의 섬 정책의 과제 .....	107
--------------------------	-----

1. 문화예술의 섬 비전의 특성 부재 .....	107
----------------------------	-----

2. 문화예술의 섬 사업 간의 상호 연계성 부족 .....	108
----------------------------------	-----

3. 문화예술의 섬 사업 파급효과의 부족 .....	109
4. 지속성을 갖춘 문화 향상 프로그램의 부족 .....	110
5. 문화민주주의 개념을 도입한 사업의 설계 및 추진 .....	111
제2절 문화예술의 섬 정책 제언 .....	112
1. 지역주민에 의한 정책의 완성과 예술참여기회 확대 .....	112
2. 문화예술의 섬 제주 홍보 마케팅 강화 .....	113
3.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	114
4. 천삼백만 관광객시대의 제주문화예술정책의 방향 .....	115
5. 문화예술의 섬 제주 정책의 방향 .....	121
제5장 결 론 .....	124
참고문헌 .....	128
설문지 .....	131
Abstract .....	136

## 표 목 차

<표 2-1>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까지의 경과자료 .....	26
<표 2-2> 예술의 패러다임 변화 .....	30
<표 2-3> 제주지역 인구, 순유입인구 증가 추이 .....	34
<표 2-4> 2009-2010년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주 요사업 .....	43
<표 2-5> 2011-2012년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주 요사업 .....	44
<표 2-6> 2009년-2012년까지의 사)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의 주요사업 .....	45
<표 2-7> 제주의 정체성확립과 탐라문화 계승발전 추진계획 .....	51
<표 2-8> 제주의 정체성확립과 탐라문화 계승발전 투자계획 .....	52
<표 2-9> 문화예술의 섬 환경조성 추진계획 .....	52
<표 2-10> 문화예술의 섬 환경조성 투자계획 .....	53
<표 2-11> 문화예술 및 창작활동지원 확대사업 추진계획 .....	54
<표 2-12> 문화예술 및 창작활동지원 확대사업 추진계획 .....	55
<표 2-13>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	55
<표 2-14>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사업 투자계획 .....	56
<표 2-15> 한류, K-POP, 영화제, 뮤지컬 등 공연사업 활성화사업 추진계 획 .....	57
<표 2-16> 한류, K-POP, 영화제, 뮤지컬 등 공연사업 활성화사업투자계획 .....	57
<표 2-17> 제주해녀문화 계승·발전사업 추진계획 .....	58
<표 2-18> 제주해녀문화 계승·발전사업 투자계획 .....	59

<표 2-19> 문화예술단체 현황 .....	60
<표 2-20> 문화정책과 관련된 위원회 .....	60
<표 2-21> 제주 문화콘텐츠 산업육성 추진계획 .....	63
<표 2-22> 제주 문화콘텐츠 산업육성 투자계획 .....	63
<표 2-23> 제주특별자치도 민선 5기와 6기 문화관련공약 .....	70
<표 2-24> 제주특별자치도 민선 5기와 6기의 인구, 재정 비교 .....	71
<표 2-2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확보 추이 .....	71
<표 2-26> 제주특별자치도 민선 5기와 6기의 문화예술사업 비교 .....	71
<표 3-1> 설문문의 구성 .....	89
<표 3-2>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	91
<표 3-3> 표본의 문화관련 특성 .....	92
<표 3-4>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수준 평가 시 중요도와 만족도 .....	93
<표 3-5> 문화예술의 섬 제주에 대한 인지도 .....	94
<표 3-6> 문화예술의 섬 제주 핵심전략 중요도 .....	96
<표 3-7> 문화예술의 섬 제주 정책을 통한 효과의 중요성과 만족도 .....	97
<표 3-8> 문화예술의 섬 제주 정책 추진에 대한 신뢰도 .....	98
<표 3-9> 문화예술의 섬 제주 정책 추진 과정 중에 문화민주주의의 중요 성 .....	100
<표 3-10> 문화예술의 섬 제주 정책 추진 과정 중에 문화민주주의의 중요 성 .....	100
<표 3-11> 문화예술의 섬 정책에 대한 태도 .....	102
<표 3-12> 문화관련 소득에 따른 집단 구분을 위한 군집분석 .....	103
<표 3-13> 문화관련 소득에 따른 문화예술의 섬 정책에 대한 태도 차이 .....	104
<표 4-1 > 제주 방문 총 관광객 수 현황 .....	116

<표 4-2 > 제주 방문 내국인의 관광목적 .....	116
<표 4-3 > 제주 방문 외국인의 국적 현황 .....	117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는 문화가 곧 일상이고, 생활자체가 문화인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 경제, 정치, 교육 등 모든 삶에 적용되는 문화는 시대적 패러다임이 되었다. 문화가 경쟁력인 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에서 모든 분야의 독창성과 창의성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문화라는 것이 담론의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갖는 다담론적 개념이기 때문에 특정한 한 부분을 논하기가 쉽지 않고, 문화의 발전을 개념적으로 말하기도 어렵지만,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에서는 국가와 민족이 갖는 독창적 예술 콘텐츠를 계승 발전시키고 다른 문화와의 적극적 결합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2013년 출발한 현 정부의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 “문화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방식과 사고방식, 관습, 그들이 가지는 가치관의 총체를 의미하고 예술의 영역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에만 국한시키지 않는 포괄적 개념이며 결국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관, 태도 및 관습등 가치의 형성과 유지에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문화가 곧 국력이고 국민들 각자의 상상력이 콘텐츠가 되는 21세기, 문화의 가치는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지역과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와 문화가 생활 속에 있고 복지 속에 문화가 있는 행복한 나라의 완성은 문화이다.”<sup>1)</sup> 라고 말하며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 정부는 2013년 7월 25일에는 문화융성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와 발맞춰 ‘지역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

---

1) 박근혜대통령 취임사

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sup>2)</sup>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문화진흥법을 2014년 19대 국회에서 1월 18일 제정하고 7월 29일 시행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지역에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정책수립이 증대되고 있는데,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제주는 2006년 7월 지방분권화의 결과로써 특별자치도로 전환되면서 제주지역의 문화예술정책이 더욱더 논의되고 정책으로서 시행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역문화예술정책에 관한 지금까지의 관련연구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김우경(2014)<sup>3)</sup>은 ‘지역의 문화예술정책을 충청문화예술정책의 특징과 경향성을 살펴보고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충청북도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는 지역민의 의견수렴과 인프라의 확충, 정책의 반영을 통한 앞으로의 충청북도 문화예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고, 민인철(2015)<sup>4)</sup>은 ‘문화예술 창조도시 광주조성을 위한 과제로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과 제작활동을 위한 문화예술 창작기반조성과 문화가 시민들의 삶 속에 베어 들 수 있게 하기 위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여건 조성과 문화예술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담당주체들 간의 거버넌스 구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김완수(2010)<sup>5)</sup>는 ‘문화예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주목하여야 하고, 고품격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 문화예술의 체질개선과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문화예술펜더멘탈이 조성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여야 하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고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은 문화예술에

---

2) 『지역문화진흥법』, 법률(제12354호), 2014년1월28일 시행.

3) 김우경(2014). 『지방자치시대 지역문화예술정책연구 - 충청북도 문화예술정책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논문

4) 민인철(2015). 『광주의 문화예술 창조도시 전략연구』, 광주발전연구원

5) 김완수(2010). 『지역문화예술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 대구광역시의 주요 공공지원사업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논문

대한 시각의 변화인데 이는 외부요인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균형 있는 예산의 배분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적합한 예술행정가의 중용'을 실질적인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고희송(2010)<sup>6)</sup>은 '지역이 가진 특성의 발굴은 지역주민이 영위하는 문화적인 삶의 여건을 위하고 동시에 지역이 가진 주체성의 확보의 측면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문화산업의 육성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함과 문화거버넌스 구축의 차원에서 시민단체들이 지역이 가진 문화적 성취도의 극대화를 위해서 지역의 토속적인 특징과 지역이 가진 문화예술에 대한 보존과 발전·발굴에 많은 열정을 쏟는 노력을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전반적인 지역문화예술정책의 다른 연구들을 연구사적 맥락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논문들은 문화민주주의에 기초한 지역민의 의견수렴의 중요성과 문화예술거버넌스의 필요성과 지역이 가진 독창적 문화예술의 보존과 발전을 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문화예술정책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7월 출범한 민선6기 제주특별자치도의 2015년 기준 특별자치도 예산 4조1,028억원 중 2.6%인 1,066억원을 문화예술 관련예산으로 이용하고 있다.

민선6기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는 3%의 문화예술관련 예산을 공약으로 내걸고 2015년 6월 제주도 문화예술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문화예술의 섬 제주'조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와 관련된 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여론수렴 및 추진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가 패러다임이 된 시대에 현 도정이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의 계획과 수립을 지향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민선6기 도정의 문화에 대한 열의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철을 밟는 것이

---

6) 고희송(2010).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석사 논문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문화예술계에서 표출되고 있다. 이것은 이전의 민선도정들이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없고, 또한 문화예술계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의 과정을 형식적인 수준에서 추진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화예술정책의 수립과 추진은 단순히 그 자체만이 아니라 제주가 처한 다양한 현상을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변화되어야만 한다. 특히 제주는 급속한 인구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011년 53만 명이던 인구가 2016년 4월 10일 현재 64만 명이 되었고 이와 더불어 입도 관광객도 연간 일천삼백만 명 넘게 폭발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제주의 경제적인구의 증가와 관광수입이 제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의 제주사회는 폭발적이고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문화적 현상의 측면에서, 제주가 가진 고유의 지역문화와 급격한 인구유입에 따른 외부에서 유입된 문화와의 갈등 요소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문화적 소통의 필요성과 여러 가지의 관점에서 서로의 문화적 공존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제주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독창성과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폐쇄적이기도 한 제주적인 문화와 예술은 몇몇 측면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주민들 중 문화이주민이라 할 수 있는 유입문화예술인들과의 갈등 요소가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따라서 제주지역 문화생태계의 조사가 이 시점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최근 이러한 구체적 문화생태계 조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복잡해진 제주사회의 여러 가지 이슈를 감안한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 예로 그간 제주사회가 노력해온 제주지역 원도심의 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한 원도심 재생사업, 문화예술을 매개로 예술가들이 입주할 수 있는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등의 노력도 오히려 젠트리피케이션<sup>7)</sup>(동지

내몰림)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 입주초기에는 그나마 활발한 예술적 공간으로의 활용을 잘 유지하였으나 지금의 현실은 공간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 곳도 많은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장소만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와 컨설팅이 필요하다 하겠다. 창작공간을 마련해주고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이 사업이 그 취지는 좋으나 몇 년 앞을 내다보는, 지역경제의 흐름과 관련학계, 문화예술계와의 좀 더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 논의를 통한 계획과 실행이 안 되고 있음이 아쉬워진다.

이처럼 많은 문화적인 현상과 갈등 요소들, 문화적인 욕구의 현실적 요구들, 제주가 지향하고자 하는 미래전략적인 문화적 목표들이 적극적 문화정책과 행정의 몫으로 다가오고 있다.

문화적인 여러가지 갈등의 요소들을 해소해야할 현재의 민선6기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섬’ 제주 전략에도 이에 대한 현실적 상생방안이 포함되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나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문화가 시대적 패러다임이 된 현 시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정책은 관성적 분석이 아닌 현실적인 문화예술의 흐름을 읽고 지역주민 및 문화예술계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며, 소통과 조직화의 핵심에 서야 될 위치에 놓여 저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섬’정책을 보면 6개의 실행계획이 있는데 첫째는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둘째는 제주 문화브랜드의 세계화 추진과 셋째는 문화와 산업의 융복합화, 넷째는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와 다섯째는 지역의 전통문화 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 여섯째 종교문화 활성화를 통한 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계획되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실의 정책추진을 보면

---

7) 지역발전용어사전.Gentrification, 일반적으로 중산층 계급의 낙후 도심지역 유입으로 인하여 주거 및 가로환경이 개선되고,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원거주자인 도심 저소득층이 밀려나는 현상

민선6기 도정이 협치를 강조하며 출범했지만 여전히 관주도적인 정책의 행정적 추진과 문화예술계의 여론수렴의 결핍, 문화민주주의 시대의 지역주민에 의한 정책의 완성과 실천은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의 지역문화예술정책이 문화민주주의 시대에 지역주민과의 협치를 통한 정책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전반적인 점검과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책의 제언을 통해 구체적인 ‘문화예술의 섬’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지역적, 시간적, 내용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역적 범위로는 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연구의 대상이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설문조사는 2016년 9월에 한정하여 조사가 이뤄졌다.

내용적 범위로는 이론적 고찰인 지역의 문화예술정책의 개념과 의의와 방향을 통해 기본적 방향성을 논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정책의 흐름과 현황을 제주도정이 시작시점에서부터 민선5기 이전의 문화예술정책과 민선 5기와 현 도정인 민선6기의 문화예술정책을 각각 살펴봄과 동시에 민선5기와 6기의 문화예술정책을 비교하고, 또한 민선6기의 정책 중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문화예술의 섬’ 정책분석을 하고자 한다. 사례분석은 지역 문화예술정책의 사례분석 중에서도 국외 섬 지역 문화예술정책 사례분석과 국내 섬 지역 문화예술정책 사례분석을 통해 섬이라는 특성을 가진 제주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섬’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살펴보고, 실증적 연구방법으로 설문지를 활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문화예술정책으로서 ‘문화예술의 섬’제주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의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경우 조사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의 섬 제주’ 정책에 따른 문화예술정책의 인식정도 파악과 문화예술정책의 평가, ‘문화예술의 섬 제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설문의 기본설계는 모집단을 제주 지역 문화예술인, 정책 생산자·유통자라 할 수 있는 관련 공무원 및 문화기획자, 방송언론인, 문화예술 관련시설 담당자 등 문화예술정책과 관련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이메일과 문화예술 행사장내에 배치하는 방법과 직접 면접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따른 분석방법은 SPSS 2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군집분석, 차이검증을 위한 독립표본 t검증, One-Way ANOVA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 제2장 이론적 고찰

### 제1절 지역문화예술정책

#### 1. 지역문화예술정책의 개념

##### 1) 지역문화의 개념

지역문화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을 뜻한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고 지역문화예술정책이 중요한 문화계의 이슈로서 거론되는 현 상황 속에서 이재우(2015)는 지역문화의 의미는 문화의 바탕이 지역에 있는 문화를 말하고 이러한 지역의 개념으로는 행정구역으로 나뉘는 지리적인 공간만이 아닌 생활, 경제, 정서 등의 사회와 문화의 경제적인 공간이라는 의미까지도 포함하며 쓰이는 목적에 따라서 지역이라는 의미나 범위가 다르기도 함을 뜻한다고 하였다. 또한 ‘지역은 지리적으로 연속 되는 공간인데 이들은 상호간에 보완적이며 그 지리적 활동의 흐름을 묶거나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다. 지역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는데, 첫째는 가치와 제도의 공유이고 둘째는 확정적이지 않는 규모와 셋째, 외부의 지역과 구별되는 특성과 넷째 동질적인 활동의 면이다. 변화가 지속적이고 내부의 결집력으로 인해 기존의 지역이 사라지거나 새로운 지역이 나타나기도 하는 굉장히 유동적인 개념의 지역이다. 지방은 지방 대 중앙의 상대적인 관점으로 가치가 내재되어 사용되어지며 지방과 지역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층위의 개념과 가치 중립적인 개념으로 지역이 사용되어지며, 문화와 정치, 사회와 경제 등의

특성들이 같이하는 공간영역이며 지역사회는 이 같은 지역성에 사회적 영역인 공동체성과 연관될 때 그렇게 부른다. 긴 시간동안 학습의 과정을 거쳐서 이룩한 관습과 도덕, 행동양식과 신념, 지식, 가치, 예술 등을 가지는 총체적인 생활양식은 그 지역의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공유하면서 지역사회의 문화를 만들어 왔다. 그러므로 지역문화라는 것은 그 사회와 집단의 독특함을 특징화 시키는 정서와 지적특징,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특징이 반영되어지는 개념이고, 그러한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이 다 같이 만들며 공유하는 관습 과 생활양식, 언어와 정서 등을 모두 아우르는 생활양식의 총체이며, 같은 지역의 사람들이 그 현실의 삶이나 미래에 영향을 끼치고 기여하는 문화인 것이다'라고 하였다.<sup>8)</sup>

또한 지역문화는 그 관점을 문화적인 점에서 지역성을 바라보는 것만이 아닌 지역이 가진 문화적인 특성을 봐야 하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문화와 예술적 부분만큼 역사성과 생활의 관점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점이다. 따라서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정책의 방향은 지역이 가진 독창성과 지역정체성, 차별성, 고유한 문화자원을 포함하는 역사성과 현실적인 문화현상을 두루 아우르는 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2) 문화예술정책의 개념

문화예술정책의 개념이 두각 되기 시작한 것은 문화예술부문의 지원을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시행되면서 부터이다. 문화와 예술의 개념은 각기 나라마다 다르고 문화예술을 개입하는 것과 그것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다르

---

8) 이재우(2015). 『지역문화재단의 지역문화정책 수용 인식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한류문화산업대학원 석사논문. pp. 7-8.

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은 이것을 사용하는 학자들과 그것의 맥락에 따라 다양한 변화로 다가온다. 이종인(1988)<sup>9)</sup>은 문화행정의 개념을 ‘공권력의 배경에서 문화발전의 목표를 향하여 문화예술정책의 형성과 결정을 하고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집행을 하는 합동적 집단행위’로 이해하였으며, 정홍익(1992)<sup>10)</sup>은 문화행정 개념을 ‘국민들의 정서적인 요구의 충족을 위해서 문학과 예술을 포함한 활동의 지원과 문화전통의 계승을 추구하기 위한 행정’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들이 내린 개념과 정의가 문화정책의 목표에 핵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종인은 정책과정을 정홍익은 문화행정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Globerman(1987)<sup>11)</sup>의 문화정책의 개념을 보면 ‘정부가 공공재원을 활용하여 예술을 지원하는데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란 정의를 내리며 ‘정부에 의해 예술활동의 지원과 규제를 하는 모든 활동이 문화정책의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 1997)는 문화정책을 문화분야에서 ‘정부, 지방정부, 기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행동수단의 총체적 틀’을 의미하며 ‘이러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기획단계와 집행, 그리고 평가체제로 구성되어진다.’라고 제시를 한바 있다. ‘예술’의 개념과 ‘문화’의 개념은 정책대상으로서 그 경계가 모호하지만 예술정책을 문화정책의 하위적 개념으로 우리나라의 정책현장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예술’이 정책이 대상이 되는데 행정적이고 실천적인 접근방법을 고려해서 그 영역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이것은 공공지원과 규제 대상이 되는 ‘예술’이 실제로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문화예술의 영역은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문화예술의 창작, 보존, 보급, 교육 등을 통해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로 지원한 영역을 의미하는

9) 이종인(1988). 『예술과 행정』. 평민사.

10) 정홍익(1992). 문화행정연구: 개념틀과 분석. 『한국행정학보』, 25(4), pp.229-245.

11) Globerman, S.(1987). *Culture, Governments, and Markets: Public Policy and the Culture Industries*. Vancouver, B.C.: Fraser Institute.

것으로 나라와 시대에 따라서 그 범위는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sup>12)</sup>

### 3) 지역문화예술정책

우리나라의 지역문화예술정책이 시작된 것은 1965년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부터이다. 이 법은 정부의 시책홍보사업과 향토문화의 개발과 보급, 선전사업에 국한 되었었고 본격적인 지역문화정책의 전개는 1980년대의 지방문예진흥기금조성과 문예회관 등의 건립사업을 시작으로 가속되었다. 그로부터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기까지 긴 시간동안 지역문화예술정책의 문제점과 과제가 도출되어왔다. 문제점으로는 나타난 것을 보면, 중앙정부 및 관 주도의 정책추진이 지역의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점과 지역발전의 불균형, 문화행사의 대도시 집중, 지역의 전통적인 특성의 약화, 지역문화진흥 재정의 부족 등이 있다. 맥락 속에서 문화예술정책변화의 핵심은 지역문화예술적인 특성화와 다양화에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황교선(2008)의 ‘문화예술과 연계한 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정책연구’에서는 지방문화예술정책의 방향성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 해보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민선단체장 선출을 함으로써 열렸고, 이런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자치 실시의 의미는 획일화된 중앙 집권적시대의 정치와 사회적인 여건의 분권화와 자율화라는 요구의 발생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문화예술정책도 변화를 요구하는데 지역문화예술중심적인 특성화와 다양화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문화예술정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의 확대가 이루어졌고 그러는 중에 문화예술의 특성이 보여 지는 경제적인 효과 등을 포함한 편의의 제공들은 삶의 중심적이 되고 주체를 가지게 되었다. 국한된 학문적 경계를

---

12) 임학순(2003). 『문화사회와 문화정책』. 진한도서. pp. 53-54.

넘어선 문화예술의 개념은 독립적 존재가 아닌 문화예술은 우리의 삶 자체가 그것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전분야로 확대 되었고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치는 키워드로 모든 사람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정책의 기본적인 구조 설정과 그 실행주체가 되는데, 정치와 외교, 국방 등의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나 경제·문화예술 등의 영역은 가급적이면 지원의 역할만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의 테두리 속에서 주도적으로 지방자치차원의 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관료적인 합리성을 추구하는 문화예술정책 보다는 지역과 시민이 중심적이 되는 방식으로 지역단위의 시행과 실천이 문화예술정책의 대상이 지역주민이 되면서 곧 소비자로서의 직접적인 참여를 도모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다.<sup>13)</sup>라고 하고 있다.

결국 지역문화예술정책이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전제조건은 중앙중심적인 계획과 실행이 아닌 지방자치차원의 정책이 필요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정책과 함께 지역이 주체가 되는 문화분권의 완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민주주의에 기초를 둔 단순한 예술소비의 형태를 지양하고 수요자와 공급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

13) 황교선(2008). 『문화예술과 연계한 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정책연구』.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p.45-46.

## 2. 지역문화예술정책의 역사

### 1) 지방자치 이전(민선 이전, 1995년 이전)

1948년 정부수립에서부터 1950년대의 말까지는 전쟁으로 인한 혼란의 수습과 피해복구에 역량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문화정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부분적인 문화예술정책이 존재하였는데 그것은 단순히 일제하의 문화시책에 대한 개편을 의미한다. 그러한 역사적인 현실에서도 1949년에는 대한민국 미술전람회가 창설·개최되었고, 1950년에는 국립국악원과 국립극장이 조성되었지만 전쟁으로 인해 그 기능이 정지되었다. 1952년은 문화보호법이 제정되었고, 학술원과 예술원 등이 조성되었다. 1953년에 와서는 문화인등록령과 1957년에 저작권법의 제정과 공포가 이루어졌다. 1960년대 이전까지의 지역문화예술정책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음은 전쟁으로 인한 사후복구작업에 정부의 역량을 더 투입하는 것이 마땅한 시기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시기의 지역문화는 새로운 문화공간의 창출보다는 기존 시설물의 이용을 좀 더 활용하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60년대 초 이후는 정부차원의 문화예술의 관심과 지원이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1961년에 공보부의 신설을 기점으로 영화와 공연업무를 담당하고, 국립극장과 국립국악원을 전담하였다. 그해 12월에는 공연법을, 62년 1월에는 문화재보호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1965년 7월에는 드디어 지방문화창달에 기틀이 되는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1965년에 시행된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의 주요내용은 비영리법인에 의해 지역사회의 문화를 개발하려고 시행하는 지역문화사업의 조성을 위해 보조금의 지급을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시설에 대한 무상대여와 양여의 규정을 정하여 놓

았다.

문예중흥 5개년계획이 1970년대의 최초의 문화예술부문 장기계획으로 세워졌다. 문화예술진흥법이 1972년 제정되며 1983년에 지역문화 중흥 5개년 계획이 진행되게 되었다.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문화예술 활동의 권장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문화예술진흥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이나 사업 또는 시설에 필요한 소요 경비의 일부 보조를 예산범위 내에서 하였으나 독립적 지역문화정책은 부재하였다. 1973년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약 180억원의 자금을 가지고 설립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미술회관과 문예진흥원, 문예회관 등을 신축했으며 대한민국 무용제, 연극제, 음악제의 창설을 꾀했고 시·도 단위에서는 종합문예회관과 시·도별 특정문화시설 및 지방문화원이 인구 10만이상 도시에 신설되거나 개선 등이 추진되었다.

1981년에는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문화조향을 명시한 문화헌법이 제정되었다. 헌법 8조에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국가의 문화진흥의 의무를 명기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4대 국정지표중 하나로 삼고 문화진흥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정책의 추진은 1980년대 중반부터 추진되었는데, 문화공간조성과 문화인프라조성 등의 확대를 통해 전통문화유산 관리 차원의 문화정책이 추진되었다. 지역박물관 신축개관 등과 문화공간의 확충을 꾀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의 지역문화 정책을 보면 여전히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1983년의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수정계획’은 문화정책을 사회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지방문화의 육성’이 정책수단의 일환으로 등장한 것은 1984년 ‘지방문화중흥 5개년계획’으로부터 출발되었다.

이는 지역문화정책이 독립적으로 나타나기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이며, 지역 문화 활동지원과 문화시설확충의 실질적인 방안의 계기가 된다.

이재우(2015)에 따르면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문화정책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문화 영역의 긍정적 변화의 요인이 된 1987년 민주화운동의 영향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국가가 규제와 통제를 하는 문화정책이 아닌 시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에 의한 문화정책이 생기기 시작했다. 권위주의적 정권과는 차별화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정책들을 개발하였다. 그 변화를 보면, 국가의 정권유지를 위한 문화정책에서 민주화시대는 시민들을 위한 법과 제도, 시설, 예산 등을 새로이 바꾸는 문화정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시민들로 하여금 문화적인 접근을 보다 많이 할 수 있게 하여 문화적 충족의 경험을 하기 위한 많은 사업들이 고려되었다. 문화적 자원들을 균형 있게 분배되는 것을 통해 문화영역을 좁게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닌, 넓은 의미로 확산된 문화영역은 시민들의 삶의 양식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을 주도하였다. 1990년대를 살펴보면 1991년에 지방의회가 부활되었고, 민선단체장의 선출이 1995년에 시행되었다. 이전에는 국가가 중심으로 문화정책을 추진하였다면,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부터는 지역문화정책이 정책의 중심이 되는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그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고유한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화와 각 지역들의 문화적인 발전과 함께 자주적인 지역문화예술활동의 진흥과 창달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고 하고 있다.<sup>14)</sup>

지역문화정책역사에서 80년대와 90년대의 정치적상황이 매우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민주화운동을 통해 이룩한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시민에 의한 문

---

14) 이재우(2015). 『지역문화재단의 지역문화정책 수용 인식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한류문화산업대학원 석사논문. pp. 15-16.

화예술정책의 수립실현 가능성이다. 문화예술의 부분이 기존의 정부에 의한 정권유지와 홍보의 도구로 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며, 문화예술정책이 중앙집권적 행태에서 문화분권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문화정책은 그를 수용하는 시민과 공급하는 예술가들의 민주적 참여가 선행되어야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또한 표현의 자유의 실현을 통한 다양한 예술형태의 시도가 민주적인 문화예술발전의 원동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

둘째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면서 중앙집중적 정책의 수립과 실현이라는 한계에서 탈피를 의미한다. 지방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문화정책의 수립의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문화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지역문화예술정책의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 지방자치 이후(민선 이후, 1995년 이후)

지역에 적용되는 지역문화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이 본격화 되었다. 이는 1990년에 지방자치제 실시와 지방자치단체장이 1995년에 민선으로 당선되면서 부터이다. 기존의 지역문화정책이 '전통문화의 보존관리'였다면 이 시기는 예술창작과 더불어 지역민의 문화복지의 개념으로 확대하면서 지역문화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의 제시와 함께 부문별 중장기계획으로 '문화창달 5개년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문화복지의 균점화', '지역문화의 활성화', '중앙에서 지역으로'등이 있다. 특히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문화사업이 다양화되고 특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과 지원사업을 펼쳤고 공립문화예술단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며 전통문화 및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등을 하였다. 또한 문화예술축제를

기획하고 개최를 지원하였고 문화시설의 운영과 건립을 추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사회교육사업,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고 지원하였다. 또한 공연지원과 문화정보 서비스사업, 문화예술 전시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갖추었다. 이에 따라서 1996년에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국민들의 문화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문화체육부(현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정책의 핵심정책으로 ‘문화복지’를 부각시켰고, 문화권의 개념을 가지고 문화복지의 확대를 통해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추진을 위해 문화체육부는 ‘문화복지 기획단’을 설치하고 운영하였는데 ‘문화복지 중장기 실천계획’과 ‘세계화와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기본구상’을 1996년에 발표하였다. ‘생활단위에서의 경영능력 증진과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국민들의 평생문화학습 환경조성사업’, ‘문화도시건설 및 지역문화활성화’ 등은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국가발전의 차원으로 문화를 인식하여 창의적 문화복지국가를 문화의 힘을 활용하여 추구한 ‘국민의 정부 새 문화정책’은 1998년에 실시되었는데 기존의 정부와 다른 정책이며 그중에서 지역문화정책과 관련한 것은 ‘문화가 기반이 되어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사회통합을 추구’, ‘삶의 질적인 향상을 문화복지의 실질적 구현을 통한’ 등이 있다.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5개년계획’의 1999년 발표와 ‘콘텐츠 코리아 비전 21’은 2001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하였다.

전국적으로 월드컵경기장의 공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문화관광부가 2001년을 ‘지역문화의 해’로 선정하였지만 지역문화의 해에는 가시적 성과가 별로 없었고, 성과가 있다면 지역문화진흥의 여러 문제점의 찾아내는 계기가 된 점이다. 지역문화진흥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는 중앙정부 및 관 주도의 정책, 둘째는 지역별 문화격차와 문화시설(공간)의 부족, 셋째는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의 배려가 미약, 넷째는 문화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구축에 따른 정책적 배려의 미흡, 다섯째는 문화

와 관련된 재원의 확충이나 분배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부족 등이 있다. 이는 자금과 사람의 지방 이동만을 가지고는 지역문화진흥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의 정부’ 기간중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2002-2003 문화정책 백서’를 보면 중앙정부의 문화예산 못지않게 지자체의 문화예산의 확충도 많은 증가를 이루었다. 지자체의 문화예술의 비율은 정부의 문화예산 비율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는데, 1999년에는 2.1%와 2003년에는 2.3%인데 2002-2003년에는 0.3%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지만 점진적인 증가추세가 되었다. 그후 지방자치체가 1995년에 실시되었는데 주민들의 문화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문화적인 욕구 수준의 기대가 많아지면서 이런 요구에 대해 자치단체장들이 대거 반영하였다. 이들은 그지역에서 일어나는 축제의 홍보 및 소개는 물론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문화관광자원을 집중발굴 하고 투자를 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2003년에는 ‘문화수도건설’을 발표하였는데 문화중심도시로 광주가 선정되었다. 2004년에는 ‘지역문화진흥의 원년’을 문화관광부에서 선언하며 지역문화과의 설치로 이어진다. 참여정부가 내놓은 ‘창의한국’이라는 새로운 문화비전은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비전에서는 지역문화진흥이 지역의 발전을 이루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과제라고 하였다. 지역의 문화역량 제고는 지역문화진흥을 하기 위한 선결과제이며 지역의 문화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종합적인 지역문화정책 수립을 하여야 하며, 지방-민간-중앙의 상호간의 바람직한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새 예술정책’의 수립은 기초예술진흥의 목적이 있는데 이것의 내용은 과천 현대미술관의 도시로의 이전과 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에 관한 것, 문화관광체육부의 기능을 재조정 하는 것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에 관한 것이 있다. 공공

미술품 활용과 증진을 위해서 미술은행 설립과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을 제정하였고 남북작가회담을 정례 개최하는 것이 있다. 또 대안문화재단은 소수·대안문화의 지원을 위하여 설립을 하는 것과 기업들에 의해서 문화예술부분에 대한 기부금에 따른 세제를 감면하는 것과 지역문화진흥법안의 제정과 상정에 관한 것,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립(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계획과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문예진흥원이 관주도의 것이라면 민간주도의 전환을 의미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 낸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범의 의미는 문화예술정책을 집행하는 것을 중앙정부 조직에서 민간의 예술가로 이루어진 민간자율의 위원회로 이관했다는 것과 획기적 변화의 문화행정은 중앙정부의 역할이 규제나 집행, 그리고 감독자의 역할에서 기획하고 조정하며 평가자로서의 역할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점차적인 지방으로의 이관을 꾀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973년 문화예술의 지원을 시작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영역의 확대를 구축했다. 1970년대에 이러한 기금이 초점을 둔 사업을 보면 전통문화와 한국학 등 민족주체성의 확립에 관한 사업을 주로 초점을 두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 확대된 것은 ‘지역문화예술 시설확충’과 ‘조사연구와 교육연수사업’ 및 ‘국제문화교류사업’, ‘국민들의 문화향수기회확대’, ‘문화예술창작 진흥’ 등이 있다. 1990년대를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대상을 지원 초기에 문화예술 창작인 및 단체로 한정하였지만 점차적으로 그 확대를 일반국민에게 까지 확대시켰다. 또 지원사업의 확대를 살펴보면 문화복지나 문화예술의 세계화, 생활문화와 문화예술정보체계 및 문화산업 등이 있다. 기존 예술장르에 한정된 지원을 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정책은 이제 점진적으로 문화산업 다양한 분야로의 확대와 문화예술 진흥에 국한하지 않고 문화복지의 차원으로 확대, 전통문화예술에서 현대문화예술로 확대되었다.

21세기가 문화가 국력인 시대라는 현 정부는 4대 국정기조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평화통일 기반구축’ 및 ‘문화융성’을 제시하였다. ‘문화와 산업의 융합’ ‘문화와 예술진흥’, ‘문화참여 확대’의 문화정책 3대전략을 제시하였다. 2014년 3월 31일 시행된 문화기본법은 국민의 문화기본권 보장과 문화유산 보존의 부분과 문화복지와 문화다양성 확대 등의 문화정책의 지향점을 담고 있다.

지역문화정책의 법률적 기틀을 마련하기위해 문화기본법의 연계법안인 ‘여가활성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2014.07.29. 시행)을 제정 및 시행하였다. 15)

### 3. 지역문화예술정책의 의의

문화의 발전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이다. 이는 글로벌화와 국제화의 세계적 추세 속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류정아(2007)<sup>16)</sup>는 ‘국가간 교류의 활발함은 무역장벽 등, 여러가지 국가간 경계들의 경직성이 완화가 되며 세계화라는 추세는 계속적으로 진전되어 사회문화적인 차이가 세계화의 장애요인이 아니며, 국가적이고 지역적인 특성을 부각시켜 문화자원으로의 활용이 되는 상황이다. 문화적 다양성은 세계화라는 과정 속에서 적극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이거나 지역적 문화특성이 가지는 고유성과 차별성을 강조하고 부각시켜서 그 효과가 실질적임이 증명되고 있다. 이것에 관한 실천전략이 구체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시도되고 있다. 최근은 국가적 단위보다 세분화된 지역적 차원의 문화적 특성이 국가라는 매개를 거치지 않은 독자적인 차원으로 세계적인 무대와 직접적으로 연결의 경향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15) 이재우(2015). 앞의 책, pp. 16-21.요약

16) 류정아(2007). 지역문화 발전의 비전과 과제. 『2007 문화의 달 기념 학술 세미나 심포지엄』.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고 있다.

지역문화의 형성은 지역주민들의 생활기반인 자연적이고 역사적, 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생활환경과 양식을 개선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해 가는 속에서 자연스레 형성된다고 할 수 있는데, 지역이라는 특수성이 가진 폐쇄성의 단점도 있지만 오히려 독창성과 근본적 삶의 반영이라는 중요한 장점을 지역문화가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문화의 중요성은 국가적 단위의 문화보다 세분된 지역적 차원의 문화적인 특성이 세계적인 무대와 직접 연결되는 경향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가운영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강조되어온 지난 과거의 문화정책들은 지역중심보다는 중앙집중의 형태로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1995년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지역간의 문화격차해소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2008년12월 지역문화발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13문화예술정책백서’의 제3장 문화정책중 제3절 지역민족문화정책에 있는 지역문화발전방안의 주요과제를 살펴보면 이렇다. ‘수요적인 측면에서 생활권단위의 지역문화 환경조성을 통해서 ‘삶의 질’ 제고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지역문화의 특성화와 자생력강화를 통해서 지역문화의 창의성을 진흥하는 노력을 진행해 왔고 제도적인 기반의 확립이나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면 몇 개의 지역문화 활성화 추진정책이 필요한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장기적인 전략과 지역의 현황과악이 중요하다. 이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위해 필요하며, ‘지역문화 통계조사’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문의 시설, 예산과 관련 산업현황을 조사하여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필수적이다.

둘째, 문화를 통해서 지역경쟁력 제고를 하고 문화와 환경이 중심이 되

어서 지속적으로 가능한 도시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거점 별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추진하였다. 고유한 역사·전통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문화도시 조성을 경주, 전주, 공주, 부여에 광역권별 특성과 국가적인 파급효과와 지역적인 균형을 고려하여 하였다.

셋째, 지역문화의 거점을 전국 229개의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진흥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적인 향상’이나 ‘문화향수의 신장’을 위하여 그들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생활공감 문화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검토하였는데 ‘생활문화 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과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등이 생활권 전통시장을 지역문화 공간으로 활성화 시키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넷째, 지역문화 전문인력양성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지역문화의 자생력을 강화시킬 수 있고 지역의 민간활동가와 문화행정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연수를 시키면서 지역문화 관계자간에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정책네트워크 구축을 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진흥을 도모하였다.<sup>17)</sup> 라고 현황과 추진성과를 역설하고 있다.

문화의 발전을 통해 국가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화의 발전을 위한 지금의 시대의 필요충분조건은 다름 아닌 지역문화의 발전을 통해 이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문화가 가진 고유하고 차별화된 독창적인 콘텐츠와 전통문화의 개발과 계승이 문화세계화의 흐름속에서 전체 문화발전의 원동력으로 다가갈 것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면한 과제인 지역문화예술정책의 올바른 수립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문화 인프라를 비롯한 지역문화통계 및 실태조사와 지역에 중심을 둔 구체적인 지역문화예술 향유실태조사 등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확한 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지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그것들은 분석하여 지역문화 예술정책에 반영하여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

17)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4). 『2013문화예술 정책 백서』, pp. 148-149

#### 4. 지역문화진흥법제정 배경과 내용

현 정부의 국정기조중 하나인 ‘문화융성’ ‘창조경제’의 핵심에는 국가의 문화정책이 지역문화정책에서 출발해야하며 핵심적 위치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문화기본법을 중심으로 ‘문화예술법’ 체계를 정비해 나가는데 2013년 12월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화기본법’ 제정안,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공연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고 2013년 12월 31일에는 ‘지역문화진흥법’, ‘대중문화예술법’, ‘문화예술후원활성화법’ 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문화융성’의 틀을 잡는다.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전의 상황들을 보면 1984년 ‘지방문화진흥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문화진흥기금조성과 대형문화시설인 지방문화회관건립을 추진하였고, 1991년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선출하기에 이르고 2001년엔 ‘지역문화의 시대’를 여는 ‘지역문화의 해’를 선포한다. 2003년에는 참여정부의 국정기조인 지방분권을 추진하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고 ‘문화의 달’지역사업을 전개한다. 2004년은 지역문화진흥의 원년으로 선언, 문광부에 지역문화과를 설치하고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 ‘지역방문의 해’를 전개한다. 2006년 ‘지역문화진흥법’을 상정하고 2008년 ‘지역문화발전방안’을 내놓고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 등에 힘을 쓴다.

특히 2013년 19대 국회에서 ‘지역문화진흥법’제정의 의의는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 법률 없이 ‘지방문화원진흥법’이나 ‘문화예술진흥법’등을 통한 단편적 규정에 의해온 것의 해소를 의미한다 하겠다.

지역문화진흥법은 2014년 1월28일 제정되었는데 최초공포내용에서는 이

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이 법은 지역 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up>18)</sup>

또한 이 법의 2조에서는 새로운 용어의 정의를 내렸는데 ‘지역문화’,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시설’, ‘문화도시’, ‘생활문화시설’, ‘지역문화전문인력’, ‘문화지구’ 등이 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진흥법』의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

---

18) 『지역문화진흥법』, 법률(제12354호), 2014년 1월 28일 시행

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지역문화진흥법은 7장 2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역의 생활문화진흥에 대한 것인데 이러한 생활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호회나 주민들의 문화예술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과 생활문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시책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한다는 것이다.<sup>19)</sup>

둘째,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을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과 지역문화 실태조사, 지역문화진흥자문단 등을 지정함으로써 이룬다는 것이다.

셋째,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도시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의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한 시책을 심의 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sup>20)</sup>

---

19) 『지역문화진흥법』, 법률(제12354호), 2014년 1월 28일 시행

20) 『지역문화진흥법』, 법률(제12354호), 2014년 1월 28일 시행

<표 2-1>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까지의 경과자료<sup>21)</sup>

정 부	국 회	일 지	내 용
노무현 정부	17대	2004.06~12	관계전문가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지역문화 진흥법 제정을 위해 문화관광부에서 실시
		2004.12	법 초안 마련 - 지역문화진흥법(안) 지방분권TF팀과 지역문화진흥법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문화관광부)
		2005.09.	여론수렴을 위해 지역토론회 개최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관련 (문화관광부)
		2006.05.31	지역문화진흥법(안) 발의 - 이광철의원 외 31인의 국회의원
		2006.09.20.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안) 상정
		2006.12.	시행령 연구의 진행 (지역문화진흥법(안))
		2007.11.19.	지역문화진흥법(안)검토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2008.04.	지역문화진흥법 TF팀 구성 - 문화체육관광부
		2008.04.	지역문화진흥법(안)검토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2008.05.29.	지역문화진흥법의 (안)을 폐기함(17대국회임기만료) - 이광철의원 대표 발의건
이명박 정부	18대	2008.12.	지역문화진흥법(안)에 대한 발의-김재윤의원 외 국회의원15인
		2011.05.	지역문화진흥법(안)에 대한 발의 - 이병석의원
		2012.02.22.	법안소위 통과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통합, 제시 - 이병석/김재윤 의원 발의 법(안)
		2012.05.29.	지역문화진흥법(안) 18대 국회 임기 만료 폐기 - 김재윤/이병석의원에 의해 발의 법(안)
		2012.06.19.	지역문화진흥법(안)대표발의 - 이병석의원
		2012.08.29.	지역문화진흥법(안)대표발의 - 도중환의원
		2013.	도중환/이병석의원 발의된 법(안) - 문화체육관광부(통합, 지속검토) 상정
박근혜 정부	19대	2013.12.31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2014.01.28.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2014.07.29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4)<sup>22)</sup>

21)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4).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22)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4).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 5. 지역의 문화예술정책의 방향

현 정부 문화정책의 비전을 보면 문화로 부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하고 있다. 6대 목표로는 첫째는 콘텐츠산업의 핵심역량 강화인데, 디지털화와 융합 환경에 부응 하게하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의 문화를 잘 보존하고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세계화를 추진하며 세 번째는 문화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국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시키며 네 번째는 기초예술의 창조적 다양성을 제고 하며 다섯째, 동북아관광의 중심국으로 우뚝 서는 한국관광 실현과 여섯째 스포츠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가 있다고 하고 있다. 문화로 부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중심에 지역의 문화예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이상 언급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차지하고 있음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예술정책은 정부의 비전과 목표에 따로 있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부분에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은 지역의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성 설정을 위해서는 우선 그간 정부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봐야 하겠다.

문화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는 크게 참여정부 이전과 참여정부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면, 참여정부 이전은 공급자 중심의 문화정책과 중앙정부 주도하의 통제 중심적인 정책과 소극적 보호주의와 개인적이고 소비적인 문화인식을 들 수 있다. 참여정부 이후는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으로서 지역을 중시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지원의 조장과 문화의 공공·산업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정책으로 바뀌었다. 문화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의 추진은 결국 지역문화예술정책의 발전의 계기가 된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2014년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진흥법의 한계점은 지역문화진흥이라는 실질적인 기반 마련을 위한 현지의 요구가 많이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화

분권'이나 '문화 자치'의 비전이 거의 없다는 점은 이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법 개정의 숙제를 안고 있다.

박상언 (재)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웹진 아르코'의 '2015년 지역문화정책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글속에서 지역문화진흥의 재정확충과 '문화분권', '문화자치'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첫째, 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에 대해 지자체가 시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실천적인 방법에 대한 언급도 없고 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예산지원이 국가가 '할 수 있다'고만 하고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없음이 문제점이다. 제1조에서 이 법의 제정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우선적인 수단으로 제시했는데, 지역문화진흥 재정확충의 부분은 이것에 관한 의무는 국가가 있음을 강조하며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는 지방정부의 책무가 아닌 수도권 일극화라는 문제를 풀어야 하는 국가의 상위 책무임을 역설했다.

두 번째 문제는 문화에 대한 '분권'과 '자치'의 비전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지방자치의 발전이 서로 선순환 되는 구조인데 지방자치의 부재는 1980년대까지의 지역문화정책의 근본적인 한계로 나타났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광역·기초 지역문화재단들이 2014년 2월4일 부산에서 한자리에 모여서 열렸는데 여기에서 '지역간 문화 격차 해소'라는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라 '문화분권'과 '문화자치'라는 적극적인 차원의 가치 실현을 법의 목적으로 담아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라고 쓰고 있다.<sup>23)</sup>

문화융성의 시대에 지역의 문화예술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정리해보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

---

23) 박상언(2014). 2015년 지역문화정책의 과제와 전망. 『웹진아르코』

역 겸 연구위원인 오양렬(2008)은 ‘문화예술 환경의 변화와 문예정책의 새로운 방향’에서 ‘문화예술정책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국민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정책이어야 하며 이것은 복지정책이 그들의 삶이 만족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문화복지의 형태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소수가 아닌 창조적인 수요자로서 국민의 대다수가 문화적 역량을 갖추며 삶의 질을 높여 그 향유의 수준을 높여야 함을 의미한다. 문예정책의 의미가 국가 수준에서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 돼야 하는데 현재의 올바르지 못한 삶의 양식이 바람직한 삶의 양식으로 전환시켜야한다. 앞으로 진행되는 문예정책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창조적인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이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정책개발 창구를 다원화를 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창조적인 소비자들의 다양해지는 욕구의 충족을 위해 필요하고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성이라는 부분과 문화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의 문제와 관리, 문화다양성과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비판의식을 갖는 시민이 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sup>24)</sup>라고 쓰고 있다.

지금까지의 문화예술은 엘리트적인 공급자 중심이나 일부 마니아들의 향유물이 되곤 했지만 최근은 개개인의 창조력을 일상생활에서 구현하려는 현대사회에서 일반 시민들이 창작의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이러한 사회의 구조적인 변동과 삶의 변화들에 대응되게 하는 ‘생활예술’이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

24) 오양렬(2008). 문화예술 환경의 변화와 문예정책의 새로운 방향』. 『문화정책논총』, 19, pp. 111~134.

<표 2-2> 예술의 패러다임 변화

관 점	고급예술	도구예술	생활예술
목 적	그 자체의 예술	비예술적인 목적 (정치적 선전과 경제발전)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상호이해와 자아의 실현
주 체	애호가, 전문창작가, 비평가	정치가, 경영자, 기획자	시민이 예술가 이고 예술가가 시민
예 술	예술을 숭배	기능적 수단으로	창의적인 과정
성 격	문화자원 - 차별논리	동원 가능한 자원	사회자본과 연계적임

자료 : 박승현(2013).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 종합토론회 자료집<sup>25)</sup>

이러한 ‘생활예술’은 첫째, 교육을 받은 시민계층이 20세기후반과 21세기 초반에 확대되었다. 특정한 소수사회집단이 점유하던 문화자본이 민주화되고,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예술향유계층이 확대되면서 예술제도가 점차적으로 대중화되었다. 일반대중들이 특별히 전문예술기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공간에서 학습되거나 숙련되는 생활예술활동들은 특히 동호회들을 중심으로 왕성히 펼쳐지고 있다. 그들은 고급예술의 레퍼토리에 충실하면서 생활의 터전에서 바탕을 두고 활동들을 이어간다. 둘째, 여러 가지 현대사회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매개체로서 생활예술이 가지는 가치와 효용이 인식된다. 그것은 현대사회가 지는 급격한 변화나 그로인한 문제들과 노동소외나 실업에 대한 불안이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사회적 강압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매개로서의 것이다. 스트레스가 많고 불안한 요소가 많은 현대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개인적인 독립

25) 박승현(2013). 문화예술과 여가를 통한 국민행복-패러다임의 전환과 여가정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 종합토론회 자료집. p22

성과 능동적인 창조성, 자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여러 영역을 생활예술이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상호적 매체기술들의 발달 등으로 인해 웹 2.0과 같은 사용자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온라인 공간은 생활예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러한 온라인 카페는 대부분의 동호회들이 회원 모집과 정보공유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과 공동체의 형성, 자율적인 공간들의 확보 등의 잠재력을 확장시키는 생활예술은 접근과 사용이 쉬운 소프트웨어나 누구든지 기술을 활용해서 콘텐츠의 제작이 가능한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sup>26)</sup>의 증가들로 인해 확장되고 있다.<sup>27)</sup>

지역문화예술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명분을 가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기회 확대와 문화격차해소나 문화복지의 측면만이 아닌 수요자가 곧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생활예술’ 속에서의 생산자적인 본질이다. 중요하고 주된 지역경쟁력의 근원으로서 이들의 근로욕구의 충만함과 생산성을 증가시키며, 이들 지역의 위상과 이미지의 제고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앨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에서 “문화가 가지는 힘은 어린이의 동심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기호까지도 바꿔 버릴 수 있고 특히 멀티미디어 등이 세계를 통합하게 하는 21세기는 그 영향력이 더 커지는데, 문화라는 주도권을 쥔 나라는 세계인의 감성까지도 지배하게 되며 부가가치가 높은 ‘제3의 물결 경제’가 21세기를 지배함으로 인해 사고와 지식의 힘이 시장을 지배하는 뉴 이코노미(New Economy)시대가 올 것이고 문화주도권의 확보를 위한 무한경쟁의 시작은 각자의 나라들이 다가올 그러한 미래에 대한 대비

---

26) [네이버 지식백과] 리터러시 [literacy], 2006. 11. (주)신원문화사). 리터러시는 문자화된 기록물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일반 대중이 아닌 특권 계층에서만 리터러시 능력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리터러시가 단지 언어를 읽고, 쓰는 피상적인 의미만을 내포하는 개념은 아니다. 리터러시는 일차적으로 시대적으로 혹은 그 사회 혹은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커뮤니케이션 코드인 ‘언어’에 의해서 규정되어진다.

27) 문화체육관광부.2012.9.연구보고서, 『생활예술 지원정책방안 연구』.p2-4

가 필요하다.”<sup>28)</sup>라고 역설 한 바 있다.

문화는 지역사회의 정체성 형성의 힘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문화는 그 구성원인 지역민, 즉 수요자들에 의해 주체적으로 소비되고 형성되고 유통되는 것으로서 문화복지와 문화산업의 정책은 완성될 수 있다 하겠다.

둘째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문화 인프라 구축이다. 물론 물리적 문화예술환경(인프라)인 공연장, 전시장등의 조성과 개선도 중요한 사업이지만 그와 동시에 문화예술정책의 전달체계나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 인프라구축 등을 고민할 수 있는 매개자 발굴 등의 중요성을 본 논문에서는 강조하고 싶다. 특히 공연장이나 전시장 같은 인프라를 관리하는 데서 시작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존 문화재단의 역할보다 더 확대된 문화정책의 개발이나 하드웨어의 관리적 측면만이 아닌, 이를 매개로 하는 신선한 프로그램 발굴과 실행에 더 힘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재단에서 기획하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는 물리적 공간인 실제 공연장과 전시장에 한정시키는 경향이 있었다면 최근의 경향은 물리적 공간의 범위나 개념을 벗어나 공간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문화예술을 일상생활에서 즐길 수 있게 하고, 특히 시민과 더 가깝게 다가서는 거리공연 등으로 확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의 확대를 통해 물리적 공간을 찾아오게 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직접 찾아가서 이러한 공간을 만들고 제공하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지역공동체에 초점을 맞춘 문화예술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기존 지역문화정책은 문화예술을 지역경제발전이라는 논리를 우선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경제적인 논리를 우선시 하는 지역문화정책은 자치단체장들이 자신들의 임기 중, 업적화를 시키는 수단으로 쓰이면서 규모가 큰 축제들의 개최나 거대 인프라구축 등에만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었

---

28) 엘빈토플러(2006). 『제3의물결』. 흥신문화사.

다. 그러나 지금은 점차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문화예술이 가지는 공동체발전 등의 사회적 가치와 그 역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추세이다. 사적인 취미활동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국한 시키지 않고 공공영역의 활동으로 인해 지역공동체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민선6기의 문화예술 정책의 도드라진 변화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향유하는 전유물이었던 전문예술에서 일반 시민들의 생활예술로 관심이 변화한 것이다.<sup>29)</sup>

셋째는 독창적인 지역문화의 창출이다. 지역의 문화 고유성을 보존하고 유지를 함과 동시에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개성있고 독창적인 지역만의 문화콘텐츠 등을 개발하는 것이다.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지역 경쟁력을 확립하여 그 지역만의 고유한 브랜드로 발전시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의 돌입에 발맞춘, 진정성 있는 의미를 가지고 지역문화창출의 결과를 만드는 문화정책이 필요하다.

---

29)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1). 『kcti문화관광동향분석, 지역문화정책의 현재와 전망』. pp. 5-7.

## 제2절 제주지역 문화예술정책의 흐름

사면이 바다이고 육지와는 떨어져 있는 지정학적 특성과 화산섬이라는 독특한 자연으로 인해 제주도만의 독창적인 언어와 문화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

제주지역만의 고유한 문화와 환경에 맞게 문화예술 또한 지역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 관습 등의 연속선상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문화예술정책도 이에 맞는 정책의 수순을 밟아서 지속돼 왔다.

<표 2-3> 제주지역 인구, 순유입인구 증가 추이

(단위: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6
총인구수	577,187	583,284	592,449	604,670	621,550	641,355	652,212
순유입인구	437	2,343	4,876	7,823	11,112	14,257	8,447

자료 : 제주도청홈페이지, 통계청

그런데 최근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유입이 가히 폭발적이라 할 만큼 증가추세에 있다. 그중에는 특히 문화예술관련 이주도 꽤 많은 편이다. 예전에도 문화이주민들이 적잖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오긴 했으나 최근에 확연하게 증가추세이다. 예전 문화이주자들은 그들만의 영역에서 활동을 주로 하였는데, 예술이라는 개인작업이 많은 특성과 제주도내의 문화예술인과 지역주민들이 가진 지역주의와 그들을 외지인이라는 편견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영향을 끼친 요인이 있어서 이기도 하다.

원주민과 이주민이라는 단어 선택이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보지만 여기서는 구도적인 관점에서 구별을 지어 표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이주민들 스스로가 문화현상을 만들고 문화현장에 적극 개입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존의 원주민들과는 몇몇 갈등의 양상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원주민이든 이주민이든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성원인 도민이고 보면 민선6기 도정의 문화정책은 현재의 현상을 분석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기존의 정책의 답습이 아닌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할 때가 된 것 이라 하겠다. 위와 같은 인구유입에 따른 문화예술부분의 문제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지역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들을 포함한 지역문화예술정책이 현재의 제주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정책 중에서 민선5기 우근민도정을 기준으로 제주도제실시부터 민선5기 이전의 문화예술정책의 흐름을 살펴보고, 민선5기 우근민도정의 문화예술정책과 현 도정인 민선6기 원희룡도정의 문화예술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제주지역문화예술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 1. 민선5기 이전까지의 문화예술정책

제주도는 그 이전까지는 전라남도예 속해 있었는데 1946년 7월 30일에 제주도로 독립이 되면서 도제(1946년 8월 1일)의 실시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이후의 문화정책을 보면 정책이 수립되긴 하였지만 구체적인 담당부서를 알 수가 없는데 제주도 행정기구에 1962년에 공보과의 신설을 보면 문화예술의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화정책의 담당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1968년에 공보실이 '문화공보실'로 개편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문화재과의 (1977-1981)신설은 제주의 문화유산을 행정의 대상으로 삼는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문화예술담당관제가 신설(1991)되고, 1994년에는 문

화체육과가 문화예술과로의 변경을 거치다가 1996년에 와서는 문화체육과로 다시 변경되었다. 행정기구의 명칭을 보면 문화·체육·관광이 분리와 통합을 거쳐 왔음을 알 수 있다. 2002년에는 ‘인류를 지향하는 문화관광도시’를 문화분야의 중점과제로 삼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02-2011)을 수립하였다. 제주도의 독창적인 민속과 전설, 민요, 전통적인 생활양식 등의 고유한 문화에 대한 발굴과 정리를 바탕으로 향토문화가 가지는 독창성과 주체성의 유지·보존을 하며 이와 같은 것을 토대로 고유문화를 현대화 시키고 나아가 세계화와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신경제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의 기반으로 가능하게 하며 관광시설확충, 관광수요창출, 관광비용인하 등을 통해서 내외국인이 좋아하는 환경 친화적인 관광휴양도시로의 개발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이것의 중점추진과제는 제주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함께 관광자원화와 제주문화의 정체성 구현사업, 기반 정비는 문화예술이 가지는 창조력의 제고를 위해서 실시추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휴양형 국제 관광자유도시건설 등이 있다. 2003년에 내놓은 ‘제주향토문화예술 진흥 중장기계획’은 전반기 2003년에서 2007년이고 후반기는 2007년에서 2011년까지이다. 그 배경과 내용은 계획의 목적이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을 추구하고 제주의 문화예술을 통해 개인을 포함하여 제주사회의 정신적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게 되는 사회의 구현과 제주사회를 구성하는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의 해소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제주도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데에 적극적인 기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sup>30)</sup>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정책중기계획’을 내놓는다. 이 계획의 실행은 2007년부터 2010년이다. 제주여성정책 수립에 문화 영역을 반영한 보고서이며, 세부추진과제 제주여성사정립과 제주여

30) 문순덕(2009). 『제주도문화정책의 현황과 과제』. 제주발전연구원. p193~198

성역사문화전시관 건립과 문화예술정책의 성 주류화와 김만덕 기념사업 등  
 이 있다. 또 2007년에 내놓은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중 15장의 사회개발  
 계획에 문화·체육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데 계획과제로는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대규모의 전시와 공연시설의 확충을 포함하는 문화공연시설의 설치  
 와 복합건강관리센터를 읍면지역의 중심기능으로 활용가능한 쪽으로 설치  
 검토를 하였고, 문화의 사각지대에 대한 도서관 등의 확충을 통한 문화 활  
 동 기회의 불균형 해소 등이 있다. 실천전략으로는 국제적인 규모가 되는  
 문화시설과 공연 및 전시시설 건립과 우도와 추자도의 각 1개소의 종합도  
 서관 건립을 포함하며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지역거점에 각 1개소씩 가칭  
 ‘제주문화산업진흥센터’, 서귀포시의 동부 지역거점에 1개소로 가칭 제주해  
 양문화박물관 신설이 있다.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영상산업발전 중  
 장기 계획 연구’에서는 제주영상산업을 단기와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2009  
 년에서 2011년까지는 단기,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중기, 2014년 이후로는  
 장기로 하는 추진 전략 과 세부추진의 과제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다. 제  
 주영상기획도시의 추진을 위한 5대 중점 추진 과제의 선정이 있는데 이는  
 ‘제주에 특화된 콘텐츠의 기획개발’, ‘기획개발에 대한 혁신 시스템 구축, 기  
 획개발을 위한 인프라 조성’, ‘법과 제도 및 정책의 개선’, ‘혁신체계 및 거  
 버넌스 구축’이다.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  
 계획 보완 용역 보고서’에는 중장기계획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한 후에 후반기에 그것의 실행 가능한 사업을 조정한 다음, 향후에  
 대한 계획수립의 기초를 삼고자 했다. 이러한 취지로 계획안의 전반적인 수  
 용과 전반기(2003-2008)까지 추진실적과 추진 못한 사업의 정리를 포함하  
 고 있다. 후반기(2009-2011) 사업에는 원래의 계획에 가지고 있으나 이것의  
 추진 가능여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정책영역을 살펴보면 제주문화가  
 가진 정체성의 확립부분이나 문화적인 복지기반의 구축에 대한 것과 문화

산업의 육성에 관련된 사항, 제주가 가진 문화예술을 세계화 시키고 이를 통한 문화적 교류와 특히 향토문화 예술을 진흥시키기 위한 기본 시책을 세우는 부분과 그 운영에 관한 부분, 전통문화예술에 해한 보존과 전승개발의 문제, 향토예술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에 관련한 시설에 대한 확충과 정비 등이 있다.<sup>31)</sup>

제주발전연구원의 2009년 7월 ‘제주 미래 비전과 전략’은 향후 20년간 제주가 지향해야 하는 것에 대한 수립을 한 보고서이다. ‘도민들이 행복한 섬’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제주문화의 가치를 세계화하는 것에 대한 제시가 되어 있고 제주가 가진 독창적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킴으로서 국제적인 수준이 될 수 있는 문화 인프라의 구축과 세계적인 문화콘텐츠 상품을 만듦으로써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재창조한다는 비전이 들어 있다. 관광객이 행복한 섬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계적 생태·문화관광지로의 도약을 위해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람사습지 등의 세계적인 브랜드의 활용을 바탕으로 하여 국제적인 생태문화관광지의 육성과 올레코스 등의 탐방로를 지역 전통문화와 결합한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을 계획하는 비전이 포함되어 있다. 또 제주발전연구원의 2009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고용정책 중장기 계획(2010-2014)을 수립하고 있으며, 제주의 문화산업이 포함되어 있다. 즉 제주도 문화산업의 현황, 고용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5년간 추진가능한 문화산업 관련 사업을 담고 있다.<sup>32)</sup>

---

31) 문순덕(2009). 앞의 책, p 193~198

32) 문순덕(2009). 앞의 책, pp. 193-198.

## 2. 민선5기 문화예술정책

제주특별자치도 민선5기 우근민도정의 임기는 2010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 까지이며, 민선5기 도정의 슬로건을 세계가 찾는 제주와 세계로 가는 제주로 내걸고 있다.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도정목표로 삼고 5개의 방침을 내놨다. 첫 번째는 고도의 분권자치 구현이고 둘째는 세계 경제시장의 개척, 셋째는 다원화사회 복지실현, 넷째는 국제문화교류의 확대, 다섯째는 환경자산의 가치보전이다. 이중 국제 문화교류의 확대는 훌륭한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는 제주지만, 소극적 정책인 전승보존에만 의존하는 정책을 펴므로써 문화가 바탕이 되는 국제적인 교류와 홍보에 취약했다. 그러기 때문에 문화수출 시대에 맞는 제주문화를 국제적인 교류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주도의 문화 예술인들이 세계 문화예술인들과 국제교류를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과 제주도라는 섬이 가지는 독특한 향토문화의 우수성에 대해 알림으로써 이들이 제주 방문에 대한 향수를 가지게 하면서 다른 산업분야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민선5기 시점인 2010년 12월 31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는 577,187명이고, 세대수는 224,713세대로 성별로는 남자가 288,917명, 여자가 288,270명으로 남자가 647명 많다. 2012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가 592천명으로 증가했다.

재정규모는 2010년에 28,532억 원이던 것이 2012년에는 34,326억 원이었고, 관광객은 2010년에 7,578천명, 2012년에는 9,691천명이다.

다음은 2009년에서 2012년 민선5기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백서 중 문화예술정책관련 내용을 정리해 봤다.

첫째로 민선5기 시점의 지역의 문화 기반시설을 살펴보면 문화생활이 지

역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주민편의 문화시설은 종합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시설 등이 있는데 2010년말에는 58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2012년 말에는 13개소가 늘어난 71개소가 등록되었다. 특히 세계자연유산, 올레 등으로 천혜의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음에 따라 관광객유치 등을 목적으로 한 사설박물관 및 전시관등이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도내 미술인들이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도민들의 문화향수 욕구충족 및 제주지역 미술문화 발전을 도모코자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7,082m<sup>2</sup>)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2009.6월 개관하였다.

문화발전, 평생교육의 이바지와 지식과 정보의 제공, 독서증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 및 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2010년에는 25개소로 제주시 12개소, 서귀포시 13개소에서 2012년에는 21개소로 제주시 10개소, 서귀포시 11개소로 각각 2개소씩 줄었다.

공연시설은 영화, 연극 등 종합예술이 대중을 상대로 공연되어지는 시설로 2010년 말 영화관은 7개관 스크린 38개가 설치·운영되었으나 2012년말에는 6개관 스크린 31개로 축소되었고, 연극, 무용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공연하기 위한 공연장은 2010년말 22개소가 등록되었고 2012년말 까지도 유지되었다. 이 중에서 종합공연장은 한라아트홀, 제주아트센터,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제주해변공연장, 제주학생문화원 등 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모두 제주시에 편중되고 있어 산남지역과 농·어촌지역에 공연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청됨에 따라 서귀포 지역에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을 추진하였다.

둘째로는 민선5기 시점의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 발전 계획에 관한 건이다. 문화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제주특별자치도 특성에 바탕을 둔 구체적 발전전략이 필요한 21세기 국내·외의 정치적이고 경제적 변화를 예상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제주지역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을 정함으

로써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2003-2011)』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는 “향토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전통문화예술의 보존 전승개발”, “향토예술단체의 지원”,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확충 및 정비”, “문화산업 육성”, “제주문화의 정체성확립 및 문화복지 기반구축”, “제주문화예술의 세계화와 문화교류”에 관한 기본전략 및 추진시책이 수록되었는데 제주지역 문화예술이 개인과 제주사회의 가장 중요한 정신적 가치가 되는 사회를 구현하고, 제주사회의 계층과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시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등의 급변하는 정치나 사회, 경제적 환경요인을 반영하지 못하고 수립된 2003년 중장기 계획은 제주지역 문화예술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08년도 본 계획에 대한 보완계획을 수립하였다. 국내외의 경제, 정치, 사회적인 변화를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새 정부가 제시하는 문화비전과 정책방향을 연계해서 지역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보완계획에서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이미 추진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진단과 평가’를 중심으로, 중장기 계획이 완료되는 2011년까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업은 ‘계획과 전망’을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그 중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제언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2012년에는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2013~2022)』을 수립하였는데 이 계획에는 “향토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전통문화예술의 보존 전승개발”, “문화시설의 확충과 공간창출”, “문화산업의 육성”,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문화복지의 확대실현”, “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문화예술의 국제교류”, 에 관한 기본전략 및 추진시책이 수록되었는데 비전으로 내세운

세계인들이 감동하는 문화창조와 도민이 함께 누리는 행복문화와 문화향유권의 확장을 통해 문화복지를 제고함으로서 제주의 세계적인 문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문화정책의 주류화’를 제주도정 전반에 걸쳐서 실현함과 동시에 총 111건의 과제인 전략과제 19건, 핵심과제 10건, 일반과제 82건 등을 소요재원 총 7,400억 원을 투입해서 연차별과 단계로 추진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셋째로 민선5기에 탐라역사문화 기록화 사업의 추진을 살펴보면 제주의 특색 있는 문화원형을 발굴하여 지역전통에 바탕을 둔 『창의문화 제주』 실현과 탐라역사문화의 창조적 계승으로 문화예술의 정체성 확립과 애향심을 고취함은 물론 제주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선양하기 위하여 탐라역사문화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도제 실시 60주년을 기점으로 제주현대 문화예술의 60년 역사를 정리하는 『제주문화예술 60년사』 편찬사업을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마무리하였다.

제주의 특색 있는 문화원형을 발굴하여 정립시키기 위한 『제주 10대 문화상징물 선정·편찬사업』이 2007년도부터 2008년까지 이루어졌으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외 제주어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 집대성한 『제주어 사전』 편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여기에는 7,000여 어휘가 수립되어 2010년 1월 발간되었다.

넷째는 지방문화원의 지역문화 창달 기반조성부분인데 제주지역 고유의 개발보급 및 보존전승, 제주향토사의 조사연구 등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향토사 연구, 향토문화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문화로 소통하는 문화도시 조성에 힘썼으며, 지역전통 문화유산 발굴조사 사업을 통하여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에 노력하였다.

다섯째는 민선5기 시점의 주요 양대 지역문화예술단체인 ‘한국예술단체 제주도 총연합회’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의 운영에 관한 것이다.

11개의 회원단체를 가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에서는 『탐라문화제』,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도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문화예술 활동을 펼쳤다.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주요사업은 아래와 같다.

<표 2-4> 2009-2010년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주요사업

2009실적		2010실적	
내용	기간 (일자)	내용	기간 (일자)
2009 제주아트페스티벌	4.30-5.3	제주예총 창립48주년 기념행사	5.1
6대광역시예총·제주예총 예술교류	4.30-5.5	탐라문화제.강릉단오제 축제교류	5.15-5.17
창립47주년 기념 제주예술인축제	5.2	2010산지천 예술마당	6.25-7.17
탐라문화제.강릉단오제 축제교류	5.26-28	제36회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	8.10-8.29
2009 산지천 예술마당	7.17-8.15	탐라문화제 기사자료전시 및 CD제작	10.1-10.5
제35회 제주특별자치도미술대전	7월-8월	6대광역시예총·제주예총 예술교류	3월-12월
역대탐라문화제기사자료수집 및CD제작	3월-12월	제주예총23집 발간	5월-11월
문화예술향수실태조사	3월-12월	-	12월
제주예총22집발간	12월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33)

<표 2-5> 2011-2012년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주요사업

2011실적		2012실적	
내용	기간 (일자)	내용	기간 (일자)
2011평화예술제	4.1	2012평화예술제	4.19
제주예총 창립49주년 기념행사	4.25-4.30	제주예총 창립50주년2012제주예술인 축제	4.21-28
2011 산지천예술마당	6.30-7.2	제38회 제주특별자치도미술대전	8.20-9.8
제37회 제주특별자치도미술대전	8.25-8.29	제51회 탐라문화제	9.13-16, 21
탐라문화제.강릉단오제 축제교류	6.7-6.9	광역시,제주도예총 건축교류전	11.5-11. 9
제50회 탐라문화제	10.7-10. 11	2012거리예술제	11.30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8.30-9.1	2012제주문화예술향수실태 조사	12.27
광역시.제주도예총 교류발전 토론회	11.24	2012송년예술마당	12.31
제주예총 24집발간	12.31	제주예총25집 발간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sup>34)</sup>

8개의 회원단체를 가진 사)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에서는 『4.3문화예술축전』, 『탐라국입춘굿놀이』 등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정통성을 복원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민들에게 역사의식 고취와 도민들의 삶과 밀접한 문화활동을 벌여 도민들의 문화활동에 공감대를 얻었다.

33) 제주특별자치도, www.jeju.go.kr

34) 제주특별자치도, www.jeju.go.kr

<표 2-6> 2009년-2012년까지의 사)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의 주요사업

2009실적		2010실적	
내용	기간 (일자)	내용	기간 (일자)
2009탐라국립춘굿놀이	2.3~7	2010탐라국립춘굿놀이	2.5~6
제16회 4.3문화예술축전	4월	제17회 4.3문화예술축전	4월
09우리문화한아름교육사업	12월	2010상반기 문예아카데미	8월
2009정책심포지움	9월	2010하반기 문예아카데미	11,12월
제2회 국제문화예술교류사업	9월	문화정책 심포지움	11,12월
2009문예아카데미	2월,8월	제주민예총 기관지 『제주문화예술』 발간	6,12월
2009역사문화아카데미	10월	-	-
도민과 함께 하는 산사음악회	8월	-	-
제주민예총 계간지 『제주문화예술』 발간	연중	-	-
2011실적		2012실적	
내용	기간 (일자)	내용	기간 (일자)
2011탐라국립춘굿놀이	2.11~12	2012탐라국립춘굿놀이	2.3~4
제18회 4.3문화예술축전	4월	제19회 4.3문화예술축전	4월
2009문예아카데미	7월,11월	산지천 아트프리마켓	8월
탐라국립춘굿놀이 정책세미나	11월	2012 제주자청비데이 프린지페스티벌	7월~10 월
제주큰굿보존 및 발전방향 정책세미나	12월	4.3청소년 문화마당	11월
제주민예총 기관지 『제주문화예술』 발간	6월,12월	제주민예총 기관지 『제주문화예술』 발간	12월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sup>35)</sup>

여섯 번째로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지원에 관한 부분을 보면 민선5기 시점에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활동을 강화하였다. 그중에서 특히 탐라문화제를 통하여 제주전통문화의 우

35) 제주특별자치도, www.jeju.go.kr

수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한편, 제주국제관악제,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 개최 등 제주문화예술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또한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조성의 부분을 살펴보면 이 기금은 지방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과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과 출연금, 중앙문예진흥기금 등의 재원을 바탕으로 2010년 말 136억7천만원, 2012년말에는 142억2천만원이 조성되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00년 말 설립하여 2020년까지 기금조성 목표를 300억원으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매년 기금을 출연 받고 있으며, 2011년 200백만원, 2012년 100백만원을 출연하였다. 2012년까지 육성기금 출연현황은 제주특별자치도 133억5천만원, 제주문화예술재단 2억7천만원, 민간 6억원 등 142억2천만원이 조성되었다.

다양한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 활동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 강화를 위하여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되어오던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위원회의 통합지침으로 인하여 지역 협력형 사업 중 제주문화예술육성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되었다. 2011년 지역 협력형 사업은 4개의 지원사업으로 제주문화예술육성사업,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사업, 제주문화예술기획사업에 총 14억1천2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제주문화예술육성사업에 139건 6억5천4백만원을 지원하여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문학, 전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개최 되었으며, 레지던시 프로그램지원사업 4개 사업 1억9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단순히 예술인들의 거주가 아닌 지역주민들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 발굴하였다. 공연장상주단체육성사업 5개단체 1억9천만원을 지원하여 공연장은 대표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열악한 공연단체에는 연습장, 공연시설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서로 윈-윈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주문화예술기획사업은 5개 사업 2억9천5백만원을 지원하였는데 거리예술제개최를 통한 문화

예술이 넘치는 거리를 조성하였고, 유희공간(감귤창고 등)에 미술의 색을 입힌 공공미술에 지원을 하였다.

2012년 지역협력형 사업에 13억9천1백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지역문화예술 육성사업 120개 사업 6억원, 레지던시 프로그램지원사업 4개 사업 1억5천만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사업11개 사업 4억4천6백만원, 빈집프로젝트 사업 1개 사업 1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수요자중심의 문화활동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적인 소외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도민들의 문화향수 기회확대 등 생산적 문화 복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사업』을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2011년도에는 연극 5건, 음악 15건, 국악 9건, 무용 5건, 기타 11건 등 총 45건에 210백만원을, 2012년에는 연극, 음악, 무용, 국악 등 공연분야 35건, 시각예술분야 6건, 문학 6건, 문화 1건 등 총 45건에 대하여 21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일곱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운영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은 제주도민으로써 우수한 연구·창작활동 또는 지역발전에 기여 등을 통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히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조례에 근거 매년 1회 시상하고 있다. 1962년 처음 시상식을 가진 이래 제주도내 향토문화예술인과 지역사회분야와 교육, 체육 등의 유공자들에게 시상하는 최고 권위의 상으로써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여덟 번째로 민선5기 시점의 영상문화산업 육성과 문화콘텐츠 발굴과 육성의 부분을 살펴보면 천혜의 자연풍광이 아름다운 제주를 영상산업의 메카 및 영상도시로 발전시킴으로써 관광과 연계한 영상산업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제주영상위원회를 2003.12.26.일 출범시켰고, 『제주특별법』에서 영상산업진흥지구지정과 동

지구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제181조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영상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들의 문화 복지를 향상시키고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2010.1.26.)를 일부 개정하였다. 또한 동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영상산업의 발전과 동시에 영상문화의 창달을 통해서 도민들의 문화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바지 할 수 있는 영상산업진흥계획을 2014년도에 수립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 운영방안, 촬영의 지원이나 영상물의 제작에 관련된 사항,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영상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항, 영상산업과 관광산업을 연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사항, 그 밖에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출범 초기 제주 영상문화산업은 극히 미미한 상태였으나 제주문화 원형을 활용한 전국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 창작자 영상기회개발 레지던시 프로그램운영 등으로 제주에서의 많은 영화, 드라마 등이 촬영되어 흥행에 성공하면서 제주의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영상산업을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국책사업으로 2006년 7월에 개관한 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지역주민이 퍼블릭엑세스 등 도민이 직접 제작에 참여 할 수 있는 여건과 영상문화산업 인프라구축에 일익을 담당하여오고 있다.

문화콘텐츠 발굴과 육성의 부분은, 문화와 예술분야를 기반으로 이를 활용함으로써 상품으로 만들어져 유통되는 전 분야의 문화산업이 최근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상품이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대두되면서 사회문화적·경제적 가치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풍부한 창작기반과

독창적인 제주의 문화자원이나 스토리소재를 돈이 되는 문화콘텐츠로 개발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의 고유문화를 현대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콘텐츠  
발굴을 위해 “전국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으로 우수  
작품을 선정하였다. 지속적인 문화콘텐츠 소재 발굴은 문화산업 인프라 기  
반이 취약한 지역의 여건을 감안 콘텐츠의 제작유치에서 벗어나 제주섬문  
화의 독특한 문화원형들을 창조적으로 집적화 하여 연계시켜서 실용화 시  
켜나가는 소재를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아홉 번째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부분이다.

문화재는 독특한 정신적·심미적 가치와 주체성을 보존하는 중요한 매체  
이며, 특정한 집단이나 민족을 초월한 우리인류가 만든 창조적인 유산이다.  
가시적인 물질적 표현만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종적이며 또한 국민  
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체질속의 본질을 표현하는 포괄적인 것을 담  
고 있다.

문화와 자연유산이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른 그 나라나 개인의 전유물이  
돼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문화재·문화유산의 보존은 한 나라와  
지역의 관심사인 동시에 세계적인 관심사인데 1972년에 유네스코는 문화재  
의 포괄적의미를 담은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유네스코의 국제협  
약 내용 중에서 문화재라 함은 국가들이 종교적이며 세속적인 근거들을 바  
탕으로 지정한 재산을 의미하면서 학문적(고고학·선사학·역사학)인 부분  
과 문화와 예술, 과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 1월에 제정되었고 문화재의 분류를  
기념물과 민속자료와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로 네 가지의 분류를 쓰고  
있다. 이 법은 2003년 7월 14일에 전면 개정되어 국가지정 문화재의 중요성  
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는데 향토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말을 쓰면서 지방

지정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문화재에 대한 학술조사, 문화재 보호사업, 보수정비사업, 무형문화재 전승사업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진행을 하고 있는 새로운 문화재의 발견사업도 하고 있는데, 문화재의 보호에 관한 사업은 물론 문화재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것을 통해 문화자원으로의 활용에도 역점을 두었다.

### 3. 민선6기 문화예술 정책

제주특별자치도 민선6기 원희룡도정은 2014년 7월 1일 임기를 시작으로 4년간의 직무를 수행한다. 자연과 문화와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도정목표로 하고 있다. 민선6기 도정은 제주가 가진 1차적 가치라고 하는 청정자연이 그 배경이 되는 헬스, 휴양과 문화, 스마트그리드와 에너지 등의 2차적인 가치들이 추가돼서 새롭게 가치창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의 한계인 대한민국의 1%라는 점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시대로의 약진을 바탕으로 자연과 문화와 사람의 가치를 키워내며 도전하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삼고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제주에 방문하는 세계인들과 문화적인 다양성에 대해 인정하는 마인드로 시대적 소명의 표방을 세계가 찾고, 세계로 가는 제주 건설을 내세웠다.

실천전략으로는 첫째로 문화예술·1차산업·원도심 활성화 추진과 협치의 체계를 구성하고 주민참여 예산 확대로 도민이 주체가 되는 ‘민·관협치의 실현’이 있다. 둘째는 비전, 실천전략 재정립, 인구, 기반시설 등 미래 밑그림 제시, 제주 미래비전 수립 등이 중심이 되는 지속발전 가능한 ‘도정 정책방향 재정립’이 있다. 셋째는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대규모 개발과 투자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한 제주의 가치를 더하고 높이는 ‘원칙과 기준 정립’이 있다. 넷째, 도내외의 제주도민 역량결집, 150만 제주인 네트워크 구

축, 세계 제주인 대회개최 등을 포함한 세계적 제주연계망을 구축한 ‘더 큰 제주구현’이다. 다섯째는 자기주도형 지식창출능력 기회제공·제주 미래인재 육성 기반마련을 바탕으로 한 제주 미래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이다. 여섯째는 민생경제 안정화 사업추진, 기반산업 성장동력의 확보, 미래투자 지속추진, 경제성장 인프라구축 등의 경제규모(GRDP) 25조원 시대를 위한 ‘경제활성화추진’등의 6대 실천전략을 내놨다.

이중 문화분야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1)제주의 정체성 확립과 탐라문화 계승 발전 2)제주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3)문화예술의 섬 환경 조성 4)문화예술과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확대 5)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 사업 지원 6)한류와 K-POP, 뮤지컬과 영화제 등의 공연산업에 대한 활성화 7)제주해녀 문화 계승발전 등이 있다.

제주의 정체성확립과 탐라문화 계승발전의 사업내용은 제주어 회생사업 지원 및 제주학 집중육성, 전통문화의 보존과 활용 및 체계적 관리, 제주문화유산 유네스코등재 등 제주문화의 세계화추진이고 연차별추진계획 및 투자계획은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

<표 2-7> 제주의 정체성확립과 탐라문화 계승발전 추진계획

연도별	연차별 추진계획	비고
2014년	- 제주학육성 위원회 운영 - 전통문화 정비사업 추진, 역사교육계획 수립	
2015년	- 제주어 관련(채록사업, 방송, 간판 달아주기 등) - 역사교육 실가, 문화재탐방길 조성 용역 실시, 무형문화재 공개 시연 - 세계유산 등재 여론 수렴.세미나	
2016년	- 제주어 관련(채록사업, 방송, 간판 달아주기 등), 제주학 국제 학술심포지엄 개최 - 역사교육 실시, 문화재탐방길 조성, 무형문화재 공개 시연 - 세계유산 한국대표 목록 선정	
2017년	- 제주어 관련(채록사업, 방송, 간판 달아주기 등) - 제주통사 등 제주사 정립	

	- 역사교육 실시, 문화재탐방길 조성, 문화원형페스티벌 개최 - 세계유산 선정 주요사치트 정비	
2018년	- 제주어 관련(채록사업, 방송, 간판 달아주기 등) - 역사교육, 문화재탐방길 조성 - 세계유산 잠정목록 지속 등재 추진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sup>36)</sup>

<표 2-8> 제주의 정체성확립과 탐라문화 계승발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임 기 내					
			소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9,700		9,700	600	2,000	2,250	2,550	2,300
국 비	3,900		3,900		850	1,000	1,000	1,050
도 비	5,800		5,800	600	1,150	1,250	1,550	1,25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sup>37)</sup>

환경조성사업의 주요내용은 문화예술 특구조성 및 운영과 제주문화예술 센터조성, 제주문학관조성 등이 있다. 이 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과 투자계획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9> 문화예술의 섬 환경조성 추진계획

연도별	연차별 추진계획	비 고
2014년	- 문화예술특구 조성 및 운영 *예술특구지정을 법적 검토 *추진위원회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 - 제주문학관 조성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문학관 조성 심포지엄	
2015년	- 문화예술특구 조성 및 운영 *조례제정 *문화마을 및 도시 조성추진 - 제주문화예술센터 조성 사업 리모델링 완료	

36) 제주특별자치도, www.jeju.go.kr

37) 제주특별자치도, www.jeju.go.kr

	- 문학관 조성 콘텐츠 연구	
2016년	- 문화예술특구 조성 및 운영 *문화마을 및 도시 조성 추진 - 제주문화예술센터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 중요문화자료 수집 및 희귀자료 발굴	
2017년	- 문화예술특구 조성 및 운영 *문화마을 및 도시 조성 추진 - 제주문화예술센터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 제주문학관 조성	
2018년	- 문화예술특구 조성 및 운영 *문화도시 조성 추진 - 제주문화예술센터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 제주문학관 운영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sup>38)</sup>

<표 2-10> 문화예술의 섬 환경조성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 투자	임 기 내					
			소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13,690		13,690		6,140	1,650	4,950	950
국 비	2,545		2,545		2,545			
도 비	11,145		11,145		3,595	1,650	4,950	95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sup>39)</sup>

문화예술 및 창작활동 지원확대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시스템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공연이나 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사랑티켓을 운영하고 문화예술인에 대한 창작 활동을 지원하면서 그들의 창작공간을 조성해주고 창작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용자를 해주고 마을 문화강사풀제 등을 도입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38) 제주특별자치도, www.jeju.go.kr

39) 제주특별자치도, www.jeju.go.kr

<표 2-11> 문화예술 및 창작활동지원 확대사업 추진계획

연도별	연차별 추진계획	비고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생태 지도구축</li> <li>- 제주사랑 티켓 : 10,500명에 대한 지역공연과 전시 관람 지원</li> <li>- 창작활동 예산지원</li> <li>- 예술인을 위한 창작 용자제도 계획 수립 과 사업의 시행</li> <li>- 마을 강사풀제도 추진계획 수립</li> </ul>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세나 협의회 창설</li> <li>- 제주사랑 티켓 : 11,000명에 대한 지역공연과 전시 관람 지원</li> <li>- 창작활동 예산지원</li> <li>- 용자제도 사업시행 만족도.조사평가</li> <li>- 마을 강사풀제도 시범사업 시행(2개 마을)</li> <li>- 빈집 프로젝트 사업추진</li> </ul>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사랑 티켓 : 11,500명에 대한 지역공연과 전시 관람 지원</li> <li>- 창작활동 예산지원</li> <li>- 용자제도 만족도.조사평가</li> <li>- 마을 강사풀 사업시행(5개 마을)</li> <li>- 빈집 프로젝트 사업추진</li> </ul>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작활동 지원 정책추진</li> <li>- 제주사랑 티켓 : 12,000명에 대한 지역공연과 전시 관람 지원</li> <li>- 창작활동 예산지원</li> <li>- 용자제도 만족도조사 평가</li> <li>- 마을 강사풀 사업시행(10개 마을)</li> <li>- 빈집 프로젝트 사업 추진</li> </ul>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작활동 지원 정책 계속추진</li> <li>- 창작활동 예산지원</li> <li>- 용자제도 만족도조사 평가</li> <li>- 마을 강사풀 사업시행(10개 마을)</li> <li>- 빈집 프로젝트 사업 추진</li> </ul>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40)

40) 제주특별자치도, www.jeju.go.kr

<표 2-12> 문화예술 및 창작활동지원 확대사업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임 기 내					
			소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18,761	2,194	16,567	2,678	2,856	3,283	3,811	3,939
국 비	5,987	855	5,132	944	1,044	1,046	1,048	1,050
도 비	12,774	1,339	11,435	1,734	1,812	2,237	2,763	2,889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sup>41)</sup>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 사업의 내용을 보면 문화의 거리 기본계획 학술용역을 추진하여 문화예술의 거리조성(거리정비, 환경개선, 문화환경과 조형물 등 설치)을하고, 문화예술의 거리 내 미술, 공연 등 예술관련 업종육성 및 지원을 하며 문화의 거리의 실질적 유동인구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원도심 투어 등)을 한다는 것이다. 연차별 추진계획과 투자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2-13>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연도별	연차별 추진계획	비 고
2014년	- 솔동산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완료 -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 TF구성	
2015년	-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운영 기본계획 학술용역 -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대상지 확정 및 설계용역 발주 -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 세미나 개최	

41) 제주특별자치도, www.jeju.go.kr

2016년	-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계속) -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 지원	
2017년	-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완료 및 사업분석, 평가 -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 지원	
2018년	- 문화예술의 거리 보수 및 정비 -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 지원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sup>42)</sup>

<표 2-14>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사업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임 기 내					
			소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17,102	8,102	9,000	980	220	3,400	3,400	1,000
국 비	3,790		3,790	490		1,500	1,500	300
도 비	13,312	8,102	5,210	490	220	1,900	1,900	7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sup>43)</sup>

이 사업은 종전의 경관정비 등 환경정비사업 위주(솔동산 문화의 거리 등)에서 환경정비에다가 문화예술공간의 확충을 더하고 전시회, 공연 지원 등 문화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한류, 영화제와 K-POP, 뮤지컬 등 공연사업 활성화사업은 K-POP, 한류 등 공연산업을 활성화하고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의 지원 확대와 독립 예술단을 활용하여 제주대표 공연을 개발하고 국제청소년 영화제를 개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차별 추진계획과 투자계획은 다음과 같다.

42) 제주특별자치도, www.jeju.go.kr

43) 제주특별자치도, www.jeju.go.kr

<표 2-15> 한류, K-POP, 영화제, 뮤지컬 등 공연사업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연도별	연차별 추진계획	비고
2014년	-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2015년	- K-POP, 한류콘서트 개최지원 -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 제주대표공연 작품개발 위원회 구성	
2016년	- K-POP, 한류콘서트 개최지원 -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 제주대표 공연 작품 개발 의뢰 및 섭외 - 청소년 영화제 개최 세부 추진계획 수립	
2017년	- K-POP, 한류콘서트 개최지원 -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 제주대표 공연 연습 및 공연 - 청소년 영화제 개최 및 수상콘텐츠 특별방송	
2018년	- K-POP, 한류콘서트 개최지원 -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공연장상주단체 축제 개최 - 제주대표공연 재공연 및 상설공연 추진 - 청소년 영화제 개최 및 수상콘텐츠 특별방송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44)

<표 2-16> 한류, K-POP, 영화제, 뮤지컬 등 공연사업 활성화사업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기투자	임기내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10,385		10,385	385	1,400	1,700	3,250	3,650
국비	10,385		10,385	385	1,400	1,700	3,250	3,650
도비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45)

44) 제주특별자치도, www.jeju.go.kr

45) 제주특별자치도, www.jeju.go.kr

제주해녀문화 계승과 발전사업의 주관부서는 해양산업과 해녀박물관장으로 하고 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와 해녀박물관대학 운영, 제주해녀 연구 및 국제세미나 개최와 제주해녀축제 추진 등을 골자로 추진한다.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2-17> 제주해녀문화 계승·발전사업 추진계획

연도별	연차별 추진계획	비고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신청서 보완 제출</li> <li>- 한반도 출가 해녀 생활실태 조사 및 보고서 발간</li> <li>- 제주해녀문화 국제세미나 개최</li> <li>- 제1기 해녀박물관대학 운영(일반인 대상 전문가 강좌)</li> <li>- 제8회 해녀축제 개최</li> <li>- 제주해녀 공연 및 해녀체험 활성화</li> </ul>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네스코 등재신청 후 활성화 방안 수립</li> <li>-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li> <li>- 일본 출가 해녀 생활실태 조사 및 보고서 발간</li> <li>- 제주해녀문화 국제세미나 개최</li> <li>- 제2기 해녀박물관대학 운영(일반인 대상 전문가 강좌)</li> <li>- 제9회 해녀축제 개최</li> <li>- 제주해녀 공연 및 해녀체험 활성화</li> </ul>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기념우표 발행</li> <li>- 제주해녀의 날 제정</li> <li>- 제주해녀의 사계(四季) 조사 및 보고서 발간</li> <li>- 제주해녀문화 국제세미나 개최</li> <li>- 제3기 해녀박물관대학 운영(일반인 대상 전문가 강좌)</li> <li>- 제10회 해녀축제 개최</li> <li>- 제주해녀 공연 및 해녀체험 활성화</li> </ul>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해녀의 날 기념식 개최</li> <li>- 제주해녀문화 국제세미나 개최</li> <li>- 제4기 해녀박물관대학 운영(일반인 대상 전문가 강좌)</li> <li>- 제11회 해녀축제 개최</li> <li>- 제주해녀 공연 및 해녀체험 활성화</li> </ul>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sup>46)</sup>

46) 제주특별자치도, www.jeju.go.kr

<표 2-18> 제주해녀문화 계승·발전사업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 자	임 기 내					임기 후	
			소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4,400	910	2,800	340	490	610	670	690	690
도 비	4,400	910	2,800	340	490	610	670	690	69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sup>47)</sup>

2015년 10월과 2016년 2월에 있었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국 주요업무보고내용을 그중에서 문화정책관련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문화관광스포츠국은 5과 17담당이 있는데 문화정책과는 6개의 담당으로 나누는데 문화정책, 문화산업, 문화예술, 문화재관리, 문화재보수, 종교담당으로 나눈다. 2016년에는 2015년 없던 동아시아문화도시사무국을 신설한다.

문화정책과의 주요업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문화예술행사와 문화·영상산업 육성,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과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복원에 관여하여 활용과 고품격화, 전통문화 전승으로 문화유산 가치창출, 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과 종교에 관련된 업무지원, 전통사찰들의 관리와 감독 및 미술관과 공·사립 박물관 지도 등이 있는데 2016년 신설된 동아시아문화도시사무국의 업무인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사업 추진이 있다.

문화관련 현황 중 2016년 문화기반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도서관 15개소, 박물관은 2016년에는 2015년보다 1개 늘어난 61개소, 미술관 19개소

47) 제주특별자치도, www.jeju.go.kr

공연시설은 5개소가 줄어든 33개소, 문화의집 20개소, 문화원 3개소, 기타 작은 도서관 등은 2개소 늘어난 177소로 총328소로 2015년에 비해 합계 2개소 줄었다.

문화예술단체 현황은 2016년에는 2015년에 비해 한국민예총 회원단체가 1개 줄어 총 합계 442개 단체인데 표로 정리하였다.

<표 2-19> 문화예술단체 현황

(단위: 개소)

년 도	합 계	한국예총 회원단체	한국민예총 회원단체	법인 단체	기타
2015	443	12	9	138	284
2016	442	12	8	138	284

\* 기타: 문학 26, 음악 78, 미술 36, 서예 30, 사진 33, 무용 18, 연극 13, 국악 36,

영상 5, 문화 10

<표 2-20> 문화정책과 관련된 위원회

위원회명	위원수	운영목적	위촉년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	19명	문화예술진흥의 기본시책 및 계획 심의	'15.06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9명	전통사찰 보존과 운영의 활성화	'14.06
제주어 보전육성위원회	15명	제주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15.10
제주학연구센터운영 위원회	10명	제주학연구센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14.02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	11명	연면적 10,000m <sup>2</sup> 이상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심의	'15.06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	30명	도지정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조사·심의	'14.0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거리조성 심의위원회	11명	문화의 거리 지정 및 조성 기본계획 심의	'13.03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14명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및 등록,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심의	'14.1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18명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자원의 연계.활용 등 협의조정	'16.0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협의회	19명	관광정책 및 장·단기사업계획 관광발전에 관한 사항	'15.01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회	18명	지정축제 선정, 대표축제개발, 축제의 통·폐합 등	'15.02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국의 의회업무보고 내용 중 문화정책 주요업무추진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도심 문화재생으로 지역가치 향상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시 및 서귀포시 원도심 지역에 문화시설 건립 또는 유휴공간을 재활용하여 전통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주도형 도시재생사업 추진하는 것이다. 추진방향을 보면 원도심 문화재생을 통해 살아있는 도심공간으로 조성하고 원도심 지역 문화자산과 연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을 하며 주민과 문화예술인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원도심 재생 문화축제를 확대한다.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및 운영 기본계획수립을 2015년 8월에서 12월까지 한다. 신규 문화의 거리조성과 기존 문화의 거리를 보완·발전을 계획하였고 원도심 치유를 위한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조성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리모델링 공사 추진등을 하였다.

원도심 옛길탐험등의 17건(제주시16, 서귀포시1)의 원도심 문화축제를 개최하였다. 아마추어와 전문예술인이 함께 하는 프린지페스티벌을 2015년10월에 지원하였다. 서귀포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2015년에서 2020년까지 3,750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 계획은 신규 문화의 거리 및 기존의 문화의 거리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16년 사업)한다. 기획전시, 공연, 창작공간 등의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운영을 2016년 7월 부터하고 연중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 페스티벌과 칠성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페스티벌을 2015년 11월에서 12월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가치확산에 중점을 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의 자연, 문화원형을 활용한 영상산업과 문화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제주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재창조하는 문화생태구축에 있다.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제주의 자연, 문화원형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산업 기반마련과 제주기반의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및 영상미디어교육 확대를 추진한다. 추진 상황을 보면 2015년 6월에서 12월에 제주문화콘텐츠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제주문화융합형 콘텐츠 활성화방향 및 문화콘텐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우수문화콘텐츠를 발굴, 상품화 및 제작지원 등 창의적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추진한다.

해녀문화기반 지역토종캐릭터의 OSMU<sup>48)</sup>확대를 위한 콘텐츠개발 등 지역특화 문화콘텐츠개발사업 등의 공모선정 및 사업지원을 2015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추진한다. 지역스토리 발굴 및 이야기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이야기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지역 스토리 랩 프로그램운영지원을 2015년 4월에서 2016년 1월까지 공모선정 및 사업지원을 추진한다. 지역 문화콘텐츠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창업 등을 2015년 5월에서 12월까지 추진한다.

제주기반의 영상물 제작지원 및 영상미디어센터 운영활성화를 통해 기존의 로케이션 위주의 지원에서 제주지역 독립예술다큐영화의 지원을 확대하고 도민, 학생대상, 수요자 특성별 미디어교육의 확대를 2014년 1,500명에서 2015년 2,000명으로 한다.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2016년 운영목표로 문화콘텐츠 전문기관 설립

---

48) 『시사상식사전』, (one source multi use), 하나의 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사용처를 개발해내는 것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콘텐츠코리아 랩 등의 국비공모사업 참여를 확대한다.

<표 2-21> 제주 문화콘텐츠 산업육성 추진계획

연도별	연차별 추진계획	비고
2014년	- 제주문화콘텐츠육성계획 수립 -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 - 제주문화융합형 콘텐츠 제작 기반마련 및 기획	
2015년	- 제주문화콘텐츠육성계획 수립 용역실시 -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 - 제주문화융합형 콘텐츠 제작 및 R&D 역량강화	
2016년	- 용역결과에 따른 정책수립 및 추진 - 제주문화융합형 콘텐츠 마케팅 및 활성화 -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	
2017년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정책수립 및 추진 -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	
2018년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정책수립 및 추진 - 스토리텔링(영상) 콘텐츠 제작	

<표 2-22> 제주 문화콘텐츠 산업육성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기투자	임기내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5,660		5,660	760	1,000	1,300	1,200	1,400
국비	1,530		1,530	330	300	300	300	300
도비	4,310		4,130	430	700	1,000	900	1,100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주의 문화역량을 키우기 위한 국제문화교류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문화발전을 통한 제주의 문화가치를 극대화한다.’이다.

추진방향은 ‘지역적인 제주문화축제를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중육성하며 UCLG<sup>49)</sup> 문화시범도시 선정과 연계한 세계문화도시 간

49) 『두산백과』,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UCLG, 世界地方自治團體聯合]. 전세계 지방자치단체들을 대표하는 국제기구. 국제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협력을 통한 단합된 목소리를 대변하고, 공동의 가치

제주문화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이다.

추진상황은 중국, 일본, 독일 등 20개국 44개팀 2,170명(75회 공연)이 참가하는 2015 제주국제관악제. 제10회 제주국제관악콩쿠르를 개최하고 제54회 탐라문화제를 글로벌 제주대표축제로 집중육성한다. 탐라문화제는 ITOP 포럼<sup>50)</sup>과 연계 문화예술교류를 통해 제주의 전통문화 홍보 및 체험행사를 확대 추진한다.(해외공연단 4개국,94명-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세계문화도시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제주문화의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에는 UCLG-ASPAC<sup>51)</sup> 문화역량강화 사업을 워크숍 등을 통해 추진하고 탐라문화제를 제주전통문화 홍보 및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기회의 장으로 활용한다. 제주국제관악제 및 제주국제음악콩쿠르를 세계적인 음악축제로 육성 추진한다.

넷째, 문화유산의 가치확대 및 체계적 보존전승이다.

주요내용은 제주전통 문화유산의 보존가치의 인식확대 및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통한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도모한다.

추진방향은 문화재의 보존전승을 위한 사업과 보존관리 실태모니터링 강화와 유무형 유산의 가치발굴을 통한 전통문화의 인문학적 인프라확대를 추진한다.

추진상황은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복원·정비 사업추진에 20,318백만원을 쓰고 향토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향토유산 발굴 및 지정을 추진하며 문화재 정기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문화재관리기반의 구축을 추진한다.

---

와 목표 및 이익을 국제사회에 대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국제연합(IULA)과 국제자매교류도시연맹(FMCU -UTO)이 통합하여 2004년 5월 2일 창립총회를 열었다. 136개국의 1,00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50) 『네이버 검색』, 섬관광정책(Inter-Islands Tourism Policy.ITOP)포럼. ITOP포럼은 지난 1997년 제주도(대한민국)와 하이난(중국), 오키나와현(일본), 발리주(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의 유사한 관광구조를 지닌 섬들 간에 관광정책 협의 및 지원 등 연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한 공동협의체이다

51)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총회

향후 추진계획은 제주유배문화의 활용가치분석 및 제주유배문화관을 건립하는 타당성조사를 한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국제회의 추진을 2015년 11월 1일에서 11월 6일까지 한다. 탐라사람들의 문화유산을 특별하게 만나기 사업추진을 2015년 10월에서 2016년 3월에 한다. 한라산신제 기록전승 및 활용을 위한 영상화 사업 추진을 2015년 10월에서부터 2016년 3월에 함으로써 문화유산의 활용기반확대 및 세계화 사업추진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다섯째,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사업 추진이다.

주요내용은 김창열 미술관 건립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문화가 강한 제주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제주가 가진 전통적인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을 관광자원화 시키고 ‘예술의 섬’ 가치를 향상시킨다.

추진방향은 세계적인 ‘물방울’화가 김창열화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증한 작품을 활용하여 독창적이고 수준이 있는 공립미술관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제주의 전통문화인 칠머리당 영등굿 공연전수회관 건립사업을 통한 문화예술의 관광자원화를 도모한다.

추진계획은 가칭, 김창열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은 사업기간을 2014년에서 2016년 까지 잡으며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문화지구 내에 사업규모 미술관 건립 1동, 연면적 1,587m<sup>2</sup>, 지하 1/지하 1층에 기증 작품 200점('13.5월 기증협약, 약 250억원 상당)을 총사업비 9,200백만원 중 국비 3,680백만원과 도비 5,520만원으로 2014년 4월에 기공식 및 착공을 하여 현재 골조공사 완료 후 내외부설비공사 중으로 향후 2016년 2월 공사 완료 후 2016년 상반기 개관 예정이다.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공연전수회관 건립은 제주시 건입동 407-3번지 일원에 세우며 사업기간을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잡고 사업규모는 공연의

전수를 위한 회관 건립 1동과 연면적 1,492m<sup>2</sup>, 지하1/지상2층, RC조(철근콘크리트구조)이며 총사업비는 3,600백만원(국비 1,800, 도비 1,800)이고 2014년 1월에 착공 현재 골조공사 완료 후 마감공사중이며 2015년 11월에 공사 완료하여 2015년 12월에 개관예정이다.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국의 의회업무보고 내용 중 문화정책관련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예술분야의 추진성과 및 과제를 보면 추진성과는 1)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역량 강화 및 협치 시스템구축 2)제주 문화예술의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3)원도심 지역 문화재생 등을 위한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4)제주 문화예술의 가치 보전·전승을 위한 활동 강화 5)민간 주도형 문화예술 활동 촉진 6)『2015년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사업』 평가 : 최우수 등이 있다.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역량강화 및 협치 시스템구축의 내용은 문화예산의 확대이다. 2014년 785억원(2.19%)인 문화예산이 2015년에는 957억원(2.50%), 2016년에는 1,065억원(2.60%)로 확대된 것인데 이는 2015년 기준 17개시도의 문화예산 비중(1.46%)에 비해 엄청난 비중을 의미한다. 또한 문화예술 관련 정책협의회 등을 통한 협치 시스템구축. 운영 등이 있는데 이는 문화예술위원회(3회), 문화예술의 섬 T/F운영(월 2회), 행정시(2월 1회), 문화예술재단 정책협의(월 1회), 영상위단체 및 도민들과의 토론(5회) 등의 여론수렴의 과정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 문화예술의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을 위한 노력으로는 UCLG 문화도시 활동 및 UCLG ASPAC 문화분과위원회 설립, 제주포럼『문화세션』 신설 및 ‘제주문화선언문’ 발표('15.7월)과 국제관악제, 탐라문화제, 하이난 인문교류, UNESCO 산하 ICOMOS 국제회의, 권터그라스 특별전 유치 및 개최 등 국제문화예술 행사확대와 2016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제주’ 유치('15.10월, 중국 닝보, 일본 나라)가 있다.

원도심 지역문화재생 등을 위한 문화예술 인프라확충의 성과는 종합문화 예술센터 및 김만덕 객주터 등 원도심 문화재생 기반마련과 삼성혈 문화의 거리, 솔동산 문화의 거리 등 소프트웨어 지원을 위한 문화의 거리조성이 있다.

제주문화예술의 가치보전·전승을 위한 활동강화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인 ‘제주칠머리영등굿 전수회관’ 건립과 제주학연구 및 제주어회생 연구기반 구축인 제주어 구술채록, 제주어 방송특집 및 제주학 연구 등이 있다.

민간주도형 문화예술 활동촉진으로는 스테핑스톤, 버스킹 페스티벌, 클럽 데이, 난타공연 및 한류콘서트 등의 민간주도형 프로젝트의 급증하고 있는데 이를 지원하고 이도1동 마을주최 문화장터(프리마켓) “모홍골호썰장” 운영을 촉진하고 신천리 아트빌리지 등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지붕없는 미술관” 조성을 촉진한다.

또한 『2015년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주도 마을문화계획 수립 및 마을 문화기획 컨설팅”이 최우수 과제로 선정되어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2017년도 인센티브 사업비 30백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문화분야의 반성과 개선방향을 보면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목표설정 및 과제발굴에서 각종 토론회시에 과거 행정관행(목표 설정 및 과제이행) 등에 대해 부정적이었는데 단, 토론을 통한 실천과제의 지속적 발굴과 이행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합의된 과제를 이행하면서 목표를 구체화 한다고 했고 문화예술단체 민간보조금 지원체계의 개선에서는 2015년부터 시행된 공모제도의 이원화된 보조율 관련 불만이 제기되는데 단기적으로 유사사업 통합 및 보조율 상향지원(생활문화 활동지원사업과 지역협력형사업을 통합 및 보조율조정 50%에서90%)의 개

선을 한다는 것이다.

문화콘텐츠 산업육성 체계구축은 문화콘텐츠 산업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부족을 반성하고 민선 6기에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문화콘텐츠산업 진흥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제주문화원형을 발굴하여 생산(창작)을 통해 유통(공연 등)하고 소비(향유)하게 하여 참여확대를 통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어린이 도서관, 제주문학관, 생활문화센터, 문화예술 창작공간 등의 문화예술 인프라는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시설확충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도심의 유희시설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창작활동 공간을 확충하고 도시재생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려 한다.

#### 4. 민선5기와 6기의 문화예술정책 비교

민선 5기 우근민도지사는 취임사에서 “제주의 역사·문화 자원은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정신적·문화적 인프라입니다.” 라고 말하며 이런 자원을 체계적 정리를 통해 현재와 미래세대에 물려주는 일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라는 ‘팔길이 원칙’을 바탕으로 창작활동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민선 5기는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저성장에 따른 제주지역의 불황에 시달리던 시기에 출범하였다.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비전으로 내세우며 제주사회에 산재된 각종 어려움을 도민과 함께 극복하려 하였다. 개방과 포용의 발판이 되는 중요한 시기였다. 2013년 중앙선데이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전국의 21천명을 대상으로 하여 15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와 종합평가에서 주민행복도 전국 1위를 차지했고, 부문별 만족도에서도 경제, 주거, 보육만족도 등 전체 15개 분야 중 6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급격한 인구증가는 노동력증가와 사회적 자본증가로 지역의 산업기술 발전과 소비수요의 증가로 지역경제 성장뿐 아니라 문화수준도 한 단계 도약의 계기가 되며 문화중흥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민선 5기는 제주환경자산의 가치와 글로벌 브랜드화를 추진했고 서귀포예술의 전당 건립 등을 통해 산남·산북의 문화적 격차해소를 꾀했으며 탐라문화광장 등의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제주시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민선5기 도정이 그전의 민선도정에 비해 문화중흥의 중심에 있긴 하였지만 문화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지역문화예술정책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흡한 점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의 구축의 부분에 국한된 정책의 추진과 지역의 의견수렴의 절차를 통하지 못한 정책의 수립은 미흡한 점으로 다가온다.

‘문화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목표로 내세운 민선 6기 도정은 제주를 ‘동아시아중해(EastAsia-mediterranean-sea) 문화예술의 섬’으로 브랜드화 한다고 발표한다. 문화예술의 섬을 위해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할 교육기관의 유치와 영상위원회와 아시아 CGI창조센터 등 유사기능을 통합하는 제주문화콘텐츠 진흥원의 출범추진을 계획한다. 문화예술시설 용자의 확대와 문화(문화예술·문화재)전문직렬을 신설하고 창작활동에 대한 용자제도 도입, 제주어 병기 의무화(소멸되는 제주어를 살리기 위한 각종 소개책자 및 안내판 등)와 인문·역사·자연·지리, 문화예술 전통공연 등 세계 섬들 간에 공통 관심사에 대한 메머드급 국제축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의견의 대두로 2018년부터 제3회 제주세계섬문화축제 개최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다.

민선 5기 도정과 민선 6기 도정의 문화관련 공약과 그 내용, 인구와 재정, 문화사업비교 등을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다.

<표 2-23> 제주특별자치도 민선 5기와 6기 문화관련공약

민선 5기 문화관련 공약	민선 6기 문화관련 공약
전략 - '문화 행복지수가 높은 제주'	목표 - '문화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이 향유하는 문화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문화예술재단내 메세나운동본부 설치</li> <li>- 제주문화관 시설확보, 문화예술 배우 처 확대</li> <li>- 걸어서 10분거리에 작은 도서관 확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정체성 확립과 탐라문화 계승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어 회생사업 지원 및 제주학 집중 육성</li> <li>- 전통문화의 보존.활용 및 체계적 관리</li> <li>- 제주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등 제주 문화의세계화 추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적인 문화컨텐츠를 개발하고 상품화, 제주정체성 확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문화 컨텐츠 개발및상품화 (한라산,해녀,오름,돌문화,제주초가,해양문화등)</li> <li>- 제주학 연구센터 설치 운영</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문화컨텐츠 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문화컨텐츠산업 육성계획수립 및 지원</li> <li>- 제주문화원형을 활용한 창의적 콘텐츠 제작</li> <li>- 제주문화융합형 콘텐츠 제작</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라의 천년 문화권 정립'에 대한 대책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라의 문화권에 관한 정립사업을 대책사업 추진</li> <li>- 탐라유산의 유.무형 연구실적 축적과 자료정리 (제주이주의 100년사 실태조사와 입도선묘 문화적 가치조사)</li> <li>- 구도심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제주성곽과 칠성대 발굴</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의 심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특구 조성 및 운영</li> <li>- 제주문화예술센터 조성</li> <li>- 제주문화관 조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적 수준의 명품이 되는 돌문화 공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돌문화공원에 대한 단계적인 사업의 지속적 추진</li> <li>- 설문대 할망의 설화에 관한 축제추진과 해외의 돌문화공원들과의 교류와 협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및 창작활동 지원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인이 창작활동의 안정성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li> <li>- 제주사랑티켓의 운영으로 지역공연.전시 활성화</li> <li>- 문화예술인의 창작공간의 조성과 창작활동의 지원</li> <li>- 마을 문화강사플제의 도입</li> <li>- 예술인을 위한 창작의 용자 제도 도입</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문화 기반확충 및 국제 문화교류행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내 영상센터와 아시아 최초의 바다 스튜디오건립</li> <li>- 국제적 문화교류행사의 활성화 지원과 아.태 문화포럼의 창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의 거리 활성화 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사업</li> <li>-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 활성화 사업</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한류, k-pop, 영화제, 뮤지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pop, 한류 등 공연산업 활성화</li> <li>-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 지원확대</li> <li>- 도립예술단 활용 제주대표 공연 개발</li> </ul> </li> </ul>

	- 국제 청소년 영화제 개최
	* 제주해녀문화 계승·발전
	- 유네스코 등재, 해녀박물관대학 운영, 제주해녀 연구 및 국제세미나 개최, 제주해녀축제추진 등

<표 2-24> 제주특별자치도 민선 5기와 6기의 인구, 재정 비교

구 분	인구수	재정규모
민선 5기	577,187명(2010년12월 현재)	27,498억원(2010년)
민선 6기	634,274명(2016년6월 현재)	40,128억원(2016년)

<표 2-2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확보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10	2012	2014	2015	2016
전체예산	27,498	30,763	35,824	38,194	40,128
문화예술 예산	478	696	785	957	1,065
전체예산대비 구성비(%)	1.73	2.26	2.19	2.50	2.6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16) 『문화정책과 내부자료』

<표 2-26> 제주특별자치도 민선 5기와 6기의 문화예술사업 비교

제주특별자치도 민선 5기 주요 문화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민선 6기 주요 문화사업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 발전 계획수립	문화예술의 섬 환경조성
탐라역사문화 기록화 사업추진	제주의 정체성 확립과 탐라문화 계승발전
지방문화원의 지역문화 창달 기반조성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 사업지원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문화예술 및 창작활동 지원확대

-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운영	제주해녀문화 계승발전
영상문화산업 육성	공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영화제, 한류, k-pop, 뮤지컬 지원
문화콘텐츠 발굴육성	제주 문화 콘텐츠 산업육성

## 5. 문화예술의 섬 정책 분석

민선6기 제주특별자치도정은 ‘문화·관광·스포츠의 가치를 키워 더 큰 제주실현’이라는 비전을 내놓으며 ‘문화예술의 섬 조성’, ‘관광산업 질적성장’, ‘제주형 스포츠 산업육성’, ‘카지노 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핵심전략을 삼았는데 여기에서는 현재 도민사회와 문화예술계의 화두이자 이슈화 되고 있는 ‘문화예술의 섬’조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문화예술의 섬 조성 핵심전략은 6개의 실행계획이 있는데 첫째는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확대, 둘째는 제주 문화브랜드의 세계화추진과 셋째는 문화와 산업의 융복합화, 넷째는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와 다섯째는 지역의 전통문화 유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 여섯째 종교문화 활성화를 통한 화합 분위기조성으로 계획된다.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 도의회업무보고 내용 중 문화예술의 섬 조성의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는 21개 사업 11,271백만원으로 추진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소외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실현이다. 도민들은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인식도(36.1%)가 낮은 실정이며, 문화활동 시간 마련에 어려움(30.4%)을 호소(문체부 설문조사, '15.9월)하고 있어 문화 소외지역 및 기업 방문 공연, 음악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를 추진(26회)한다. 그리고 도서벽지, 오지 등에 이동식 야외 전시 공간(아트 큐브)을 설치하여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2개동)한다. 장애인 문화향유 욕구해소 및 장애극복 환경조성을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확대를 하고 제주사랑티켓, 문화학교운영 및 탐라풍물제 등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확대 등 문화 향유권 향상(조례 개정)을 시킨다.

둘째, 문화예술인 등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정비이다. 문화예술재단의 성과관리체계 개선과 인력충원 및 문화예술지원 예산 확충등의 경영혁신 및 자원배분의 기능을 강화하고 창작유인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생활문화활동지원사업과 지역협력형사업 통합 및 보조율을 50%에서 90%로 상향조정하고 개인, 외국인 등의 문화예술 활동에 신규지원을 한다.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민관합동 평가 시스템을 정착시키며 문화예술교육 인적자원 발굴육성을 위해 교육청, 단체 등과 협력하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문화예술시장을 활성화하고 문화특구제도 등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셋째, 문화예술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을 통한 쌍방향 소통 공간창출이다.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도민 공감대 확산 및 비전설정 등을 위한 도민대토론회를 총 8회에 걸쳐 개최하고 이 토론회 결과를 향토문화진흥계획(10개년 계획)에 반영 및 실천을 한다. 문화예술 행사정보 획득의 어려움으로 인한 도민 문화향유 기회확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해서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인터넷, 모바일 등의 매체를 활용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 섬 TF’, ‘유관기관 정책협의’, ‘도-행정시 정책협의’ 등의 문화 협치 활동을 강화시킨다.

넷째,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인프라의 구축이다. 생활밀착형 문화시설의 확충 등 도민의 생활문화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한다. 제주도립 김창열 미술관 개관. 전시를 통해 도민 문화수준의 향상을 꾀하고 공립미술관 보유 작품의 안전보관 수장고 확충(1개동)을 시킨다.

다섯째, 건전한 도서문화 확산을 위한 도서관 기능강화이다.

여섯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기업의 역할강화이다. 기업들이 문화예술인에 대한 후원 등의 메세나 운동의 확산과 기업과 행정의 협치를 통한 도민 문화 욕구해소(MOU체결 등)를 꾀한다.

도민의 문화기회 확대는 단순히 소비적인 측면에서 향유기회의 확대보다는 도민이 주체가 되는 생산적 측면, 즉 문화민주주의에 기초를 두며, 도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생산의 주체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물론 문화복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화소외지역과 문화소외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문화향유기회의 확대는 당연히 추진함이 마땅하다. 그렇지만 그러한 시스템은 중앙정부 차원과 지자체가 아닌 타 문화예술단체와 조직에서도 양적인 팽창을 거듭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섬과 관련하여 도민의 문화기회 확대의 측면은 좀 더 발전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문화행정이 지금까지의 추진 패턴을 보면 역대 도지사들이 치적사업에 치중하다 보니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의 설립과 그 추진이 항상 미흡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시대의 현실적인 흐름에 조금씩 뒤쳐지는 행정의 결과를 가져왔다. 인프라구축의 문제, 창작활동 시스템의 정비, 문화예술정보시스템의 구축도 당연히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문화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소통과 협력의 바탕이 없는 즉, 중요

한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추진은 그 결과가 기존의 전시문화행정과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 2) 제주 문화브랜드 세계화

제주 문화브랜드 세계화와 관련해서는 9개 사업 사업비 5,070백만원이다. 이와 관련된 사업을 보면 첫째, 제주 문화축제 운영혁신을 통한 국제화 도모이다.

둘째, 국제문화 교류의 장 활성화를 통한 제주문화 역량제고이다. 이는 탐라문화제의 주요프로그램을 기획·연출 혁신을 위해 전국 공모 시행하고 제주국제관악제 참가국을 확대하여 진정한 세계 관악축제로 정립시키고 세계문화도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UCLG 2017 문화정상회의 유치와 제주포럼 “문화세션”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국제적 인지도의 제고노력이다. 제주 아트페스티벌에 제주의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가미하여 세계적 수준의 국제문화축제로 승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셋째, 문화를 매개로 도내 거주 외국인과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도내 문화 활동 외국인 “컬처토크 돌코롬” 시리즈를 전개하고 『외국 예술인 비자발급 제도』 개선을 통해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예술가의 자유로운 창작활동 및 교류를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독일의 프린랜서 비자제도의 경우 일반분야는 지역고용부서 심사 등 3개월이 걸리지만 예술분야의 경우는 2~3일이면 된다.

넷째, 2016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도적 역할수행인데 3개 도시 공감 프로그램 구성 및 의장국 도시로서 선도적인 역할 수행<sup>52)</sup>하고 1년 내내 3개 동아시아 문화도시<sup>53)</sup>들이 문화적인 풍족함을 가진 지구촌의 상호 문화교류를

52) 개·폐막식, 문화도시 시도지사회의,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문화예술제 등

53) 2016 동아시아 문화도시 : 한국(제주), 중국(닝보), 일본(나라시)

통한 협의의 장 마련 등 국제적 문화소통의 거점도시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제주가 가진 천혜의 청정자연환경과 함께 제주가 가지고 있는 독창적 문화는 당연히 브랜드가치 세계화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그 추진이 가속화 되고 있다. 다만 그 추진의 결과만을 놓고 논공행상을 펼치지 말고 철저한 결과의 분석에 따른 다음의 추진을 위한 매뉴얼로 이어져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만을 취하여 반영하는 것이 아닌, 공론화의 과정을 통한 민주적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서 반영이 돼야 한다.

### 3) 문화와 산업의 융복합화

문화와 산업의 융복합화를 위한 사업은 16개 사업 2,430백만원이 투입되는데 이와 관련된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콘텐츠 생산기반확대는 아시아CGI창조센터, 콘텐츠디자인 등과 같이 문화산업의 대부분을 포함시키는 문화콘텐츠 진흥원을 2016년 내 설립목표로 하고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사업을 발굴·추진하려한다.

둘째, 문화산업의 생태계별 지원정책을 구체화한다. 18천여 신 등 문화자원 콘텐츠별 분류 및 홍보 등 제주문화 정체성 확보와 문화콘텐츠 기획, 창작기회 제공 등 도민역량강화와 문화창작을 지원하며 문화산업 매개자 지원, 전시장, 마켓 운영 등 문화유통을 지원하며, 문화시장(프리마켓)확대, 문화콘텐츠 홍보 및 전시 등 문화향유의 지원 등이 있다.

셋째, 제주 특화형 영상산업을 육성한다. 로케이션 활성화를 통해서 제주 자원 홍보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며 조직의 혁신 및 정책변화 추구 등 영상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미디어센터 장비확충 및 교육기능 강화 등 영상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역영화제, 영상관련 축제 등 영상산업을 육성한다.

넷째, 박물관·미술관을 문화콘텐츠로 육성이 있는데 사립박물관 평가인 증제를 자체 실시하여 전국최초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박물관 품질 확보를 위한 설립계획 승인 및 등록기준을 강화하며 제주 특화형 학예사 특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시대의 추세가 융합이라든지 협업을 유행처럼 강조하는 흐름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화자체의 여건에 대한 분석과 여건이 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융복합화는 그 완성도가 담보되지 않음으로 해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융복합화의 기본적인 조건은 문화와 다른 산업이 적정한 수준의 발전단계에 있을 때 비로소 그 조건이 충족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억지로 만들어진 결과가 탄생되는 일이 최근 종종 나타나곤 한다.

#### 4) 문화에 의한 지역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에는 4개 사업으로 1,180백만원을 투입한다. 이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현대적 역사문화 공간의 창조적 재생을 위해 제주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전환하고 미래 문화산업의 허브구축 등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의 본격운영을 시작하며 조선 후기 역사를 재현한 김만덕 객주 운영을 활성화한다. 도지사 공관활용 어린이 전문도서관 및 문화활동 공간조성을 하며 현재 추진 중인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부문 집중지원을 위한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둘째,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문화주도형 원도심 활성화의 방법으로는 아마추어와 전문예술인이 함께 하는 프린지페스티벌과 마을 주최 문화장터(플리마켓) 활성화와 실험예술제 등 문화 페스티벌 개최를 지원하며 원도심 내 소극장을 중심으로 20개 작품공연을 하는 제주인(人, in)페스티벌을 원

도심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연계, 전환한다.

#### 5) 지역전통문화 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지역전통문화 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과 관련해서는 23개 사업 3,786백만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의 독창적인 정체성의 확립을 위하여 제주어·제주학의 육성을 한다. 제주학 연구센터를 제주학 연구의 중심센터로 육성하고 제주어 사용 활성화를 위한 도민교육 등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둘째,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을 통한 세계적 가치확대는 문화유산 가치 재창조를 위한 도지정 문화재 종합정비 추진과 창조적 계승과 무형문화재의 지정확대(해녀문화)와 무형문화재법 개정시행('16.3)과 동시에 해녀문화의 국가문화재 우선지정 추진과 문화원형명인페스티벌, 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개관, 진사대소리 영상기록화 등 가치 확산을 통한 무형유산의 지속가능화를 추진한다. 문화재를 활용한 생생 향교활용사업, 문화유산지킴이 등의 지역주민 참여와 활용을 통한 문화재 관리체계 고도화와 역사·문화자원 발굴을 위한 교육·조사·연구사업 내실을 추진하고 유배섬 국제교류, 한란 품평대회 등 문화자원 국제교류를 추진한다.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등 56개 사업을 전년대비 44%증액된 22,189백만원(국비 15,210, 도비 6,979)을 투입하여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투자 확대를 통한 문화재 가치확대에 힘쓴다.

#### 6) 종교문화 활성화를 통한 화합 분위기 조성

종교문화 활성화를 통한 화합 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는 20개 사업 2,609

백만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세부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통문화 보존·전승 강화인데 부처님 오신날 문화행사, 한라산 영산대재, 천지연 유등문화축제와 탐라선비 문화학교, 도덕성 회복 예절입도, 사회예절 보급운동, 유림사편찬사업, 한국불교 전통지화 및 문양전시회 등의 전통문화 계승 보존지원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높은 전통사찰 보존이 있다.

둘째, 종교간 참여와 상호이해를 위한 화합분위기 조성으로는 종교인의 화합으로 다져지는 축제 분위기 조성과 종교 문화예술 행사공모 및 국제화 지원이 있다. 그 내용으로는 종교지도자 국제문화교류, 종교인 화합 음악회와 부처님 오신날 봉축담 및 성탄트리 설치, 성탄트리 점등행사, 제주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전국 피정대회 등이 있고 종교합창단 정기연주회 및 합창제 공모지원과 제주카톨릭소년소녀합창단 국제합창대회 참가지원이 있다.

셋째, 종교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자원 육성은 종교문화를 활용한 관광자원 인프라 확충과 불교문화 체험 프로그램 관광자원화인데 내용을 보면 식물자원 활용 웰빙음식 체험관 건립사업과 성지순례길 편의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사업,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템플스테이 운영 활성화와 외국인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및 특화 프로그램 등이 있다.

### 제3절 지역문화예술정책의 사례분석

#### 1. 국외 섬 지역 문화예술정책 사례 분석

##### 1) 일본의 예술 섬 ‘나오시마’

개발의 논리로 파괴된 섬인 나오시마는 작은 섬으로 일본 세토나이카이 내해에 있다. 둘레16km 인구는 3300명 수준이다. 해안을 따라 공업지대가 발달하여 산업폐기물로 인한 지독한 환경오염에 시달려서 한때는 주민 수가 200명까지 줄기도 했다. 변화의 계기는 일본 출판교육기업 베네세 그룹의 회장이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국제캠프장을 열면서 부터이다. 후쿠타케 소이치로 회장은 1992년 베네세 하우스를 세우는데 지속적인 섬 전체의 변화작업을 시행하였다. 섬을 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하여 현대미술과 접목하여 아트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여기에는 후쿠타케 회장을 비롯한 일본의 대표적인 건축가인 안도 타다오와 한국의 예술가 이우환과 공간에 맞춘 작품의 설치를 한 미야지마 다쓰오, 스기모토 히로시 와 기획자 기타가와 프람 등이 프로젝트를 같이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성공에는 섬 주민과의 협업이 특히 중요한 핵심적 요소이다.<sup>54)</sup>

예술의 섬 나오시마를 일컫는 “베네세 아트사아트 나오시마”는 일본 열도의 혼슈, 시코쿠, 큐슈 사이의 좁은 바다인 세토 내해의 작은 섬 ‘나오시마’를 무대로, ‘베네세 홀딩스’와 ‘나오시마 후쿠다케 미술관 재단’에 의해서 운영되는 예술 활동의 총칭이고 베네세 아트사이트 나오시마는 세토내해의 자연과 예술, 건축과의 공생을 테마로 한 호텔 베네세하우스와 일본의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다다오가 설계한 전혀 새로운 개념의 땅속 미술관인 지중

54) 안도 타다오(2013). 『예술의 섬 나오시마(박누리 역)』. 마로니에북스. p. 129.

미술관, 일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한국인 예술가의 미술관 이우환미술관 그리고 오래된 집을 현대미술작가들의 숨결로 되살아나게 한 ‘집 프로젝트’ 등을 공개하고 있다. 베네세 아트사이트 나오시마의 역사에서 2010년은 그때까지 활동해 오던 예술 활동의 폭을 넓히는 의미 있는 해가 된다. “세토우치 국제예술제”가 시작되어 나오시마 뿐만 아니라 주변 많은 섬들이 예술 활동을 연계되어 주민, 특히 섬의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원기를 회복시키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는 3년에 한 번씩 개최되고 예술제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도 관람객들을 유도하고 정보를 발신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데, 이 활동 전체를 “ART SETOUCHI”라고 부른다. 각 섬은 예술제를 계기로 정비된 주요 시설과 작품 일부가 남아있어 예술제 기간 외에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봄, 여름, 가을의 행락 시즌에는 예술제 장소인 섬들에서 각 섬의 특징을 살린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2013년 두 번째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를 치르면서 예술제에 참여하는 섬이 12개로 확대되었고, 어떠한 것을 재생하여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다는 당초의 방침에 따라 현대미술 작가와 건축가 그리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협동으로 다양한 지역의 자원이 활용되고 있다. 현대미술 작가와 건축가 그리고 주민들의 협력에 의한 예술활동은 낯이 새로운 발견을 가져와 사람들을 끌어당겨 지역과 세계가 함께 어울어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지역의 활성화라는 베네세 아트사이트 나오시마의 활동은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한국인 관광객 유치 를 위한 한국 설명회를 한국관광공사에서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벤치마킹하고 싶어 하는 베네세 아트사이트 나오시마의 성공의 요인은 첫 번째로, 주민의 활동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주민들과 타지역에서 이주한 젊은 사람들 모두 긍지와 자부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둘째는 전문 예술감독 (종합디렉터)의 역할이다. 기타가와 후람 종합디렉터는 세토우치 국제예술

제 2010년 첫 행사부터 2회 행사의 종합디렉터를 맡았는데 그는 ‘대지의 예술제’ 에치고즈마리 아트 트리엔날레를 다섯 번이나 연속으로 총감독을 맡아서 일본의 작은 시골 마을인 니가타현을 세계적인 현대미술의 장으로 바꾸는 역할을 했다. 두 현대미술제는 예술의 힘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하지만 농촌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에치고즈마리와 달리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는 바다와 섬을 활용한 장소적 특징을 부여한 작품으로 독자적인 정체성을 구축하였다. 세 번째는 섬의 자연과 지역고유 문화와 현대미술과 건축으로 특별한 장소성을 만들어 낸 것이다. 또한 생활공간으로서의 기억을 간직하면서 각각의 다른 공간특성으로 새로운 감동을 경험하게 한다. 예술활동의 결과물이 단지 장식품이 되지 않는 문화적 감동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sup>55)</sup>

위와 같은 일본의 예술섬 ‘나오시마’의 사례는 예술의 힘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모범적인 섬문화 사례이고, 특히 지역주민들과 이주해온 주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자부심을 느끼며 활동하는 데에서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지역문화정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독특한 섬문화와 자연환경을 가진 제주가 공간적 특성과 생활공간의 현실성도 접목하면서 예술화 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의 고민이 필요한 모범사례로 삼을 수 있는 것에 더욱 의의가 크다 하겠다.

## 2) 캐나다 포고 섬

포고 섬(Fogo Island)은 캐나다 북동쪽 뉴펀들랜드 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생계를 어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으나 2010년에 시작된 예술프로젝트

55) 이명희(2014). 바다와 태양, 예술과 건축이 어우러지는 섬.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 13, pp. 100-109.

는 포고 섬의 경제적 문화적 양상을 급속도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전시와 출판, 레지던시, 포고 섬 다이얼로그(Fogo Dialogues), 디자인, 영화, 교육의 영역이 포함된 예술프로젝트가 있다. 2010년부터 평균 10명 이상의 작가들을 매해 세계각지에서 초대해온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참여한 작가들이 지속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냈으며 완성된 작품들을 섬의 갤러리에 전시했다. 또한 작품집은 독일의 스텐베르그 출판사와 연계 출판되기도 했다. 단순하게 지역 기반의 커뮤니티아트를 넘어선 세계적인 성과를 내는 섬의 프로젝트는 2015년 여름부터 포고 섬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인 프라카 할리티(Flaka Haliti)가 2015년 여름부터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표작가로 선정되었다. 또한 미술과 더불어 생태·환경을 포함하는 다양한 담론과의 연계도 포고 섬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하고 있다. 소외 지역의 생계와 재생과 관련된 이슈를 토론하는 자리인 국제적 컨퍼런스인 포고 섬 다이얼로그는 미술대학 교수, 주요 사상가, 기획자, 건축가, 연구자, 경제학자, 지리학자들이 섬 자체의 활성화만이 아닌 지역문화 재생의 방안이나 예술과 사회의 관계 등을 논의함과 동시에 예술이 지니고 있는 포괄적 역할에 대해 고민한다. 지역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이 섬의 프로젝트 중 특히 재단이 운영하는 포고 섬 호텔이 지역 콘텐츠를 실내인테리어로 승화시킴으로서 단순한 숙박시설의 차원을 넘어선 지역적 콘텐츠 생산의 중심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민, 예술가, 디자이너가 함께 만든 가구며 섬 특유의 무늬를 벽지에 수합해 실내디자인에 활용하는 등 지역 콘텐츠를 발굴하고 상품화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sup>56)</sup>

관광개발과 경제의 논리로 개발되어 왔던 제주는 제주도가 가진 천혜의

56) 김해곤(2015). 제주에 예술섬은 필요한가?. 『제23회 제주미래포럼-‘제주 문화예술의 섬’조성을 위한 방향과 과제』, 제주발전연구원, pp. 17-18.

자연환경과 생태가 환경파괴의 위험이 없는 친환경적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어 왔다. 보존에 기초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민의 참여와 환경보호 활동가들의 노력에 의해 지역의 환경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잘 이루어 가고는 있지만 다양한 관광객들의 욕구에 부합하기에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기만 하다. 포고섬의 경우처럼 다양한 담론과의 연계를 통해 제주가 가진 자연환경의 보존과 생태관광의 다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특히 문화예술을 연계시키는 작업이야말로 인위적 개발 보다는 문화예술이 가지는 유연함과 창의성이 제주적인 생태관광과 문화예술을 기대 할 수 있다 하겠다.

포고섬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경우 또한 좋은 예인데, 제주도도 예술을 기반으로 한 각종 프로젝트들이 추진 중이며 특히 농가의 빈 창고들을 활용한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추진하는 ‘빈집 프로젝트’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기존의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예술가들에게는 창작의 공간을, 지역민들에게는 유희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예술작가들이 예술소외지역인 농가들에 들어감으로써 주민의 예술향수기회 확대와 예술에 대한 인식변화를 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포고섬의 경우처럼 국제적인 컨퍼런스의 개최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술가들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섬이라는 환경과 문화예술의 접목의 시도는 생태관광이 지향하는 보존의 지점과 독창적이고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제주도가 현재 가진 보존과 개발의 딜레마와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2. 국내 섬 지역 문화예술정책 사례 분석

### 1) 인천의 섬 공공미술프로젝트와 평화미술프로젝트

2014년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제주문화예술 정책연구 13집』에 ‘평화와 예술, 그리고 인천의 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천에 속하고 섬주민이 약 8,700여명이고 17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경기만의 다도해는 유인도에 거주하는 주민수가 감소했으나 귀농과 귀촌의 흐름에 발맞춰 역이주하는 도시민이 많아 졌다. 이러한 섬 지역은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져서 다양한 문화예술이 접하기 쉽지 않고 문화시설 인프라도 부족한 문화예술 소외지역이지만 최근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변신하고 있다. 그러한 배경에는 문화예술교육과 문화 복지라는 시민중심의 문화정책과 인천에서 그동안 추진한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꾸준한 섬지역으로의 확장이 그 배경이다. 2011년에 처음 주최한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는 인천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인천아트플랫폼이 기획하였는데 참여 작가들이 서해 5도 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창작의 모티브를 발굴하는 전시기획의 새로운 방향성제시와 시각예술에 국한되지 않는 문학과 인문학이 어우르는 예술의 장르간의 소통과 협력모델구축을 이뤘다. 국제전시의 가능성은 인천 작가와 아트플랫폼 입주작가와 해외작가가 같이 함으로써 높은 평가를 받았다. 더 성숙한 기획으로 60여명의 작가들을 초대하면서 제2회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가 열렸는데, ‘평화의 바다 물위의 경계’라는 타이틀로 2012년 9월 25일에 개막되었다. 사전기획답사와 작품제작으로 마침내 인천아트플랫폼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을 무대로 전시회의 막을 올렸는데 전반적인 기획과 진행이 순조로웠고 출품된 작품의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백령도의 자연경관을 문화콘텐츠로 활용하여 실증적인 사례가 되었고 외국인의

시선에서 본 서해5도의 작품 등, 해외작가의 참여가 이어졌다.

2013년 제3회 프로젝트는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해 5도의 평화에 대해 지역적으로는 미시적이며 시간상으로는 더욱 거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2006년부터 본격화된 인천문화재단의 공공예술 프로젝트 지원은 기존의 공모지원방식을 벗어나서 지원금의 지급을 ‘기획공모’ 방식을 도입해서 평가환류 체계구축과 분할 지급의 방식으로 사업이 가진 추진과정에 따라 지급하였다. 공간과 장소가 중심이 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우선적으로 발굴을 시도했고 2007년에는 총 5건의 프로젝트를 장소지정 공모를 도입하고 지원금 규모를 확대해 지원했다. 인천문화재단과 프로젝트 기획자인 예술가는 파트너십에 기초해 협업하였고 유휴공간의 사전섭외와 장소의 활용을 위한 행정지원을 인천문화재단에서 지원하였다.

지원영역을 별도로 분리하여 진행한 2008년 공공미술 지원사업인 ‘아름다운 교문 만들기’는 모범사례로 평가되는데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제 교문 만들기 프로젝트를 여러 차례 실행한 지역 예술가들의 제안을 인천문화재단이 공모사업으로 발전시켰다.

중앙정부는 지역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문화정책의 제시와 예산확보를 담당하고 사업의 기획과 진행은 지역에서 책임지는 협력구조의 첫 사례인 지역 협력형 사업을 통해서 인천에서 진행된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재단의 지원시스템은 인천연안의 도서지역으로 확대 되었는데 이 프로젝트는 인천문화재단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시도 기획 지원사업’을 제안하며 시작되었다.

인천문화재단이 진행해온 아름다운 교문 만들기과 섬 공공예술프로젝트의 한계와 성과의 재점검이 2012년에 이루어 졌는데 주민과 마을, 공동체를 우선하는 사업방식을 채택하였고 ‘지역공동체 문화 만들기’의 타이틀을 가지고 사업들을 통합하였는데 이는 비슷한 사업이 가진 행정절차의 통일

이라는 측면과 사업들 간의 연계적인 효과를 위해 실시하였다.

해양도시의 특성상 도심과 섬의 구분을 중요하게 고려하였고, 과정중심의 프로젝트를 지향하고 지원사업의 체계를 보강하고자 공모와 기획지원의 병행, 다년지원 제도의 도입하고 비평프로그램과 컨설팅을 강화하였다.

이 추진단은 지역 내외의 전문가 7인으로 구성하고 전체 진행을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여 공모계획 검토부터 컨설팅과 중간평가, 개방형 프레젠테이션 심사, 성과도출과 결과보고회 등 과정을 관여함으로써 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2014 지역공동체 문화만들기 통합워크숍은 인천 강화도에서 열렸는데 섬과 도시라는 물리적인 공간이 중심이 되어 마을 주민 공동체와 예술가가 만드는 커뮤니티 아트를 추진했다.

문화소외계층으로 분류되었던 섬지역 주민의 삶의 변화는 섬지역에서 펼쳐진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와 공공예술프로젝트에 의해 이루어 졌는데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단순 공급하던 방식을 버리고 주민과 공동체를 우선하는 방식이 결실을 보았다. 예술가와 시민을 창작자와 소비자로 단순 분리하던 기존의 이분법적인 접근을 지양한 문화정책은 시민들에 의한 예술활동의 참여와 체험이 예술창작의 주체로서의 의의가 크다 하겠다. 그간에 인천의 섬 지역에서 이루어진 예술 프로젝트는 섬을 단순히 사업 대상지로 접근하거나 그 지역주민을 예술소비의 주체로 인식하지 않았다. 오히려 섬이라는 삶의 공동체를 가꾸어 가는데 예술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주민의 삶의 변화가 예술을 통하고 예술가와 문화기획자의 도움으로 완성된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57)

---

57) 허은광(2014). 평화와 예술, 그리고 인천의 섬.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 제주문화예술재단, 13, pp. 86-98.

## 제3장 문화예술의 섬에 대한 인식분석

### 제1절 분석의 목적

지속적으로 제주에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및 투자가 많아지고 있으며 지역주민들도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민선 6기를 맞아 원희룡 도정에서는 “문화예술의 섬 제주”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모든 문화예술 정책을 이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추진을 위한 도민 대토론회 및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문화예술의 섬 제주 비전을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문화예술 관련 정책을 문화예술의 섬 제주 비전과 목표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의 섬 제주의 비전 및 정책을 분석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책의 대안제시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두고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첫째, 문화예술의 섬 제주에 대한 평가 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제주의 문화예술 여건 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문화예술의 섬 제주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 및 만족도 측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 정책에 대한 민

주성과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넷째, 문화예술의 섬 제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주에서 문화예술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한다.

## 제2절 설문지의 구성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방법으로 설문지를 활용하여 자료의 수집과 측정을 하는 실증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총 문항은 59개 문항이며 내용상으로 7개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3-1> 설문지의 구성

조사내용	문항 수	척도
표본의 특성	6	명목, 등간, 비율척도
문화예술 수준 평가	9	5점 Likert 척도
문화예술의 섬 제주 인식	1	5점 Likert 척도
문화예술의 섬 제주 중요성 및 만족도	중요성 9개, 만족도 9개	5점 Likert 척도
문화예술의 섬 제주 추진 과정에 대한 신뢰성	7	5점 Likert 척도
문화예술 거버넌스	15	5점 Likert 척도
문화예술의 섬 제주 만족도	3	5점 Likert 척도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6개의 문항으로 조사하였으며 성별, 연령, 출신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수준

평가를 위하여 9개의 5점 Likert 척도를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문화예술의 섬 제주라는 비전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1개 문항의 설문 내용을 구성하였다.

문화예술의 섬 제주 실행에 따른 효과의 중요성과 만족도를 각각 9개의 5점 Likert 척도로 조사하였고, 문화예술의 섬 제주 추진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묻는 7개의 5점 Likert 척도, 문화예술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15개 문항의 5점 Likert 척도, 문화예술의 섬 제주 비전 및 정책 추진에 대한 만족도를 3개 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질문하였다.

### 제3절 조사결과 분석

#### 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표 3-2>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58	54.7
	여성	48	45.3
연령대	20대	12	11.3
	30대	24	22.6
	40대	52	49.1
	50대 이상	18	17.0
출신지	제주	87	82.1
	제주 외 지역	19	17.9
주소지	제주	105	99.1
	제주 외 지역	1	0.9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보면 성별은 남성이 58명으로 54.7%, 여성이 48명으로 45.3%, 연령대를 보면 40대가 52명으로 49.1%의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30대가 24명으로 22.6%, 50대 이상이 18명으로 17.0%, 20대가 12명으로 11.3%의 비율을 나타냈다. 출신지는 제주가 87명으로 82.1%, 제주 외 지역이 19명으로 17.9%으로 나타났고, 주소지는 제주가 105명으로 99.1%, 제주 외 지역이 1명으로 0.9%의 비율을 나타냈다.

<표 3-3> 표본의 문화관련 특성

구분		빈도	비율
문화 분야	문화예술계	58	54.7
	학계/연구직	6	5.7
	언론방송계	12	11.3
	문화시설 및 관련기관 종사자	14	13.2
	행정공무원	4	3.8
	기타	12	11.3
문화 분야 종사 기간	5년 미만	23	21.7
	5년-10년 미만	13	12.3
	10년-15년 미만	22	20.8
	15년-20년 미만	26	24.5
	20년-25년 미만	13	12.3
	25년-30년 미만	5	4.7
	30년 이상	4	3.8
문화 관련 소득	전혀 없다	8	7.5
	없는 편이다	24	22.6
	그저 그렇다	17	16.0
	있는 편이다	36	34.0
	많은 편이다	21	19.8

표본의 문화관련 특성을 파악한 결과 문화예술계가 58명으로 54.7%, 문화시설 및 관련기관 종사자가 14명으로 13.2%, 언론방송계가 12명으로 11.3%, 학계/연구직이 6명으로 5.7%, 행정공무원이 4명으로 3.8%의 비율을 나타냈다.

## 2.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수준 평가 시 중요도와 만족도

<표 3-4>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수준 평가 시 중요도와 만족도

구분	평균값		중요도 - 만족도	t값	유의확 률
	중요도	만족도			
공연예술시설의 숫자	4.00	2.72	1.28	10.396	.000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문화예술행사의 빈도	3.75	2.61	1.13	10.389	.000
지방자치단체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 전통사찰, 전통박물관 등	4.17	2.77	1.40	13.371	.000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관련 기사 및 홍보	4.21	2.63	1.58	13.312	.000
대규모 박물관과 미술관 및 체육시설 확보	3.84	2.75	1.08	8.622	.000
시민의 문화예술 참여도	4.56	2.49	2.07	19.077	.000
문화예술단체의 숫자	3.71	2.60	1.10	9.847	.000
문화예술기관 및 문화예술가에 대한 자원 지원 정도	4.35	2.19	2.16	16.975	.000
문화예술관련 교육기관 수	4.14	2.17	1.97	14.323	.000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수준 평가 시 중요도와 만족도를 살펴보면 중요도에서는 1순위가 시민의 문화예술 참여도가 4.56으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고, 2순위는 문화예술기관 및 문화예술가에 대한 자원 지원 정도로 4.35, 3순위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관련 기사 및 홍보로 4.21, 4순위는 지방자치단체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 전통사찰, 전통 박물관 등으로 4.17의 값을 나타냈다.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3 이하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서 모든 항목에 대해서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불만족하는 것은 1순위가 문화예술관련 교육기관 수에서 2.17로 높은 불만족을 나타냈고, 2순위는 문화예술기관 및 문화예술가에 대한 재원 지원 정도로 2.19, 3순위는 시민의 문화예술 참여도로 2.39, 4순위는 문화예술단체의 숫자로 2.49의 값을 나타냈다.

중요도에서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차이를 나타낸 항목은 문화예술기관 및 문화예술가에 대한 재원 지원 정도가 2.16으로 가장 높은 차이를 나타냈고, 두 번째는 시민의 문화예술 참여도가 2.07의 차이를 나타냈다.

중요도와 만족도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여 모든 항목에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유의한 수준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문화예술의 섬 제주에 대한 인지도

<표 3-5> 문화예술의 섬 제주에 대한 인지도

구분	빈도	비율	평균	
문화예술의 섬 제주에 대한 인지도	전혀 모른다	2	1.9	2.88
	모른다	38	35.8	
	보통이다	40	37.7	
	알고 있다	19	17.9	
	잘 알고 있다	5	4.7	
	총계	104	98.1	
결측값	결측	2	1.9	

문화예술의 섬 제주에 대한 제주지역 문화예술가의 인지도 평균은 2.88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문화예술의 섬 제주에 대한 공유도가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통이라는 응답이 40명으로 37.7%, 모른다는 의견이 33명으로 35.8%, 알고 있다는 의견이 17.9%, 잘 알고 있다가 5명으로 4.7%, 전혀 모른다는 의견이 2명으로 1.9%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의 섬 제주 정책에 대한 제주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인지도가 이렇게 나타나는 점은 문화예술 관련 정책의 홍보 및 공유화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현재 제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의 모든 문화예술 관련 정책이 “문화예술의 섬 제주”라는 큰 비전 아래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대토론회도 여러 차례 개최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것은 정책의 올바른 수행을 위해서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예술의 섬 제주는 단순 문화예술계만이 아니라 도민들까지 포함한 생활예술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공유화는 적절한 정책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4. 문화예술의 섬 제주 핵심전략 중요도 순위

<표 3-6> 문화예술의 섬 제주 핵심전략  
중요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문화예술의 섬 제주 핵심전략 중요도 순위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42	17	20	13	12	1
	제주문화브랜드의 세계화 추진	12	23	17	18	25	8
	문화와 산업의 융복합화	13	18	16	26	22	6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	10	24	27	27	15	1
	지역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27	22	22	13	19	1
	종교문화 활성화를 통한 화합분위기 조성	1	0	2	5	9	86
	총계	105	104	104	102	102	103
결측값	결측	1	2	2	4	4	3
총계		106	106	106	106	106	106

문화예술의 섬 제주 핵심전략 중 중요도 순위를 묻는 질문에서는 1순위 중 가장 높은 중요도는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가 42명으로 나타났고, “지역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이 27명으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문화를 통한 지역 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가 24명, “제주문화브랜드의 세계화 추진”이 23명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의 섬 제주 핵심전략 중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점은 최근 문화정책에서 불고 있는 산업화와 정반대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의 문화 역량을 통해 산업화를 이루고 이것을 통한 경제적 활성화를 중요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정책

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문화예술계에서는 무엇보다 문화예술을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문화복지와 지역전통문화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곧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을 산업화하여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그 문화예술이 가지는 가치성을 확인하고 이를 일반인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미래세대에도 이러한 지역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보존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5. 문화예술의 섬 제주 정책을 통한 효과의 중요성과 만족도

<표 3-7> 문화예술의 섬 제주 정책을 통한 효과의 중요성과 만족도

구분	평균값		중요도- 만족도	t값	유의 확률
	중요도	만족도			
경제적 효과 및 지역 활성화	4.10	2.53	1.58	14.364	.000
문화관광 활성화	4.21	2.51	1.70	14.328	.000
시민의 창의력과 가치관 함양	4.26	2.40	1.87	15.476	.000
전통문화예술의 전수 및 교육	4.33	2.39	1.94	15.929	.000
내실 있는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문화콘텐츠 제공	4.16	2.64	1.52	13.717	.000
국제 문화 교류의 확대	3.99	2.55	1.44	12.955	.000
시민생활의 풍성함과 원활성	4.21	2.49	1.72	13.673	.000
청년문화예술가의 역량 강화	4.52	2.30	2.22	19.490	.000
지역의 문화적 수준 향상	4.45	2.36	2.09	20.082	.000

문화예술의 섬 제주 정책을 통한 효과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청년문화예술가의 역량 강화”가 4.52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적 수준 향상”이 4.45, “전통문화예술의 전수 및 교육”이 4.33의 값을 나타냈다.

문화예술의 섬 제주 정책을 통한 효과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청년문화예술가의 역량 강화”가 2.30의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지역의 문화적 수준 향상”이 2.36, “전통문화예술의 전수 및 교육”이 2.39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중요도가 가장 높았던 “청년문화예술가의 역량 강화”가 2.22로 가장 높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적 수준 향상”이 2.09의 차이를, “전통문화예술의 전수 및 교육”이 1.94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문화예술의 섬 제주 정책을 통해 청년문화예술가의 역량 강화와 지역의 전체적인 문화적 수준 향상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청년문화예술가는 미래의 제주 문화예술을 이끌 자원이며 이는 곧 제주지역의 문화수준의 향상 및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지역의 전체적인 문화수준 향상은 앞서 질문된 문화예술의 섬 제주의 추진전략 중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와 다르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문화예술 관계자의 경우 지역의 전반적인 역량 강화 및 미래 제주의 문화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강화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 6. 문화예술의 섬 제주 정책 추진에 대한 신뢰도

<표 3-8> 문화예술의 섬 제주 정책 추진에 대한 신뢰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1순위	제주도는 주민에게 약속한 대로 문화예술의 섬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2.793	0.870
2순위	나는 제주가 추진하는 문화예술의 섬 정책에 대해 신뢰한다.	2.736	0.772
3순위	제주도 문화예술의 섬 정책과 관련된 예산을 공정하게 이용할 것이다.	2.698	0.818
4순위	제주도가 추진하는 문화예술의 섬 정책은 일관성이 있다	2.557	0.829
5순위	제주도 문화예술의 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	2.538	0.907

	민 참여를 유도하였다		
6순위	제주에 추진하는 문화예술의 섬 정책에 대해 관련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해왔다	2.528	0.864
7순위	제주에 문화예술의 섬 정책과 관련하여 도민들과의 많은 협의 과정을 거쳤다	2.255	0.817

문화예술의 섬 제주 정책 추진에 대한 신뢰도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예술 정책 진행에 대해 어떠한 신뢰성을 나타내는지 살펴볼 수 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평균 3 미만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의 섬 제주의 정책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7개의 문항 중 가장 낮은 신뢰도를 나타낸 것은 “도민들과의 협의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평균 2.255의 값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낮은 평균 값을 나타낸 것은 “정책에 대한 관련 정보들에 대한 도민들에 대한 공개”로 평균 2.528의 값을 나타냈고, “정책 추진 과정 중 도민 참여 유도”가 평균 2.538의 값을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의 섬 제주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으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 추진에 대한 신뢰도는 곧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정책 추진 과정 중 공유화 및 여론을 통합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정책 추진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7. 문화예술의 섬 제주 정책 추진 과정 중에 문화민주주의의 중요성

<표 3-9> 문화예술의 섬 제주 정책 추진 과정 중에 문화민주주의의 중요성

구분		빈도	비율	평균
정책 과정 중 문화민주주의 중요성	보통이다	18	17.3	4.26
	중요하다	41	39.4	
	매우중요하다	45	43.3	

문화예술의 섬 제주 정책 추진 과정 중에 문화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질문하였다. 설문지에서 문화민주주의를 “사회 내의 각 문화들에 있어서 그들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부여되는 모든 사람에 의한 문화”라고 명시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4.26으로 매우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은 지역 내 다양한 사람들이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8. 문화예술의 섬 추진에 따른 문화예술거버넌스의 중요도

<표 3-10> 문화예술의 섬 제주 정책 추진 과정 중에 문화민주주의의 중요성

구분			평균	개념별 평균
공간적 요인	도시 이미지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한 도시의역동성과 외관적인 이미지	3.906	3.962
	문화적인 자산	경제적인 자산의 환원요소가 될 수 있는 다른 지역과는 차별적이고 전통적 문화요소	4.179	

	문화 생산	축제, 이벤트 등 새로운 문화적 요소의 창출	3.802	
제도적 요인	문화예술 산업정책	문화예술산업 지원과 유치 정책	4.094	4.110
	시민참여 제도	지역 정책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하는 조례, 조직 등	4.075	
	문화예술 도시정책 수립	문화예술 도시를 위한 지방정부의 독립된 정책 수립	4.160	
자원적 요인	문화예술 산업기반	문화예술과 관련된 마을이나 클러스터	3.840	4.000
	지역 기반사업	지역 전통문화의 경제적 가치창출	4.094	
	문화예술 산업 다양성	문화예술산업의 다양성과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4.066	
커뮤 니티 요인	자발적 주민참여	주민들 간의 교류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의사 반영 노력	4.198	4.236
	문화예술 적 시민활동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인재 육성 노력	4.396	
	민관협의 체 활동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체의 다양성과 활발한 활동	4.113	
거버 넌스 요인	네트워크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공동목표와 문제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체	4.085	4.075
	사회자본	사회적 규범과 신뢰를 통한 상호 이익	4.019	
	학습과 정보공유	문화예술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적 학습과 상호 주체간의 정보공유	4.123	

설문지에서 문화예술거버넌스는 “지방 정부, 문화단체, 기업, 시민단체들과 같은 주체들이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문화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요인별로 살펴보면 커뮤니티요인이 평균 4.236으로 가장 높은 평균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커뮤니티요인 중 “지역의 문화에

술 발전을 위한 인재 육성 노력”이 평균 4.396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어 인재 육성 노력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요인별 평균값을 살펴보면 제도적 요인이 4.110의 평균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에서는 문화예술 도시를 위한 지방정부의 독립적인 정책 수립이 4.160의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9. 문화예술의 섬 정책에 대한 태도

### 1) 문화예술의 섬 정책에 대한 태도

문화예술의 섬 정책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찬성, 구전효과, 지지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3.8585, 구전효과가 3.7075, 전반적 지지가 3.5755로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의 섬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앞서 문화예술의 섬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결과를 고려했을 때 문화예술의 섬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러운 태도를 나타내고 있어 문화예술의 섬 정책을 추진하는데 지역 예술인들의 의견을 받고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1> 문화예술의 섬 정책에 대한 태도

구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문화예술의 섬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	106	3.8585	.77384
문화예술의 섬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알림	106	3.7075	.86153
문화예술의 섬 정책에 따른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지	106	3.5755	.85019

2) 문화예술관련 소득에 따른 문화예술의 섬 정책에 대한 태도 차이

<표 3-12> 문화관련 소득에 따른 집단 구분을 위한 군집분석

구분	평균	군집의 케이스 수
문화예술관련 소득 고비율 집단	4.05	74
문화예술관련 소득 저비율 집단	1.75	32

표본을 대상으로 자신의 소득 중 문화예술관련 소득의 비율 정도를 묻는 질문을 통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관련 소득 비율이 높다는 집단은 74명으로 평균값은 4.05의 값을 나타냈고, 저비율 집단은 평균 1.75의 값을 나타내고 표본수는 32명으로 구분되었다.

문화관련 소득에 따른 문화예술의 섬 정책에 대한 태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에서 살펴본 고비율 집단과 저비율 집단에 따른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내용에서 문화예술관련 소득 비율이 높은 집단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비율 집단과 저비율 집단 모든 질문에서 평균 3 이상의 값을 나타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고비율 집단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소득 중 문화예술과 관련된 소득이 높을수록 문화예술의 섬 정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인데 문화예술의 섬 정책이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소득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제주 전체의 문화예술 발전 정도가 간접적으로는 자신들의 소득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이 고려되었다는 추론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3> 문화관련 소득에 따른 문화예술의 섬 정책에 대한 태도 차이

구분	집단구분		t값	유의 확률
	고비율 집단	저비율 집단		
문화예술의 섬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	3.96	3.63	2.075	.040
문화예술의 섬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알림	3.84	3.41	2.568	.012
문화예술의 섬 정책에 따른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지	3.70	3.28	2.496	.015

## 10. 분석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문화예술정책으로서 “문화예술의 섬 제주”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문화예술가들은 시민의 문화예술 참여도를 지역의 문화예술 수준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문화예술이 일부의 전유물이 아니라 도민 전체가 누려야하며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들도 필요하지만 대중화된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의 전체적인 문화수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문화예술 정책을 펼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전문가와 일반대중 간의 커뮤니케이션 및 워크숍의 다양화, 소비자만이 아니라 참여자로서 일반대중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이다.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전략이 문화예술의 섬 제주의 핵심전략 중요도로도 1순위로 뽑히는 것이 이러한 점과 연계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문

화예술을 발전시키고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전반적인 문화 접촉 기회 확대 및 향유 증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지방정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섬 제주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것은 지역 문화예술계에서도 이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지방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통합적인 문화예술 정책을 펼치기 위한 공유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정부에서 단순히 하나의 비전을 만들고 단기간 동안의 문화예술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문화예술계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비전을 만들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마련도 지역문화예술 및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수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예술의 섬 제주 정책을 통한 효과를 볼 때 청년문화예술가의 역량 강화와 지역의 문화적 수준 향상이라는 두 개 효과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 점도 위에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지역의 문화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지역의 청년문화예술가의 역량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역 대학에 문화예술 관련 학과가 부족한 점 및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은 지역의 청년문화예술가의 부족 및 역량의 약화를 가지고 올 수 밖에 없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 청년문화예술가의 역량 강화는 지역의 전반적인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의 전반적인 문화적 수준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문화예술의 섬 제주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 과정 중 문화민주주의 관점과 문화예술거버넌스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은 자율성을 기반으로 발전해나갈 때 창의성을 가지게 되며 지역의 문화와 결합하여 새롭게 생성되고 발전하거나 쇠퇴하거나 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지방정부 결정 하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로부터 시작하여 지역 전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을 때 자연스러움을 갖고 무리가 가지 않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예술의 섬 제주 정책을 추진하는데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예술거버넌스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문화예술의 섬 제주 정책에 대한 지역 문화예술계의 태도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추진과정 및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문화예술의 섬 제주 정책 그 자체의 내용적인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이를 진행하는 과정 및 추진 정책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문화예술의 섬 제주 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지역주민 및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지방정부는 세밀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제4장 문화예술의 섬 정책의 과제와 제언

국내외의 섬지역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사례분석과 제주지역의 문화예술의 섬 정책의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의 문화예술 정책의 과제와 향후 정책 방향이 어떻게 정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제1절 문화예술의 섬 정책의 과제

#### 1. 문화예술의 섬 비전의 특성 부재

‘문화예술의 섬 제주’라는 비전은 제주를 문화예술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사람이 살기에 좋은 환경으로 만들겠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은 건전한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하고 미래세대에게 건전한 문화를 전달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시된다. 하지만 문화예술의 섬 제주라는 비전에 비해 그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진행되었던 많은 문화예술 정책과의 차이점을 찾기 어려운 점이 있다. 추가적으로 국제 문화예술 행사를 확대하는 정책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그대로 진행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단순히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수를 확충하고 문화예술이 중요하다는 홍보를 통해서 문화예술의 섬 제주 비전이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예술의 섬 제주의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새로운 방향 제안과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신뢰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문화예술의 섬 제주는 그동안 이뤄진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관련 지원 및 프로그램, 시설,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화를 이끌어야 하며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이 필요하다. 이는 차별적이어야 훌륭한 정책이라는 것이 아니라 제주의 정체성을 담아낼 새로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른 지역과는 차별적인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문화예술의 섬 제주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사업들이 제주의 정체성을 반영한 특수성을 갖추었는지는 의구심이 든다.

앞서 시행된 문화예술관련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의 정체성을 담은 새로운 그릇으로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가 되는 문화예술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 전문가, 도민 등과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 2. 문화예술의 섬 사업 간의 상호 연계성 부족

문화예술의 섬 제주의 사업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상 기존의 문화예술정책과의 큰 차이점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새로운 정책과 사업이 옳다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문화예술 정책과 사업 중 지속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은 선택하여 유지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문화예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각각의 사업들이 연계성을 갖고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일회성의 사업들이 많다는 점이다. 문화예술관련 정책과 사업들은 단발성보다는 지속성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할 사업들이 많지만 이런 사업들보다는 단발성의 사업들이 많이 추가되었으며 사업들 간의 연계성도 부족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예술은 단독적인 성격을 갖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고, 문화예술 안에서도 다양한 분야들이 서로 얽히고 조정되며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출해 나갈 수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 전략과 사업들은 소비성을 중심으로 관주도의 보여주기식 행사가 많아지고 있으며 문화예술을 창출할 수 있는 생산자에 대한 깊은 고민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 3. 문화예술의 섬 사업 파급효과의 부족

문화예술의 섬 제주 비전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정책이 펼쳐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서 미래지향적인 올바른 정책 방향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책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할 점은 많은 정책과 사업들이 한 번 보여주기 식의 예산낭비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눠주기식의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며, 지역문화예술에 기여할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그 효과가 미비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파급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사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 교육의 일상화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향상만이 아니라 어린이 또는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문화예술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청년문화예술가에 대한 지원 정책은 향후 문화예술의 섬 제주 비전을 성공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제주에는 문화예술 소비를 위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생산하고 유지 관리할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이 제주

로 옮겨오는 육지부의 문화예술들이 증가하는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려해도 이를 지원해줄 프로그램이 현재까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의 많은 청년문화예술인들이 제주를 떠나고 있으며, 반대로 육지부에서 이미 경쟁력을 갖추거나 새로운 문화예술의 장을 만나려는 문화예술인은 제주를 찾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 4. 지속성을 갖춘 문화 향상 프로그램의 부족

문화예술 분야는 단기간에 어떠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니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발전방향을 수립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는 ‘문화가 곧 인간이다’ 또는 ‘인간이 곧 문화다’라는 말과 연계된다. 문화예술이 건전해지면 인간도 건전하고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지만 문화예술이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생산적이지 못하고 쾌락적으로 변하면 인간도 건전하지 않게 변할 수 있으며, 그 반대로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 후대에게 잘못된 문화예술을 전달할 수도 있다.

문화예술의 섬 제주에서 수립한 다양한 전략들과 사업들이 과연 후대에 올바른 삶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적정하게 마련된 전략들과 사업들은 지속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식견이 필요하다.

지역의 문화예술인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전문가, 도시전문가 등 다양한 시선에서 평가를 포함한 새로운 문화예술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운영이 필요한 시기이다.

## 5. 문화민주주의 개념을 도입한 사업의 설계 및 추진

앞서 제시한 문제점들은 문화민주주의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양성, 시민주도성, 자발성에 기초한 새로운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이 이뤄졌을 때 앞서 제시한 문제들의 해결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문화민주주의 개념이 도입된지는 오래지 않았고 지금까지 관주도 또는 중앙주도의 문화예술 정책과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때로는 문화 생산자와 소비자를 무시한 행정 중심의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진행된 경우도 많았다. 문화예술이 이렇게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문화예술 그 자체가 문화예술 정책의 목표점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을 통한 다양한 파급효과 및 관광산업 효과 등은 목적이 아니라 문화예술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은 문화예술 그 자체의 발전을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성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를 담보하고, 시민들이 주도하는 자발성이 마련될 때 올바른 문화예술의 섬 제주가 비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제2절 문화예술의 섬 정책 제언

### 1. 지역주민에 의한 정책의 완성과 예술참여기회 확대

설문조사의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수준 평가 시 중요도와 만족도에서 중요도의 1순위가 시민의 문화예술참여도이고 만족도가 3순위로 나타나는 것을 보더라도 지역민의 예술참여기회의 확대가 중요한 논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의 섬 제주 핵심전략 중 중요도 순위에서 1순위는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나타났다. 결국 지금의 시대는 지역민들이 소비자적 입장인 문화향유자와 공급자적 입장인 예술참여자의 양면에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는 시대가 되었다 하겠다.

문화예술의 섬 제주 정책의 중심에도 당연히 지역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명제일 것이다. 문제는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문화예술의 섬 정책이 되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당연히 지역주민을 위하고 지역주민들에 의한 정책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이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관주도의 행정과 정책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처럼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에서는 협치를 강조하며 여론수렴을 강조하고 있으나 공급자인 예술가와 소비자인 지역민들의 욕구의 충족은 아직 가야할 길이 멀기 만한 실정이다. 국외 섬지역 문화예술정책의 연구사례인 일본의 예술섬 ‘나오시마’의 예를 보면 섬의 예술공간화를 추진하고 현대미술과 접목한 아트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오래된 집을 현대미술작가들이 되살리는 ‘집 프로젝트’ 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섬주민들과의 협업을 들 수 있다. ‘나오시마’의 사례는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지역의 활성화와 섬이라는 독자적인 정체성을 구축하며 자연과 지역 고유의

문화와 현대미술과 건축으로 특별한 장소성을 만들어 내는 제주의 문화예술의 섬이 지향해야 할 모범적 사례이다. 특히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반영하고 참여하게 하여 그들과 협업을 통해 정책을 마련하여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문화예술의 섬 제주를 내세운 민선6기 도정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특히 협업이다. 물론 민선6기 도정이 협치를 강조하며 여러 면에서 실행하고는 있지만 지금의 문화적 현실이 창작자와 소비자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문화민주주의 시대임을 고려하면 단순히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협업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 예술가와 지역민들의 참여를 강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조직화된 협업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결국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만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도 또한 창작자의 입장일 수도 있다는 양면을 전부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 2. 문화예술의 섬 제주 홍보 마케팅 강화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정책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지역주민 개개인의 예술적 상상력과 감성의 회복, 제주의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 문화예술 의식의 고양 등을 통해 문화시민으로 도약하는 계기에 두고 있고 정책의 목표연도를 2026년까지 추진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결국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개개인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본 연구자가 설문조사를 한 ‘문화예술의 섬 제주’의 인지도 및 중요성 인식에서 보면 문화예술의 섬 제주에 대한 제주지역 문화예술가들의 인지도가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이 정책에 대한 홍보 및 공유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

을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겠다. 지금의 시대는 홍보와 마케팅이 없이 문화예술정책을 논하기 어려운 시대이다. 예술의 세계 또한 이미 마케팅적 접근의 논의와 학문적인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예술의 세계가 그러한데 하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정책을 펴고 실행하는데 그들의 구체적인 정책의 목표와 실행계획을 소비자인 지역민과 주체적 창작자들인 예술가 및 문화매개자 등 각계에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바탕으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정보들의 공유를 통해서 이루어진 정책이야말로 관주도의 정책이 아닌 진정한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실질적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주관하는 ‘문화예술 대토론회’의 개최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하나 토론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미미하고 정책을 공유하고 수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과 공간의 한계는 현재도 드러나고 있다 하겠다. 단순히 토론회 등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과거 전시행정의 전철을 밟지 말고 문화예술재단, 언론, 문화예술단체,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정책의 방향성과 현실적 실행방안 등을 논의하고, 정책전문가들과 홍보와 마케팅 전문가 들을 연계시켜 지역민을 위한 지역민에 의한 정책의 공유를 제안해 본다.

### 3.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해도 그에 맞는 인력이 없으면 어렵고 힘이 들 수밖에 없다. 이는 제주지역의 문화예술의 현실을 반영하는 말이다. 특히 문화예술전문인력이 수급이 절실한 시점인데 제주지역은 예로부터 지리적인 여건으로 대도시와의 접촉이 쉽지 않아 예술의 교육적인 시차나 문화패턴이 변화하는 것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빠르지 못했다. 이러한 예술교육

과 문화전문교육 결핍의 한계 속에서 내부에서 만들어진 전문인력 수급은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형편이었다. 제주지역에는 공립예술고등학교 마저 없어 예술인적자원들이 대도시 유출로 이어지고 도내 대학에도 예술학과는 있으나 이마저도 음악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문화예술 전문인력 수급의 자생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주문화예술재단 등에서 아카데미나 강좌를 개설하여 그 과정의 커리큘럼 등을 짜고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무에 바로 투입될 정도의 전문인력으로의 그 한계점은 명약관화하다.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극장 등의 기반시설과 예술인과 예술인 단체의 지원이나 예술향유기회의 확대의 지원도 당연히 이루어 져야겠지만 공연기획의 질적인 확대와, 공간운영인력의 전문화, 문화예술 경영과 마케팅, 문화예술전문교육인력의 확충을 위한 전문인력 인프라의 구축이야말로 문화예술의 섬 제주로 가기위한 선행과제가 아닐까 한다. 또한 지역문화예술의 균형적 발전의 창조적 주체로서의 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예술고등학교와 문화예술관련학과의 신설을 기대한다.

#### 4. 천삼백만 관광객시대의 제주문화예술정책의 방향

제주특별자치도의 최근의 급격한 인구 유입이전에 한해에 천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정책도 이러한 현상들을 반영하여 그에 합당하고 유연한 정책들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문화예술정책들이 관광과의 연계를 수동적인 입장에서 고수하여 왔다면 이제는 이에 발맞추고 이러한 현상에 연계해서 문화적발전도 꾀하고 지역의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에 합당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은 당연할 일일 것이다.

우선 최근 2년간의 제주 방문 총 관광객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1 > 제주 방문 총 관광객 수 현황

구 분	2015년	2014년	증감율(%)	
총 계	13,664,395	12,273,917	11.3	
내국인	소계	11,040,135	8,945,601	23.4
	개별관광	8,424,404	6,781,586	24.2
	부분패키지	1,750,211	1,444,508	21.2
	패키지	865,520	719,507	20.3
외국인	2,624,260	3,328,316	-21.2	

자료원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http://www.visitjeju.or.kr/>)

2015년 기준 제주 방문객 수는 1천3백만명으로 2014년에 비해 11.3%의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내국인 관광객의 경우 23.4%의 매우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에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국내 메르스로 인해 방문객 수가 21.2%의 감소를 나타냈다. 내국인의 경우 개별관광객, 부분패키지 관광객, 패키지 관광객의 전반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표 4-2 > 제주 방문 내국인의 관광목적

구분	2015년	2014년	증감율(%)	
내국인	소계	11,040,135	8,945,601	23.4
	레저스포츠	1,486,387	1,182,187	25.7
	회의및업무	1,127,550	1,018,386	10.7
	휴양 및 관람	7,458,554	5,991,567	24.5
	친지방문	491,424	414,353	18.6
	교육여행	257,395	170,273	51.2
	기타방문	218,825	168,835	29.6

자료원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http://www.visitjeju.or.kr/>)

제주 방문 내국인의 관광목적은 살펴보면 휴양 및 관람이 746만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레저스포츠가 149만명, 회의 및 업무가 113만명을 기록하였다.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중 50% 이상이 휴양 및 관광인 점은 제주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자원 및 순수 관광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3 > 제주 방문 외국인의 국적 현황

구		분	2015년	2014년	증감율 (%)
외 국 인	소계		2,624,260	3,328,316	-21.2
	아 시 아	일본	59,233	96,519	-38.6
		중국	2,237,363	2,859,092	-21.7
		홍콩	22,732	28,405	-20.0
		대만	17,839	32,189	-44.6
		싱가포르	29,620	46,307	-36.0
		말레이시아	39,892	63,953	-37.6
		인도네시아	22,707	36,850	-38.4
		베트남	26,806	31,914	-16.0
		기타	75,956	62,467	21.6
	서구	미국	16,898	19,812	-14.7
등	기타	75,214	50,808	48.0	

자료원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http://www.visitjeju.or.kr/>)

제주 방문 외국인의 국적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인 관광객이 224만명으로 가장 많은 관광객 수를 나타냈지만 2014년에 비해서는 21.7%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시아와 서구 등에서 살펴보면 기타에서 관광객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제주를 방문하는 국가가 다양해지면서 기타에서의 관광객이 증가한 효과를 나타냈다.

위의 표들에서 살펴본 현황이 지속적 증가추세에 있는 관광객들이 다양화된 관광목적과 다양한 국가에서 방문하는 추세를 종합해볼 때 지금의 시점에서 문화와 관광의 접목을 해야만 하는 당위적 배경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논해볼 수 있겠다.

첫 번째로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문화예술 욕구 증대이다.

근로시간의 단축과 고령화의 급진전에 따라 전국민적으로 국민관광 및 레저의 시대가 본격화 되었고 디지털과 융합되어 관광객들이 직접 관광 매력물을 찾고 방문하는 시대가 되었다. 또한 여가의 형태를 살펴보면 기존에는 정적인 형태인 집에서 휴식을 하는 위주에서 동적인 형태인 활발한 활동성의 추구를 지향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 관광은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 또한 다양하게 나오고 있으며 사회취약계층의 문화 접근의 기회를 늘리고자하는 다양한 정책도 펼쳐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관광목적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전체적인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높이기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는 곧 관광상품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질적, 양적 향상은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통한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문화체험에 대한 증대와 함께 사회적으로도 관광을 할 때에 문화예술에 대한 체험과 교육이 고차원적인 관광임을 강조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관광객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키고 있다.

둘째로는 섬지역의 관광상품 다양화 노력이다.

세계적으로 섬들 대부분이 천혜의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관광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이는 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보존자원의 부족, 인적자원의 미약성, 경제구조의 단순화로 인하여 서비스 산업 특히 관광산업에 대한 경제구조 집중화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형 관광은 지나친 자연자원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환경파괴를 이끌게 되며, 단순화된 관광상품만을 경험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 섬관광에

서는 문화예술 및 체험형 관광에 집중하고 있다. 환경파괴가 상대적으로 적고 지역주민의 참여도 이끌 수 있는 문화예술 관광상품은 새로운 관광 매력물로 발전하고 있다.

위와 같은 당위적 배경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섬 제주 정책과도 밀접한 연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의 섬의 핵심전략 중 특히 제주 문화브랜드의 세계화 추진과 문화와 산업의 융복화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현시점에서 문화예술의 섬 제주 정책과 관광의 접목은 필수불가결한 현실이라 보여 진다.

제주는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목적지로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휴양 및 관광 목적의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제주에서도 지속적인 관광객의 증가, 재방문율 증대, 체재일수 증대 등을 위한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이는 제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관광을 통한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함께 추진하는 방향의 모색이 이뤄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관광 정책이 단순히 관광객 입장을 고려한 정책이었다면, 현재에 와서는 지속가능한 지역 개발 및 지역주민의 참여를 고려한 관광정책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화예술의 섬 제주” 정책은 현대 관광 정책과 연계되고 상호작용할 요소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을 고려한 문화예술정책과 지역의 정체성을 고려한 정책들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고품격 문화예술 관광상품을 만드는 저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예술의 섬 제주 정책과 관광의 접목을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해볼 수 있다.

첫째, 야간문화예술 관광상품 개발이다. 제주 관광에서 가장 취약점으로 뽑히는 점이 야간 관광이며 야간에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없다는 점이다. 야간에는 관광지가 거의 문을 닫기 때문에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상품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역주민이 즐기는 문화예술의 거리와 공연장 활성화를

통해 야간에 볼거리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며 문화예술인에게는 경제적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주민에게는 다양한 문화체험, 관광객에는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 이러한 노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축제인 ‘성산일출제’를 시작으로 ‘제주들불축제’, ‘탐라문화제’등의 크고 작은 축제들이 양적인 팽창을 거듭하고 있고, ‘거리예술제’나 ‘제주프린지페스티벌’등의 원도심재생과 문화민주주의의 확산노력, 생활예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은 각종 거리공연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너비벌퍼포먼스인 ‘난타’의 전용극장 활성화 등으로 비교적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변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과 관람객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양보다 질의 변환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것의 중심에 문화예술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 그 실천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화예술정책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정책과 행정의 지원, 이러한 것들의 전반적인 현상과 실천을 분석하고 평가, 제언할 수 있는 각계의 네트워크 구축이야말로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제주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관광상품으로의 개발이다. 문화예술의 섬 제주 정책에서는 제주어, 제주토속신앙 등 제주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문에 대한 지원 및 보존 노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면 제주어의 경우 이를 활용한 공연, 디자인, 캐릭터 상품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고 제주신화를 통한 스토리텔링도 중요한 방안으로 이용해볼 가치가 있는 점을 인지하여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제주 천혜의 자연자원과 이야기가 연결된, 소위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새로운 관광상품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지원과 노력들이 산발적이고 단순지원의 행정적지원에만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가장 기본적인 자료의 수집부터 그것들을 빅데이터화 시켜서 지역주

민과 학계와 전문가, 관광객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그 형식과 내용들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의 다각화, 산업과 문화예술까지도 표용할 수 있는 실용적 관계협의체의 구성을 통한 여론수렴 후 정책적 실현이 필요하다.

셋째, 노후된 관광지 및 박물관을 활용한 문화예술 관광지로의 변화이다. 1980년대부터 활성화된 관광 목적 박물관 또는 관광지들 중 노후되었거나 매력성을 잃은 장소 및 공간에 대해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관광객들을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콘텐츠와 공연, 디자인을 결합하여 새로운 관광시설로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다. 기존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예술시설의 건설 부담감도 줄일 수 있고, 지역문화예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선순환적인 관광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 5. 문화예술의 섬 제주 정책의 방향

본고에서 고찰한 지역문화예술정책의 분석사례들을 살펴보면 그 성공의 요인들은 캐나다 ‘포고섬’의 경우 세계적인 작가를 초대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미술과 생태, 환경을 포함하는 다양한 담론과의 연계와 소외지역의 생계와 재생과 관련된 이슈를 토론하는 자리인 국제적인 컨퍼런스인 ‘포고섬 다이얼로그’등을 통해 지역민들의 의견과 세계적인 추세의 문화예술전반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인천의 섬, 공공미술프로젝트와 평화미술프로젝트’를 보면 전시기획의 새로운 방향성제시를 통해 시각예술에 국한되지 않는 문학과 인문학이 어우르는 예술 장르간의 소통과 협력 모델을 구축하며, 문화재단과 예술가들의 협업을 통해 정책의 실행을 하는 좋은 선례를 볼 수 있었다. 결국 문화예술의 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펼치는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인 문화예술인, 소비자이자 창의적 생

산자의 양면의 대상인 지역민의 협업체계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 문화민주주의적인 관점과 문화예술거버넌스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시기이다. 또한 문화행정서비스의 강화를 통해 지역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확대하고 행정 담당자들이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의 확보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전문성이 담보되는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영입을 위해 공모직공무원제도 등도 더 고려해 봐야할 시기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예술정책이 지역의 발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단순의 지자체장의 치적사업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이라면 그 정책은 이미 연속성이 없음이 자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문화예술정책을 통해 지역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이라는 연속선상에 있어야 하며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문화정책이 되어야한다.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고 독창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제주는 이러한 독창성과 천혜의 자연환경이라는 인프라에 부응하는 문화컨텐츠의 개발과 제주적인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이 전제되는 문화예술의 섬 정책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최근에 굉장히 많은 공연예술축제들이 도내의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에 발맞춘 문화적인 지원을 나타내는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의 섬의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는 현상이지만, 심히 우려가 되는 것은 무차별적 축제행사의 실시는 지역민이 향유자로서 미처 준비도 되기 전에 소나기가 퍼붓듯이 실시되고 있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축제의 현장은 그리 많지 않은 관객의 숫자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해서 지역민의 문화향유기회의 확대가 증대되지 않을 뿐 아니라 무분별한 행사의 난립은 지역민의 여론에 오히려 악영향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에서는 더 구체적인

조사와 실행계획을 세우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역민이 원하고 참여할 수 있는 행사나 축제를 기획해야 할 것이다.

## 제5장 결 론

더 이상 제주는 대한민국의 변방이 아닌 문화적 중심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며 문화예술의 뜨거운 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2013년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는 ‘문화기본법’의 제정과 2014년 중앙 중심적 문화의 권리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계기가 되는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은 제주가 변방에서 문화중심지로 가는 길에 더 큰 추진제로 다가왔다.

한해에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의 유입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곳인 제주에 이주하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박근혜정부의 문화융성과 민선6기 제주특별자치도정이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시기야말로 그간의 행정위주의 문화예술정책에서 문화분권화가 된 진정한 문화예술정책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문화예술정책연구를 여러 가지 이론적 고찰과 설문을 통해 살펴보고 그중에서도 ‘문화예술의 섬 제주’ 조성 정책을 고찰하고 연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정책 중 ‘문화예술의 섬 제주’ 조성 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문화예술의 섬 제주’의 완성을 위해서 몇 가지 선행돼야 되는 전제과제가 있다.

첫째 민주적이고 현실적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되어야한다.

과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공의사결정이나 시책의 추진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직접참여해서 협력하는 집단적 통치 및 관리체계를 의미하는 거버넌스는 지금의 민선 6기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협치와도 잘

맞는다 하겠는데 특히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의 구축은 시대적 패러다임이고 현대적 흐름이고 세계적인 추세라 하겠다. 최근 이러한 문화거버넌스의 논의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주전역을 순회하며 다양한 분야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개최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섬 제주’ 조성을 위한 대토론회에서도 이슈화 되고 있다. 문화거버넌스와 문화정책거버넌스의 형태가 대부분 소통과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부분만을 대부분 강조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의 사고를 하고자 한다. 현재 제주문화예술재단은 문화예술의 중심에 서있지만 실질적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지고 있다. 문화적 패러다임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문화행정과 문화정책의 중심도 공급자인 예술가, 매개자인 재단, 기획자 등과 수요자인 예술향유시민의 중심에 있는 제주문화예술재단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민선지방정부가 바뀌더라도 연속성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으리라 보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선심성 공약과 정책은 결국 문화예술 향유자와 예술가들의 피해로 다가오는 현실은 그 명분을 더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대표이사가 도지사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문화예술재단으로 이양하고 이사장을 도지사가 맡던가 하는 방안과, 당연직이사들의 숫자보다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목소리들의 대표들을 이사회에 영입하고 그들의 직접적인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소통, 네트워킹, 플랫폼이라는 용어의 많아지는 현실처럼 문화현장의 요구들을 이런 단어들로서 자생적인 조직화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재단중심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거버넌스 조직화의 중심에 서야한다. 이러한 재단은 과거의 단순 정책연구작업이나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의 매개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문화예술의 현장에서 일하는 실질적 문화행정서비스의 중심으로서 거듭나길 기대한다.

둘째 제주지역 문화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주지역 문화예술 실태조사(제주문화예술 생태지도)의 지속적 실행이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5 인구주택 총조사’(전수조사)에 따르면 2015년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는 60만6000명인데 2010년 55만1000명에 비해 9.9% 증가하였는데 우리나라의 17개의 시·도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전국평균 인구 증가율 2.7%와 비교하면 3.6배 수준이고, 전국 전체인구 중 제주비중도 2010년 1.1%라면 지난해 1.2%로 올랐다. 가파른 인구증가로 인해 제주도내 인구밀도도 전국광역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이러한 인구증가는 문화수요의 확대와 문화예술생산자와 종사자 등의 많은 유입은 자명한 현상이라 하겠다. 이런 현실에서 문화예술 정책과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의 현실이 반영된 문화예술 실태조사서가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단순히 기존의 조사서처럼 공연장현황이나 예술단체 등등의 교과서적인 조사가 아니라 문화현장 곳곳의 상황과 문화예술인 및 예술향유의 실태를 파악하고 여론수렴의 도구로서 제주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문화예술 빅 데이터로서의 기능을 요구하고 싶다. 문화행정과 정책의 질은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립하고 실행해야 만이 담보 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바뀌는 문화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실천적인 문화행정이 요구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대토론회 등도 문화예술의 여론수렴의 사업들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토론회의 주제나 내용들은 토론회가 개최되기 불과 이틀전에 공고하거나 문화예술가, 매개자, 도민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한 사전홍보 등에는 거의 무관심한 수준이라 하겠다. 거기에다 토론회가 끝나고 결과나 의견에 대한 공시도 전무한데, 물론 나중에 보고서나 백서형식으로 공시할 가능성은 있으나 지금의 문화예술정책여론수

럼의 현실적 촉박함을 생각한다면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민선 6기는 협치를 강조하고 도민의견의 최대한 반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수요자 중심의 정책은 수요자들의 여러 의견을 빨리 수렴하여 마땅한 대안의 연구나 논의를 하고 그 실행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는 최근에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문화정책 영역 중에서 생활예술 지원정책이 있는데 이를 통한 문화민주주의의 정착화이다.

생활예술은 모두를 위한 예술이라는 ‘문화의 민주화’와 모두로 부터의 예술이라는 ‘문화민주주의’는 시대의 흐름과 발맞춰 주장되고 실천 돼왔다. 지금은 ‘문화민주주의’의 시대라 할 만큼 제주의 생활예술은 큰 뿌리를 내렸다. 생활예술을 통하여 누구나 예술을 창조하는 기쁨을 누리고 지역 공동체의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은 시민들이 문화주체로서 예술향유자만이 아닌 예술생태계의 주체로서 능동적 예술 활동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러한 생활예술의 확대와 지원정책의 합리화는 기존의 관변화적인 정책과 행정에서 커뮤니티의 소통을 통한 문화민주주의의 발현이라 할 수 있겠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구광모(2000). 『문화정책과 예술진흥』. 중앙대학교 출판부.
- 문화관광부(2013). 『문화예술정책백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박경훈(2014). 『제주담론2』. 제주 : 도서출판 각.
- 안도 타다오(2013). 『예술의 섬 나오시마(박누리 역)』. 마로니에북스.
- 이종인(1988). 『예술과 행정』. 평민사.
- 이흥재(2014). 『문화정책론』. 서울 : 박영사.
- 임학순(2003). 『문화사회와 문화정책』. 진한도서.
- 엘빈토플러(2006). 『제3의물결』. 홍신문화사.

### 연구논문 및 보고서

- 김우경(2014). 『지방자치시대 지역문화예술정책 연구』.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논문
- 김완수(2010). 『지역문화예술지원 정책 개선방안 연구』. 영남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논문
- 김해곤(2015). 제주에 예술섬은 필요한가?. 『제23회 제주미래포럼-‘제주 문화예술의 섬’조성을 위한 방향과 과제』, 제주발전연구원
- 고희송(2010).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류정아(2007). 지역문화 발전의 비전과 과제. 『2007 문화의 달 기념 학술 세미나 심포지엄』
- 민인철(2015). 『광주의 문화예술 창조도시 전략연구』. 광주발전연구원
- 문순덕(2009). 『제주도문화정책의 현황과 과제』. 제주발전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9.연구보고서. 『생활예술 지원정책방안 연구』
- 박상언(2014). 2015년 지역문화정책의 과제와 전망. 『웹진아르코』
- 박승현(2013). 문화예술과 여가를 통한 국민행복-패러다임의 전환과 여가정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 종합토론회 자료집』
- 이명희(2014). 바다와 태양, 예술과 건축이 어우러지는 섬.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
- 이재우(2015). 『지역문화재단의 지역문화정책 수용 인식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한류문화산업대학원 석사논문.
- 오양렬(2008). 문화예술 환경의 변화와 문예정책의 새로운 방향. 『문화정책논총』
- 정홍익(1992). 문화행정연구: 개념틀과 분석. 『한국행정학보』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1). 『kcti문화관광동향분석, 지역문화정책의 현재와 전망』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4). 『2013문화예술 정책 백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4).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 허은광(2014). 평화와 예술, 그리고 인천의 섬.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 제주문화예술재단
- 황교선(2008). 『문화예술과 연계한 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정책연구』.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인터넷이용 자료

『네이버 검색』, 섬관광정책(Inter-Islands Tourism Policy.ITOP)포럼  
『두산백과』,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United Cites and Local  
Governments, UCLG, 世界地方自治團體聯合]  
『시사상식사전』, (one source multi use), 하나의 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사용처를 개발해내는 것

## 웹사이트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제주문화예술재단 <http://www.jcaf.or.kr>  
제주발전연구원 <http://www.jdi.re.kr>  
제주특별자치도청 <http://www.jeju.go.kr>  
한국문화관광연구원 <http://www.kcti.re.kr>

< 설 문 지 >

--	--	--

**설문지(秘)**

본 연구의 내용은 통계법 제33·34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어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바쁘신 중에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시는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종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공연예술매니지먼트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문화예술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을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되며, 모든 것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귀하의 성의 있고 솔직한 설문은 저의 논문 쓰는데 아주 귀중한 자료로서 연구결과에 좋은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귀하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9

지도교수 : 김 태 훈

연구자 : 강 경 호

연락처 : h.p 010-2690-1204, e-mail : fxse000@naver.com

I. 다음은 설문대상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 ( )세
3. 귀하의 **출신지**는?  
① 제주 지역 ② 제주 외 지역
4. 귀하의 **현재 주소지**는?  
① 제주 지역 ② 제주 외 지역
5. 귀하가 **현재 제주에 거주하신 기간**은? 약 ()년
6. 귀하의 소득원에서 **문화와 관련된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전혀 없다 ② 없는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있는 편이다 ⑤ 매우 많다

7. 귀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수준을 평가 시 중요도와 만족도를 평가해주시시오.

설 문 항 목	중요도					만족도				
	전혀 중요하지 않음		↔	매우 중요 함		매우 족	불만	↔	매우 만족	
1. 공연예술시설의 숫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문화 예술행사의 빈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지방자치단체에 산재되어 3. 있는 문화재, 전통사찰, 전 통박물관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지 4. 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관 련 기사 및 홍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대규모 박물관과 미술관 및 체육시설 확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시민의 문화예술 참여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문화예술단체의 숫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문화예술기관 및 문화예술 가에 대한 자원 지원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문화예술관련 교육기관 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II. 문화예술 섬 정책에 대한 인식 분석

“문화예술의 섬” 조성 핵심전략은 6개의 실행계획이 있는데 첫째는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둘째는 제주 문화브랜드의 세계화 추진과 셋째는 문화와 산업의 융복합화, 넷째는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및 윈도심 활성화와 다섯째 지역전통문화 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여섯째 종교 문화 활성화를 통한 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계획된다.

8. 귀하는 제주가 추진하는 “문화예술의 섬 제주” 정책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모른다② 모른다③ 보통이다④ 알고 있다⑤ 잘 알고 있다

9. 귀하는 제주가 추진하는 “문화예술의 섬 제주” 정책을 통한 효과의 중요성과 만족도를 평가해주시요.

설 문 항 목	중요도					만족도				
	전혀 중요하지 않음		↔	매우 중요 함		매우 족	불만	↔	매우 만족	
1. 경제적 효과 및 지역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문화관광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시민의 창의력과 가치관 함양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전통문화예술의 전수 및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내실 있는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문화콘텐츠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국제 문화 교류의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시민생활의 풍성함과 원활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청년문화예술가의 역량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지역의 문화적 수준 향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귀하는 제주가 추진하는 “문화예술의 섬 제주” 정책에 대해 추진 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설 문 항 목	전혀 신뢰 하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신뢰 한다
1. 나는 제주가 추진하는 문화예술의 섬 정책에 대해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제주는 문화예술의 섬 정책과 관련된 예산을 공정하게 이용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제주도는 주민에게 약속한 데로 문화예술의 섬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제주가 추진하는 문화예술의 섬 정책은 일관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제주는 추진하는 문화예술의 섬 정책에 대해 관련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해왔다	①	②	③	④	⑤
6. 제주는 문화예술의 섬 정책과 관련하여 도민들과의 많은 협의 과정을 거쳤다	①	②	③	④	⑤
7. 제주는 문화예술의 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민 참여를 유도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III. 문화예술 거버넌스에 대한 중요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구분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 요 함	매 우 중 요 함
공간적 요인	도시 이미지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한 도시의 역동 성과 외관적인 이미지	①	②	③	④	⑤
	문화적 자산	경제적 자산으로 환원될 수 있는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전통적 문화요소	①	②	③	④	⑤
	문화 생산	축제, 이벤트 등 새로운 문화적 요소 의 창출	①	②	③	④	⑤
제도적 요인	창조산업 정책	예술문화산업과 첨단과학기술 등의 하이테크 산업지원과 유치 정책	①	②	③	④	⑤
	시민참여 제도	지역 정책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참 여를 유인하는 조례, 조직 등	①	②	③	④	⑤
	문화예술 도시정책 수립	문화예술 도시를 위한 지방정부의 독 립된 도시정책 수립	①	②	③	④	⑤
자원적 요인	문화예술 산업기반	예술문화와 관련된 마을이나 클러스 터	①	②	③	④	⑤
	지역 기반사업	지역 전통문화의 경제적 가치창출	①	②	③	④	⑤
	문화예술 산업 다양성	예술문화산업의 다양성과 다양한 산 업과의 연계	①	②	③	④	⑤
커뮤 니티 요인	자발적 주민참여	주민들 간의 교류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의산 반영 노력	①	②	③	④	⑤
	문화예술 적 시민활동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인재 육성 노력	①	②	③	④	⑤
	민관협 의 체 활동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민관협 의체의 다양성과 활발한 활동	①	②	③	④	⑤
거버 넌스 요인	네트워크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공동목표와 문 제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체	①	②	③	④	⑤
	사회자본	호혜주의적인 사회적 규범과 신뢰	①	②	③	④	⑤
	학습과 정보공유	문화예술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 적 학습과 상호 주체간의 정보공유	①	②	③	④	⑤

Ⅲ. 문화예술 섬 정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분석

설 문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귀하는 문화예술의 섬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문화예술의 섬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 귀하는 문화예술의 섬 정책에 따른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지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 귀하가 생각하시는 문화예술의 섬 추진에서 조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 **Abstract**

# **Regional cultural arts policy study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Analysis and proposal on the ‘island of cultural arts’ policy**

**Kang Kyoung-ho**

**Department of Performing Arts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Performing Arts**

**Sejong University**

The significance and status of cultural arts policy are more important than ever, as culture has been a periodic paradigm and a part of everyday life. Cultural competitiveness is a prerequisite for the flow of globalization. Especially in 1995 with the advent of the local self-governing era and the following expansion of autonomy of local organizations related to the cultural arts, central cultural arts policy saw its turning point towards the direction of gratifying the changes of local-specific targeting and diversification.

Jeju Island was converted into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July 2006 as a result of the decentralization. Along with the enactment of the Local Culture Promotion Act with the objective of ‘alleviating the cultural gap among local regions and promoting unique cultures of each region’ in 2014, the

cultural arts policy of Jeju has been actively pushed ahea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s no longer a peripheral region; it is a hot spot of the cultural arts equipped with rich cultural factors. Especially, thanks to the accelerated influx of population over the last few years and the visits of more than 10 million annual tourists, Jeju Island is now in a position to generally review the past policies and seek for future directions.

Considering such trends, this study aims to theoretically explore the overall regional cultural arts policy, conduct positive research based on case studie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island cultural arts policies and the 6<sup>th</sup> 'island of cultural arts' policy selected by the public, and deduct problems and offer a proposal through the survey on the 'island of cultural arts' policy.

Throughout the theoretical contemplation, case study and survey, the task and proposal for the 'island of cultural arts' policy can be summarized into several points. The first task is the lack of character for the vision of the island of cultural arts. The second is the lack of inter-connectivity among the island of cultural arts businesses. The third is the lack of extended influence of the island of the cultural arts policy, the fourth is the lack of sustainable cultural promotion programs. The fifth is the design and promotion of a business applied with the concept of cultural democracy. Regarding such tasks reflecting the status quo, the policy proposals on the island of cultural arts policy are as follows. The first is the policy completion and expanded opportunities to the arts by the local citizens. The second is the intensified PR and marketing activities for Jeju, the island of cultural arts. The third is the construction of the cultural arts infrastructure. The fourth is the policy direction setting for Jeju in the 1.3 million-tourist era which is currently on the rise. The fifth is the

policy direction for Jeju as the island of cultural arts.

For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island of cultural arts' policy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 active and communicative culture administration equipped with consumer-focused policies and cultural democracy should be completed throughout the building of democratic and realistic regional culture policy governance. Furthermore, the starting point should state that cultural arts itself should be the end objective of cultural arts policies. This is because the diverse extended effects and tourism advantages are not the objective themselves; they are merely an additional benefit acquired through healthy development of the cultural arts industry. The various policies and businesses on cultural arts should have the objective of promoting the cultural arts industry itself. When such an objective is set, diverse cultural arts sections are secured, and the spontaneity led by the public is prepared, Jeju Island as the true island for the cultural arts can realize its vision.

Keywords : regional cultural arts policy, cultural arts polic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